韓国の現代都市デザイン - 到達点と学びたいこと記録集

Town
Design
Aid

한국의 현대도시 디자인 - 도달점과 배우고 싶은 것

기록집



巻頭言 머리말

2023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記録集作成にあた U

日本の TDA の交流活動が始まって 10 年を経過しまし TDA 의 교류 활동이 시작된 지 10 년이 지났다. 이 た。この交流は、両国各都市での都市デザイン活動の 교류는 양국 각 도시의 도시디자인 활동 상황을 状況を現地で肌で感じ、説明を受け、学び、感想を述べ 合う場としてスタートしました。

その後の 10 年の間に、両国の都市デザインを巡る状 況も変化してきました。都市デザインの視点や活動方 法も多様化しています。特に韓国での近年の取り組み の発展には著しいものが感じられます。

れぞれ、韓国都市の取り組みに接し、これまでにない 한국 도시의 활동을 접하고 이전과는 다른 많은 多くの驚きを持ち帰りました。

そこで、鈴木俊治さん(TDA 理事)から、昨年の韓 国訪問時のホットな感想を参加者各自が出し合い、記 録に残し、TDAとして、できれば多くの方々に伝える べきとの提案があり、この記録集の作成に至りました。

2023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 기록집 제작에 즈음하여

都市デザイン専門家の集団である、韓国の PUDA と 도시디자인 전문가 집단인 한국 PUDA 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느끼고, 설명을 듣고, 배우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시작되었다.

그 후 10 년 동안 양국의 도시디자인을 둘러싼 상황도 변화해 왔다. 도시디자인의 관점과 활동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의 활동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작년 昨年の韓国での交流会では、日本側 TDA 参加者はそ 한국에서의 교류회에서 일본 측 TDA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 슌지 씨(TDA 이사)로부터 작년 한국 방문 시 뜨거운 소감을 참가자 각자가 서로 나누고 기록으로 남겨 TDA 로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이 기록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もう一歩踏み込んで具体的な課題を議論しあう場にし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たいとの願望も芽生えています。

流の輪の拡大や、次の段階への進化のために活かして 行きたいと思います。

2024年6月

TDA 景観デザイン支援機構代表理事 国吉直行

両国交流会の場は、まち歩きと感想披露の場から、 양국의 교류의 장이 단순히 도시를 걷고 소감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 이 기록집은 양국 도시디자인 교류의 향후 교류의 폭을 넓히고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 > 2024 년 6월

TDA 경관디자인지원기구 대표 쿠니요시 나오유키

巻頭言 머리말

国吉 直行 TDA 代表理事

Naoyuki KUNIYOSHI TDA 대표이사

第	部 韓国訪問記録集 한국 방문 기독집		
1.	ダイナミックなソウルの景観の変化	吉田 愼悟	
	역동적인 서울 풍경의 변화	Shingo YOSHIDA	1
2.	光化門広場を訪ねて	倉澤 聡	
	광화문 광장 방문	Satoru KURASAWA	18
3.	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を通して都市デザインの現在を想う	高谷 時彦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통해 도시 디자인의 현재를 생각하다	Tokihiko TAKATAN	23
4.	道路景観の可能性	井上 洋司	
	도로 경관 가능성	Yoji INOUE	37
5.	伝統的建造物群と街のありかたを考える	井上 洋司	
	전통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다	Yoji INOUE	40
6.	都市のサイン、色彩と公共空間	依田 彩	
	도시 간판, 색채 및 공공 공간	Aya YODA	41
7.	交差点の日除けパラソル	鈴木 稔	
	교차로 차양 파라솔	Minoru SUZUKI	48
8.	議政府市の新交通システム沿いの水辺空間	鈴木 稔	
	의정부시 신교통 시스템을 따라 조성된 수변 공간	Minoru SUZUKI	48
9.	人を招き寄せるショッピングストリート		
	飲食空間、伝統建築、そして、のんびり座れる椅子	杉山 朗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쇼핑 거리	Akiko SUGIYAMA	51
	식음 공간, 전통 건축, 그리고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의자		

10.	韓国のまちの色	杉山 朗子	
	한국의 도시 색깔	Akiko SUGIYAMA	56
11.	益善洞の韓屋リノベ-ション	鈴木 俊治	
	익선동의 한옥 리노베이션	Shunji SUZUKI	61
12.	仁川の旧日本人街	鈴木 俊治	
	인천 구 일본인 거리	Shunji SUZUKI	63
13.	仁川の都市戦略と松島地区開発	鈴木 俊治	
	인천의 도시 전략과 송도지구 개발	Shunji SUZUKI	64
14.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に参加して	矢内 匠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참가	Takumi YANAI	67
15.	韓国の夜間照明の事例紹介	近田 玲子	
	한국의 야간조명 사례 소개	Reiko CHIKADA	69
16.	議政府市キャンプ・レッドクラウド基地跡地について	倉田 直道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이전 부지에 대하여	Naomichi KURATA	72
17.	ソウル特別市公共空間整備について	倉田 直道	
	서울 특별시 공공공간 정비에 대하여	Naomichi KURATA	76

第	2部 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ズ	아인 주진의 역사와 배경	
1.	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景観デザインの背景としての	倉田 直道	
	都市政策と法制度について	Naomichi KURATA	82
	한국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도시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2.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 10 年と韓国都市デザインの現在地	国吉 直行	120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 10 년과 한국 도시디자인의 현주소	Naoyuki KUNIYOSHI	

第3部 韓国都市	市デザインに関する意見交換会	한국 도시디자인에 관한 의견 교환회	
開催概要	개최 개요	1	131
討議要旨	日本語 토론 요지 일본어		133
討議要旨	韓国語 토론 요지 한국어	1	147
2023 TDA-PUDA	៶韓国訪問日程 한국 방문 일정	!	162
2023 TDA-PUDA	、韓国訪問 日本側参加メンバー	한국 방문 일본측 참가 멤버	164
編集後記	편집 후기	1	165

表紙デザイン: 依田 彩

1. ダイナミックなソウルの景観の変化 역동적인 서울의 풍경 변화

◆日本と韓国の都市デザイン交流会

TDA(景観デザイン支援機構)が、日本と韓国の都市デザインの交流会を始めたのは 2015 年の 10 月であった。毎年交互に日本と韓国の都市デザインの対象となっている地域を視察し、それぞれが抱える都市デザインの課題を話し合ってきた。第 1 回目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は日本で開催した。鎌倉と横浜を視察して、その後日本と韓国の都市デザインの問題を討議する会議を行った。昨年 2023 年の交流会は韓国で開催され、仁川(インチョン)と議政府市(ウジョンブ)を視察し、議政府市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積極的な議論を行った。そして、都市デザイン交流会で韓国を訪れた帰りはいつも変化するソウルの景観を見学して来た。

2000年代に入ると韓国でも都市の色彩環境をどのように整備すればよいか議論され始め、様々な試みがなされていた。私は、環境色彩デザインが先行した日本の状況を話してほしいという要望を受け、韓国の色彩学会や、その他の団体で環境色彩に関する講演を行い、何回かソウルを訪れる機会を得た。今回はその頃撮影したソウルのまち並みを紹介しながら、この間のソウルの景観の変化を振り返ってみたい。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TDA(경관디자인지원기구)가 일본과 한국의 도시디자인 교류회를 시작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 매년 번갈아가며 일본과 한국의 도시디자인 대상 지역을 시찰하고, 각국의 도시디자인 과제를 논의해 왔다. 제 1회 한일도시디자인 교류회는 일본에서 개최했다. 가마쿠라와요코하마를 시찰하고, 이후 일본과 한국의 도시 디자인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2023년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어 인천과 의정부를 시찰하고의 의정부의 도시디자인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교류회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변화하는 서울의 경관을 견학하고 왔다.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도시의 색채 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환경색채디자인이 앞선 일본의 상황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색채학회나 다른 단체에서 환경색채에 관한 강연을 하고, 서울을 몇 차례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는 그때 촬영한 서울의 거리 풍경을 소개하면서 그동안의 서울의 경관 변화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吉田 愼悟 Shingo YOSHIDA





◆ソウルの公共空間整備

□仁川国際空港 2006 年

イギリス人のテリー・ファレルが設計した仁川国際空港は 2001 年に開港している。フランスのカラリスト、ジャン・フィリップ・ランクロもこの計画に協力したという話を聞いていたので、そのカラーデザインを見に行った。仁川国際空港の内装は全体的に穏やかな印象で、整備されたサインがよく目立っていた。

写真: A-1.A-2.A-3.A-4

□Leeum 美術館 2006 年

この年は、サムスングループの創始者イ・ビョンチュルが所蔵していた美術品を公開するために建てられた Leeum 美術館を見学した。Leeum 美術館は 2004年にオープンしており、国際的に活躍する建築家マリオ・ボッタ(スイス)、ジャン・ヌーベル(フランス)、レム・コールハウス(オランダ)の 3 人がその設計を担当した。3 棟の美術館内部の空間はそれぞれ個性的で印象的だったが、競って設計された 3 つの建物を繋ぐ景観的な試みもあると、さらに魅力的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感じた。

写真:B-1.B-2.B-3.B-4

◆서울의 공공공간 정비 □인천국제공항 2006 년

영국인 테리 패럴이 설계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 년 개항했다. 프랑스의 컬러리스트 장 필립 랑크로도 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컬러 디자인을 보러 갔다. 인천국제공항의 내부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으로 잘 정비된 사인이 눈에 잘 띄었다.

사진: A-1.A-2.A-3.A-4

□리움미술관 2006 년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공개하기 위해 건립된 리움미술관을 견학했다.2004 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스위스), 장 누벨(프랑스), 설계를 콜하우스(네덜란드) 3 인이 맡았다, 콜하우스(네덜란드) 세 사람이 설계를 맡았는데, 세 개의 미술관 내부 공간은 각각 개성 있고 인상적이었지만, 경쟁적으로 설계된 세 건물을 연결하는 경관적 시도도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사진: B-1.B-2.B-3.B-4

















B-4

□清渓川 2007 年

清渓川(チョンゲチョン)は歴史ある河川だが、生活 排水が流れ込み、この汚染のために永く暗渠化され 흘러들어와 오염으로 인해 오랫동안 암거로 방치되어 2005 年に復元工事が完了した。清渓川の復元は日本 - 공사가 완료되었다. 청계천 복원은 일본에서도 큰 でも大きな話題になり、その復元の速さとデザイン の質で、その後のソウルの都市デザインに大きな影 響を与えた。

写真: C-1.C-2.

口崇禮門(南大門) 2007 年

崇禮門は大韓民国指定国宝第 1 号で、ソウルの重 중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1 호로 서울의 중요한 元の姿を取り戻している。写真は消失する前の年の 崇禮門の姿である。

写真: D-1.

口屋外広告物の整備 2007年

2007年には屋外広告物の整備が急ピッチで進んで 2007 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급물살을 타고 いた。昔ながらの看板が取り外され、ハングルの箱 있었다. 옛날식 간판이 철거되고, 한글로 된 박스형 文字の表示に代わって行った。

□키요히 강 2007년

청계천은 유서 깊은 하천이지만 생활하수가 화제가 되었으며, 그 복원의 속도와 디자인의 질로 이후 서울의 도시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진: C-1.C-2

□청리 남성 (남문) 2007 년

要なランドマ-クの一つとなっている。2008年、放火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2008년 방화로 인해 목조 누각이 によって木造の楼閣が焼失したが、2013年に復元し 소실되었다가 2013 년에 복원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사진은 소실되기 전 숭례문의 모습이다.

사진: D-1

□옥외광고물 정비 2007 년

문자 표시로 바뀌었다.





C-2



D-1

急激にきれいな箱文字表現に代わったために戸惑 う市民も多かったようで、昔ながらのちょっと猥雑 な景色が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を惜しむ声も多く聞 いた。ソウルではこのような整備が、日本では考え られない速さで進む。

写真: E-1.E-2

口公共バスの色 2007年

2006年に永くブラジルで仕事をしていた建築家の 南條洋雄さんの案内で、ブラジルのいくつかの都市 を見学する機会があった。この時都市デザインが注 目されていたクリティ-バも見学したが、公共交通の バスの運行にも斬新なシステムが採用され、明快な 色彩で区別されたバス路線のことを知った。クリティ-バの都市デザインは世界的に注目されており、韓 国からも研究員が来て熱心に学んでいたという話を 聞いたが、2007年にソウルで、クリティ-バで見たよ うな明快なカラ-デザインのバスが沢山走っている ことに気が付いた。世界の都市デザインを研究し、 よいことは素早く取り入れる積極性には感心させら れる。

写真:F-1.F-2

갑작스럽게 깔끔한 박스 문자 표현으로 바뀌면서 당황한 시민들도 많았던 것 같고, 예전의 다소 지저분한 풍경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렸다. 서울에서는 이런 정비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사진: E-1.E-2

□공공버스 색상 2007 년

2006 년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건축가 난조 요시오 씨의 안내로 브라질의 여러 도시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도시 디자인이 주목받던 꾸리찌바도 견학했는데, 대중교통 버스 운행에도 참신한 시스템을 도입해 선명한 색채로 구분된 버스 노선을 알게 되었다. 크리티바의 도시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연구원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7 년 서울에서 크리티바에서 본 것과 같은 선명한 컬러 디자인의 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의 도시 디자인을 연구하고 좋은 것은 빠르게 도입하는

사진: F-1.F-2



E-1



E-2





F-2

ロソウル駅 2007年

昨年 2023 年に話題になっていた"ソウル路 7017" も見学したが、2007 年に撮ったソウル駅とその前の 高架道路の写真があったので載せておく。この高架 が今では緑に覆われて誰でもゆったりと歩ける空間 となって、再生している。

写真: G-1

ロカラ-デザインウィ-ク 2009 年

2009 年頃にはソウルで色彩に関する会議が多く開催されている。写真は"カラ-デザインウィ-ク"の会議の様子で、フランスの著名なカラリスト、ジャン・フィリップ・ランクロが招待され講演している。その後シンポジウムがあり、私もその席にいたが、写真H-1 の右には TDA の会員でもあった横川昇二さんが都市の色彩デザインについて話している姿が写っている。写真 H-2 は韓国の環境色彩調査の展示の様子である。

写真:H-1.H-2

□서울역 2007 년

작년에 2023 년으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로 7017'도 견학했는데, 2007 년에 찍은 서울역과 그 앞 고가도로 사진이 있어 올려둔다. 이 고가도로가 지금은 녹색으로 덮여 누구나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되고 있다.

사진: G-1

□컬러 디자인 위크 2009 년

2009 년을 전후해 서울에서는 색채에 관한 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컬러 디자인 위크'의 회의모습인데, 프랑스의 저명한 컬러리스트인 장 필립 랑크로가 초청되어 강연을 하고 있다. 이후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사진 H-1 의오른쪽은 TDA 회원이기도 한 요코가와 슌지 씨가도시의 색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사진 H-2는 한국의 환경색채조사 전시 모습이다.

사진: H-1.H-2



G-1



H-1



H2

口大学の交流会で北村の色彩調査 2010 年

この年は武蔵野美術大学の基礎デザイン学科の学生とソウルにある大学と協働で、ソウルの古い町並みが残っている街区、北村の環境色彩調査を実施した。日本でも大学教育の中では環境色彩をカリキュラムに取り入れている大学はほとんどないが、色彩を通してまちを見ることは大学生にとっても新鮮な体験だったようだ。

写真: I-1.I-2.I-3.I-4

口工事中の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 2011年

ザハ・ハディドが設計したデザインプラザは、今では多くの観光客が訪れるソウルの名所となったが、2011 年はまだ工事中であった。ザハは 2007 年の国際公募で選ばれ設計が進められた。斬新なザハのフォルムを実現するために、外装材となっている金属のパネルの加工等に新しい技術を開発して、デザインプラザは 2014 年に竣工している。

写真:J-1

□대학 교류회에서 북촌의 색채 조사 2010년

이 해에는 무사시노미술대학 기초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서울에 있는 대학과 협업하여 서울의 옛 거리가 남아 있는 북촌의 환경색채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도 대학교육에서 환경색채를 커리큘럼에 도입한 대학은 거의 없지만, 색채를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대학생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사진: I-1.I-2.I-3.I-4

□공사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1 년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디자인플라자는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지만, 2011 년 당시에는 아직 공사 중이었다. 자하는 2007 년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되었다. 참신한 자하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외장재인 금속 패널 가공 등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디자인플라자는 2014 년에 준공되었다.

사진 : J-1





I-1







I -3

1 - 1



J-1

口竣工直前の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 2013 年

ンプラザの様子である。デザインプラザの中には入 디자인플라자의 모습이다. 디자인플라자 내부에는 れなかったが、外構には芝生がはられ、樹木も植わ 들어가지 못했지만, 외곽에는 잔디가 깔리고 나무도 ってほぼ完成していた。

写真: K-1.K-2.K-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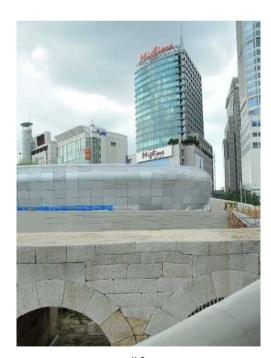
□준공 직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3 년

写真は、建築工事がほぼ完成した 2013 年のデザイ 사진은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2013 년 심어져 거의 완성된 모습이었다.

사진: K-1.K-2.K-3







K-2



K-3

□梨泰院路 2015 年

この時はソウルの中央大学で環境色彩の講義を依頼され、教授の李さんの案内でソウルの何カ所かを見学した。中央大学近くの市場で魚を買って、その魚を市場に隣接している食堂で調理をしてもらって食べ、その後若者にも人気があるという梨泰院路を歩いた。ソウルの中心部にあるこの地区は多くの店舗で賑わっていた。ソウルの繁華街はリニューアルされ、若者が起業して競って賑わいをつくっていた。

このような昔ながらの賑わいと、デザインプラザのような新しい空間の両方が体験できるのもソウルの魅力である。

写真:L-1.L-2 中央大学近くの魚市場

写真: M-1.M-2 多くの店で賑わう梨泰院路



L-1

□이태원 로드 2015 년

이번에는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환경색채 강의를 의뢰받아 이 교수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다. 중앙대 근처 시장에서 생선을 사서 시장 옆에 있는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먹은 후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태원로를 걸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지역은 많은 상점들로 북적거렸다. 서울의 번화가는 새롭게 단장하고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경쟁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런 옛 정취와 디자인플라자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서울의 매력이다.

사진: L-1.L-2 중앙대 인근 어시장 사진: M-1.M-2 많은 가게들로 북적이는 이태원로



L-2



M-1



M-2

口清渓川 2015 年

復元されてから 10 年程経った清渓川は緑も大き 복원된 지 10 여 년이 지난 청계천은 녹음이 우거져 く育って、市民の憩いの場になっていた。

写真:N-1.N-2

口竣工した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 2015 年

2014 年に完成したデザインプラザは、外部にもア- 2014 년 완공된 디자인플라자는 외부에도 예술작품이 トが展示され、活動を始めていた。

写真:0-1.0-2



N-1

□키요히 강 2015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사진 : N-1.N-2

□준공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5 년

전시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0-1.0-2







0-1



0-2

ロソウルの名所になった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 2016年

デザインプラザは、その特異な姿で多くの人を集 めていた。この斬新な造形を見ると、日本で建設さ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 참신한 조형물을 보고 있자니, れる予定があった国立競技場が東京にどのようなア クティビティを起こしていたか、見たかったように も思う。

写真:P-1.P-2.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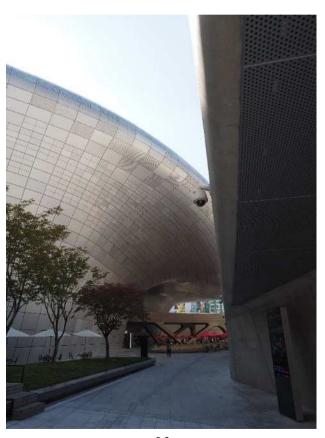
P-1

□서울의 명소가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6년

디자인플라자는 그 특이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본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국립경기장이 도쿄에 어떤 활동을 일으켰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진 : P-1.P-2.P-3







P-3

口光化門広場 2016年

光化門広場は 2022 年に改修され、車道が閉鎖され 광화문광장은 2022 년 개보수 공사를 통해 차도가 て広場の機能が充実したが、2016年に訪れた時も大 폐쇄되어 광장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2016 년 きなイベントが行われ、沢山の人が集まっていた。 방문했을 때에도 큰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このような大規模なイベントが出来る大きな広場が 있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광장이 都心部にあることは羨ましい。

写真:Q-1.Q-2

□その後の清渓川(チョンゲチョン) 2016 年 □ユ 후 청계천 2016 년

清渓川の緑はさらに育ち、一部はうっそうとした 청계천의 녹음이 더욱 짙어지고, 일부 구간은 울창한 緑に包まれた空間もある。この遊歩道はソウルの観 녹음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있다. 이 산책로는 서울의 光名所の一つとなっている。

写真:R-1.R-2.R-3



Q-1

□광화문 광장 2016 년

도심에 있다는 것이 부럽다.

사진 : Q-1.Q-2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사진: R-1.R-2.R-3



Q-2



R-1



R-2

◆2023 年のソウル

昨年 2023 年は韓日都市デザイン交流会で仁川と 議政府市を視察したが、帰りにソウルに寄り、変貌 의정부시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들러 しつつあるソウルの景観も視察した。その時視察し 변화하는 서울의 경관도 시찰했다. 당시 시찰한 몇 た幾つかの場所を紹介する。数年前の写真と比べる 군데를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의 사진과 비교하면 と、ソウルのまちが、急速に"歩いて楽しいまち"へと 서울이 빠르게 '걷고 싶은 도시'로 성장했음을 알 수 育ってきたことが分かるだろう。

□清渓川 2023 年

で大きな転換点になった計画だと思うが、高架道路 된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수변을 を撤去して水辺を整備した遊歩道は、既にソウルに 정비한 산책로는 이미 서울에 없어서는 안 될 はなくてはならない公共空間となっている。川沿い 공공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강변의 녹지 또한 크게 の緑も大きく成長していた。今回はザハ・ハディド 성장했다. 이번에는 자흐 하디트가 설계한 が設計したデザインプラザから歩いて清渓川に向か い、川沿いを歩いて多くの人で賑わう市場を巡った。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매력적인 ソウルの魅力的な空間を歩いて回遊できる歩行者導 ろ간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보행자 동선으로도 잘 線としてもよく機能している。

写真(1)(2)緑が大きく育った清渓川の遊歩道

◆2023 년 서울

지난해 2023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에서 인천과 있을 것이다.

□키요히 강 2023

このプロジェクトは、ソウルの都市デザインの中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도시 디자인에서 큰 전환점이 디자인플라자에서 청계천으로 걸어가 강변을 따라 많은 기능하고 있다.

사진①②녹음이 우거진 청계천 산책로



写真(1)



写真(2)

ロソウル広場 2023年

このソウル市庁舎前の広場大きな広い芝生の広場 になっており、見学した日は芝生の上に色とりどり のオブジェが置かれ、多くの市民が遊んでいた。今 놓여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놀고 있었다. 이번에 이 回この広場を 2 回見学したが、1 回目は光化門前の 広場から徒歩で、そして2回目はソウル駅の整備を 見て、その後ソウル広場まで歩いて行った。このよ 서울광장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이렇게 걸어서 새로운 うに徒歩で新しい公共空間を巡ることはソウルの新 しい魅力となっている。

写真(3)色とりどりのオブジェが置かれたソウル広場

ロソウル路 7017 2023 年

ソウル駅も整備が進んでいた。駅前に、1970年代 に建設された自動車の高架道路が走っていたが、こ の高架道路が、最近、市民のための歩道として再整 備されていた。この高架道路に上がって見ると、植 栽されたプランタ-が置かれ、カフェもつくられてい た。この空中の道路空間から隣接するビルに渡れる ように新たに橋が架けられ、ビルに直接アプロ-チで きる。少し歩いてこの高架道路を降りると、整備さ れた緑も多い歩道とも繋がっていた。

写真(4)歩道に再整備された高架道路ソウル路 7017

□서울광장 2023 년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은 넓고 넓은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견학한 날은 잔디 위에 형형색색의 오브제들이 광장을 두 번 둘러보았는데, 첫 번째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걸어서, 두 번째는 서울역의 정비를 보고 나서 공공공간을 둘러보는 것은 서울의 새로운 매력이 되고 있다.

사진③ 알록달록한 오브제가 놓인 서울광장

□서울로 7017 2023 년

서울역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역 앞에는 1970 년대에 건설된 자동차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이 고가도로가 최근 시민들을 위한 보행로로 재조성되고 있었다. 이 고가도로에 올라가 보니 화분이 심어져 있고, 카페도 만들어져 있었다. 이 공중 도로 공간에서 인접한 건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새로 다리가 만들어져 건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이 고가도로를 조금 걸어 내려가면 잘 정비된 녹지가 많은 보도와도 연결된다. 사진④보도로 재정비된 고가도로 서울로 7017



写真(3)



写真(4)

□世運商街 2023 年

世運商街の建築にも興味があったので、清渓川から歩いてこの建築物を見に行った。この建物がある界隈は東京の秋葉原のように電気屋が多く集積しており、大規模な再開発も進んでいた。世運商街は建築家キム・スグン(金壽根)の設計で、この有名な建築家の建物を活かしてこの地区の再開発開発が計画されているという。世運商街前の広場は、道路を挟んで緑に囲まれた宗廟広場公園に続いており、この緑との繋がりも、ソウルの新しい都市のアクティビティを生むだろう。

写真(5)世運商街の屋上から宗廟広場公園を見た景色

口光化門前の広場 2023年

景福宮の正門である光化門前の大通りの姿を再現するために光化門広場が再整備されたが、この広場は最近両側にあった道路の片方が撤去され、大きな広場として整備されていた。光化門に向かって真っすぐに伸びる広場には噴水がつくられ、子供たちがびしょ濡れになって遊んでいた。光化門の背後には小高い山が見え、ソウルの自然な地形を感じることが出来る。ここでも多くの人が集まり、都市の新しいアクティビティが生まれていた。

写真⑥再整備された光化門前の広場

□올림픽 쇼핑 센터 2023

세운상가의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 청계천에서 걸어서 이 건축물을 보러 갔다. 이 건물이 있는 주변은 도쿄의 아키하바라처럼 전기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이 유명한 건축가의 건물을 활용해 이 지역의 재개발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세운상가 앞 광장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녹지로 둘러싸인 종묘광장 공원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녹지와의 연결도 서울의 새로운 도시 활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진⑤ 세운상가 옥상에서 종묘광장 공원을 바라본 모습

□광화문 앞 광장 2023 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대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이 재정비되었는데, 이 광장은 최근 양옆에 있던 도로의 한쪽을 철거하고 넓은 광장으로 정비했다. 광화문을 향해 쭉 뻗은 광장에는 분수대가 만들어져 아이들이 흠뻑 젖어 놀고 있었다. 광화문의 뒤편으로는 작은 산이 보이는데, 서울의 자연 지형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겨나고 있었다.

사진⑥ 재정비된 광화문 앞 광장



写真(5)



写真(6)

口盤浦漢江公園とセビッ島 2023 年

韓日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ソウルオプショナルツ ア-で夕刻から、漢江につくられた人工島を案内して もらった。漢江を渡る大きな橋から豊富な水が噴き 出し、ライトアップされた月光虹噴水を楽しんでい た。漢江につくられた人工の島セビッ島につくられ たガラスの建物もライトアップされ、ソウルの新し い名所になっていた。夕刻からこの漢江の夜景を見 るために沢山の人が集まっていた。漢江でボート遊び をしたり、スケートボードで走り回ったり、テントを張 ってゆっくりと食事を楽しんでいる人達もいる。何 軒か並んだキッチンカ-も人気があり、長い行列が出 우리도 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来ていた。私達もこの盤浦漢江公園で、近くのコン ビニエンスストアで買ってきた食べものとアルコ-ルで韓国最後の夜を楽しんだ。

写真(7)人工島から見る漢江沿いの再開発された高層住宅 사진(8) 인공섬에서 바라본 석양 群

写真(8)人工島からの夕日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2023 년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 서울옵션투어에서 저녁부터 한강에 조성된 인공섬을 안내받았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에서 풍부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조명이 켜진 달빛 무지개 분수를 즐겼다. 한강에 조성된 인공섬 세빛섬에 조성된 유리 건물에도 조명이 켜져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었다. 저녁부터 이 한강의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강에서 보트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 텐트를 치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몇 군데의 포장마차도 인기가 많아 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음식과 술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다.

사진⑦ 인공섬에서 바라본 한강변의 재개발된 고층 주택단지



写真(7)



写真(8)

今回のソウル見学で、多くの人が公共空間で自由に遊んでいる姿を見た。"歩いて楽しいまち"の創造に、ソウル市は本格的に取り組んでいる。それぞれの地域の歴史的な資産を残しながら、自然の地形も感じることが出来る空間が、数多く生まれつつある。そこでは、沢山の人が集い、都市の新しいアクティビティが生まれている。

2022年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で韓国の人達に紹介した日本の川越や下北沢は、韓国の都市デザイナーも認める"歩いて楽しいまち"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しかし、東京とソウルを比べると、"歩いて楽しいまち"を実現する速度はソウルの方がはるかに上のように見える。安全性や経済性ばかりを追求してもまちは楽しくならない。それぞれの場の特性を育てて、真に"歩いて楽しいまち"を実現しなければ、都市は衰退していく。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が始まる前に、環境色彩計画の仕事でソウルを訪れた時の写真を数点紹介したが、この写真を見て思い出すと、この短い期間にソウルの景観はダイナミックに変わったことを再認識する。

이번 서울 견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살리면서 자연 지형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의 새로운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2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한 일본의 가와고에와 시모키타자와는 한국의 도시 디자이너들도 인정하는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났다. 하지만 도쿄와 서울을 비교하면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는 속도는 서울이 훨씬 더 빨라 보인다. 안전과 경제성만 추구한다고 해서 도시가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다. 각 장소의 특성을 살려 진정으로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지 않으면 도시는 쇠퇴할 것이다.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색채계획 업무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몇 장 소개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서울의 경관이 역동적으로 변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らないくらい大きく景観を変えているが、何処も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경관을 바꾸고 있지만, 어딜 가나 じような個性のない都市になっているようにも見え る。ソウルは"歩いて楽しいまち"の創造に向けて、新 しいランドマ-クになるような斬新な建築を建て、古 いまちの賑わいがある地区もうまく活性化している。 동네의 활기찬 지역도 잘 활성화시키고 있다. 도시가 都市が育って行く上でそれぞれの地区の歴史やそこ で培われてきた個性はとても大切なものだ。ソウル の"歩いて楽しいまち"への着実な変貌と東京の変化 を比べてみるといささか焦りを感じ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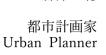
東京も大規模な建築工事が多く、以前の姿が分か 도쿄도 대규모 건축 공사가 많아 이전 모습을 알아볼 비슷비슷한 개성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참신한 건축물을 짓고, 오래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각 지역의 역사와 그곳에서 쌓아온 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서울의 '걷기 좋은 도시'로의 꾸준한 변모와 도쿄의 변화를 비교하면 다소 조급함이 느껴진다.

2. 光化門広場を訪ねて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景福宮の光化門から南に延びる韓国を代表する街 路の一つである世宗路(現在は太平路と合わせて世 宗大路)は、幅員が100mもある。中世から幅員が広 く街路だけでなく広場としての機能を持たせていた とされるが、1953年に100mに拡幅された後、モー タリゼーションにより中央分離帯に植樹はされてい たものの長らく 16 車線もある車中心の道路となっ ていたところだ。2009年には、中央部の6車線を潰 して光化門広場が整備されたが、両側に 5 車線ずつ の広幅員の道路に囲まれることで沿道からのアクセ スが遮られて使いにくく、世界最大の中央分離帯と 揶揄されたこともあったようである。そのような中、 西側の車道部と光化門広場であった街路の中央部が 一体的に広場として改修されることになり、2022年 に新たな光化門広場としてオープンした。車道は両 側 7~9 車線で歴史博物館やアメリカ大使館がある 東側にまとめられ、西側は世宗路公園や世宗文化会 館等の沿道施設が車道に遮られることなく光化門広 場とつながるようになった。

경복궁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로 중 하나인 세종로(현재는 태평로와 함께 세종대로)는 폭이 100m 에 달한다. 중세부터 폭이 넓어 거리뿐만 아니라 광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1953 년 100m 로 확장된 후, 자동차화로 인해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16 차선이나 되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되었던 곳. 2009 년에는 중앙부 6 차선을 없애고 광화문 광장을 조성했다.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었지만, 양쪽으로 5 차선씩의 넓은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변에서 접근이 차단되어 이용이 어려워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서쪽 차도부와 광화문광장이었던 도로 중앙부가 일체형으로 광장으로 개보수되어 2022 년 새로운 광화문광장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차도는 양측 7~9 차선으로 역사박물관과 미국대사관이 있는 동쪽으로 정리되고, 서쪽은 세종로공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도로변 시설이 차도에 가로막히지 않고 광화문광장과 연결되게 되었다.

Satoru KURASAWA 倉澤 聡







1. 光化門広場につながる地下鉄出口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출구



2. 憩う人で賑わう緑陰スペース 휴식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녹지 공간

2009年に整備された光化門広場では、世宗路の光化門への街路の中心軸や中心性が強く意識された広場となっていたが、人の居心地という面では問題ありとされていた整備を経て、2022年の整備では全体としては光化門に対する空間的な中心性よりも、人の過ごしやすい空間を強く意識した改修がなされることになった。景福宮の中心軸と世宗路の中心軸は光化門を境に地図で計測するとなぜかもともと約4°ほどずれており、新たな整備では光化門広場の光化門に近い場所に設けられた六曹の庭とよばれる芝生を、景福宮の中心軸に呼応するように配置されている。

地下鉄5号線の光化門駅を降り、実際に光化門広場を訪ねてみると、地下鉄から光化門広場へのアクセスは2009年に整備された動線がそのまま利用されており、緩やかなスロープによって広場とつながっている。スロープを歩いて行くと左側の階段状の場所には多くの人が座る光景が見られ、右側の壁はスクリーン化されデジタルコンテンツが眺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れとともに、次第に花崗岩の白い岩肌を見せる北岳山の雄大な山容とちょこっと顔を覗かせる北漢山の山塊が目に留まるとともに広場が出現し、象徴的に置かれた世宗大王の銅像や光化門も奥の方に望むことになる。

2009 년 정비된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광화문에 대한 가로의 중심축과 중심성을 강하게 의식한 광장이었으나, 사람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비를 거쳐 2022 년 정비에서는 전체적으로 광화문에 대한 공간적 중심성보다는 사람이 살기 편한 공간을 강하게 사람이 살기 편한 공간을 더 강하게 의식한 개보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복궁의 중심축과 세종로의 중심축은 광화문을 경계로 지도상에서 측정하면 원래 약 4° 정도 어긋나 있는데, 새로운 정비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광화문에 가까운 곳에 조성된 육조정원으로 불리는 잔디밭을 경복궁의 중심축에 호응하도록 배치했다.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실제로 광화문을 방문해보면, 지하철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동선은 2009 년에 정비된 동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 광장과 연결되어 있다. 경사로를 따라 걷다 보면 왼쪽 계단식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고, 오른쪽 벽면은 스크린을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점차 화강암의 하얀 암반을 드러내는 북악산의 웅장한 산세와 살짝 얼굴을 내민 북한산산괴가 눈에 띄면서 광장이 나타나고, 상징적으로 놓인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이 안쪽으로 바라보게 된다.



3. 子どもに人気のあるトンネル噴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터널 분수



4. 水路に足を浸して涼を楽しめる歴史水路 수로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역사 수로

陰にはテーブルや椅子が多く配され、階段状で自由 に座れる木製のデッキなども設えてあり、多くの人 もあり、放物線を描く 77 本の水流がトンネルとなる トンネル噴水と呼ばれる子ども達が喜ぶ場所、その 他さまざまな噴水や歴史水路と呼ばれる深さ 2 cm ほ どの水路など、水辺を楽しむ空間も数多く設置され ている。視察の日は 6 月初旬にもかかわらず気温 30℃を超す暑さだったため、歴史水路に足を浸して 涼しげに憩う人々等、水辺を楽しむ人たちが多いの も印象的であった。観光客ももちろん多く来訪する 場所ではあるが、市民の日常生活に対して憩いの場 を充実させていくというソウル市の姿勢が感じられ る広場である。韓国の方々に光化門広場の改修に対 する意見がどうであるかを聞いたところ、多くの市 やりにくくなったという批判もあるらしい。

広場には、いくつかの樹林帯が設けられており、木 광장에는 여러 개의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고, 나무 그늘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계단식으로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나무 데크 등도 に利用されている。高木による緑陰だけでなく水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고목의 그늘뿐만 아니라 물놀이장도 있는데, 포물선을 그리는 77 개의 물줄기가 터널을 이루는 터널분수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널분수, 그 외 다양한 분수대와 역사수로라고 불리는 2cm 정도 깊이의 수로 등 수변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설치돼 있다. 시찰 당일은 6 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30℃를 웃도는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역사수로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쉬는 사람들 등 수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관광객들도 물론 많이 찾는 곳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휴식처를 제공하려는 서울시의 자세가 느껴지는 광장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광화문 광장 개보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많은 시민들에게 民には好評である一方、デモを行う人からはデモを 호평을 받는 반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위를 하기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5. 光化門広場で行われていたイベントの様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처럼 식초

日常を意識したイベントでの利用も意図された広場と なっている。訪問した際は、本のイベントをやってい 하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책 행사를 하고 있었던 たらしく、広場に設けられた六曹の庭と呼ばれる芝生 んだりできるクッションが置かれ、テントの下で本を 読むなどして過ごす人の姿も多かった。イベントに使 用するテントや本棚などの什器は相当な量であったの で、その制作費や管理費にも相当な予算を掛け、力を 入れていることが伺える。

また、広場に改修された車道部分は、かつての官庁 があった場所だったようなので発掘により遺跡が見つ かり、その遺跡が直接見えるように展示されている場 所もある。光化門前には、月台という施設があったよ うで、こちらも車道部分を減らして復元作業が進めら れ歴史を感じさせる都市整備が行われている。

歴史的にも文化的にも象徴的な空間であるため、非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비일상을 의식한 행사로 활용하기 위한 광장이기도 모양으로, 광장에 마련된 육조의 정원이라는 잔디 있는 쿠션이 놓여져 있었고, 텐트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았다. 행사에 사용되는 텐트, 책장 등 집기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제작비와 관리비에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장으로 개조된 차도 부분은 과거 관청이 있던 곳이라 발굴을 통해 유적이 발견되어 그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곳도 있다. 광화문 앞에는 월대라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 역시 차도 부분을 줄여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6. 世宗路公園に設けられたカフェテラスと視察メンバ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카페테라스와 시찰단

街路上の広場にはカフェ等は見当たらなかったが、連続する世宗路公園にはカフェテラスが設けられ、 光化門広場の視察の最後には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に参加したメンバーととも にソウル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の談話を楽しむこ とができた。また、個人的にはパリ留学時代の韓国 人の友人と卒業以来 18 年ぶりに再会することにな りこのカフェテラスで待ち合わせることになったの だが、光化門広場は私のように韓国訪問が初めてで 韓国語がわからない人にとっても待ち合わせの場所 として分かりやすい空間であった。

光化門広場のある世宗路は、世宗大路としてソウル市庁舎前のソウル広場や崇礼門(南大門)、ソウル駅までつながっている街路であり、近年車道を狭くしてソウル駅と光化門をつなぐ歩行街路を拡充することで、よりウォーカブルな都市整備を行ってきているようだ。ソウル市は、有名な清渓川の整備や高架道路を歩行者空間へ変貌させたソウル路7017、そしてこの光化門広場の整備といった歩く空間としても、憩いの場としても魅力ある公共空間を車道を大きく減少させることによって大胆に整備しており、このような都市空間の改善はなかなか日本では見られないことであり大きく刺激を受ける視察となったとともに、日本の都市ももっと頑張らねばならないと実感されられる貴重な機会となった。

거리의 광장에는 카페 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속된 세종로 공원에는 카페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 광화문 광장 시찰의 마지막에는 커피를 마시며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참가 회원들과 함께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담화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파리 유학 시절 한국인 친구와 졸업 후 18 년 만에 재회하게 되어 이 카페테라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광화문광장은 나처럼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광화문광장이라는 공간이었다. 광화문광장이 있는 세종로는 세종대로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숭례문(남대문),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거리로, 최근 차도를 좁히고 서울역과 광화문을 잇는 보행로를 확충하는 등 보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는 유명한 청계천 정비와 고가도로를 보행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서울로 7017, 그리고 이번 광화문 광장 정비 등 걷고 싶은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매력적인 공공공간을 차도를 대폭 줄여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의 개선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으로 큰 자극을 받는 시찰이 되었으며, 일본의 도시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7. 夜間も賑わう光化門広場 야간에도 붐비는 광화문광장

3. 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を通して都市デザインの現在を想う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통해 도시 디자인의 현재를 생각하다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 2023」で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 (DDP) を見学しました。DDP はデザインやアートをテーマにした、床面積が 8 万㎡を超える巨大建築です。地下鉄駅、史跡、広場、歩道、歴史公園など多くの機能を複合した都市空間でもあります。ここでは DDP を一つの都市デザインという視点でとらえ、私の感じたことを述べます。

◆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から神宮外苑へ

敷地は、ソウル市の歴史的地区である東大門地区です。かつては東大門運動場という運動公園でした。野球場、サッカースタジアムがあり、多くの人に親しまれる都心の貴重なオープンスペースです。東京でいえば神宮外苑です。そこにザハ・ハディッドが巨大施設を設計した・・・となると、私の話はどうしても東京オリンピック 2020 前夜の東京、神宮外苑のことから始まります。

神宮外苑は東大門運動場と同様に野球場やラグビー場からなる、都民に親しまれる公園です。その地に 2012 年、国際コンペ (設計競技) によりザハ・ハディッドの設計でオリンピックのメイン会場である国立競技場が、建て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한일도시디자인교류 2023' 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견학했는데, DDP 는 디자인과 예술을 테마로 한 8 만㎡가 넘는 거대한 건축물로 지하철 역, 역사, 광장, 산책로, 역사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공간이다. 지하철역, 사적지, 광장, 보도, 역사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DDP 를 하나의 도시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구 외원까지

부지는 서울시의 역사지구인 동대문 지역이다. 예전에는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운동공원이었다. 야구장, 축구 경기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귀중한 열린 공간이다. 도쿄로 치면 신궁외원이라고 할수 있다. 거기에 자하 하디드가 거대한 시설을설계했다... 라고 하면, 필자의 이야기는 2020 도쿄올림픽 전야의 도쿄, 신궁외원 이야기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신궁외원은 동대문 운동장과 마찬가지로 야구장, 럭비장 등으로 구성된 도쿄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입니다. 그 자리에 2012 년 국제공모(설계공모)를통해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올림픽의 메인 경기장인국립경기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建築家 Architect

その結果に公然と反対意見を述べたのが建築家植文彦氏です(私は、修業時代13年間を槇事務所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槇氏はザハの案そのものではなく、コンペのプログラム(設計条件)が、既存の風致地区としての都市計画規制を一気に緩和していることを主要な問題としました。多くの日本人建築家から賛同が示されましたが、結果的には別要因(建築工事費の問題)でザハの案は白紙となりました。

コンペに勝ったにも関わらず、幻の設計者となったザハは日本人建築家に対する感情的で辛辣な批判をした後、急逝しました。後味の悪さとともに 2 つの残念な思いがあります。

一つ目は亡きザハの誤解です。槇氏は開発志向のプログラムを前提とすることに異議を唱えましたがザハが言うように外国人を排除しようと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新しいプログラムのもとでザハ・ハディドを設計者にするのが良い」と提案しているのです(槇文彦 2020、『ア-バニズムのいま』鹿島出版会 p171)。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건축가 마키 문히코(槇文彦)씨다(필자는 수련시절 13 년간 마키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마키 씨는 자하의 안 자체가 아니라 공모 프로그램(설계 조건)이 기존 풍치지구로서의 도시계획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고 있는 것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많은 일본 건축가들이 동의를 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요인(건축 공사비문제)으로 인해 자하의 안은 백지화되었다. 공모전에서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설계자가 된 자하는 일본인 건축가에 대한 감정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한 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뒷맛이 씁쓸함과 함께 두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 번째는 고인이 된 자하의 오해입니다. 마키 씨는 개발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하가 말한 것처럼 외국인을 배제하려고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하에서 자하하다"를 설계자로 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것이다(마키 후미히코 2020, 『어바니즘의 지금』카시마출판사 p171).

もう一つ残念なことは、プログラムを修正したう えでのザハの案を見た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周辺 環境への配慮が埋め込まれたプログラムを前提にし た場合、ザハはどのような案を提示したでしょうか。 知りたいものです。

◆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の都市デザイン

前置きが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を見ていきます。

まず DDP の外観のユニークな形状に圧倒されます。全体がアルミパネルに覆われ、あえて例えれば少し扁平の飛行船(ちょっと比喩が古臭いでしょうか)のような曲面体が、くびれと折れ曲がりにより非定型の3つのゾーンに分かれているのです。それぞれがデザインラボ、ミュージアムとアートホールになっています。この曲面体の三分の一程度が歩道レベルより下にあり上部の三分の二程度が地上に顔を出しています(写真-1)。

曲面体がくびれ、折れ曲がった部分に、地下 2 階から地上部分に抜ける階段などの移動空間が仕込まれています。実にダイナミックです。ザハデザインの特徴である曲面はこういう三次元の人の動きを伴う場所で一番生きるように思います(写真-2)。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자하가 내놓은 안을 보고 싶었다는 점이다.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전제로 했을 때, 자하는 어떤 안을 제시했을까? 궁금하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도시 디자인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DP
 외관의
 독특한
 형태에

 압도당합니다.
 전체가 알루미늄
 패널로
 덮여
 있고, 굳이

 비유하자면
 약간
 납작한
 비행선(비유가
 좀
 초스럽지만)

 같은 곡면체가 굴곡과 굴곡에
 따라 비정형적인
 3
 개의

 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은
 디자인
 랩

 박물관, 아트홀로
 구정되어
 있습니다.
 이 곡면체의

 정도가
 보고
 수준보다
 낮고 상부의
 3
 분의
 2

 정도가
 보고
 수준보다
 낮고
 상부의
 3
 분의
 2

 정도가
 보고
 수준보다
 낮고
 상부의
 3
 분의
 2

 전域
 1
 정도가
 보고
 수준보다
 보고
 2

곡면체의 굴곡진 부분에는 지하 2 층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등 이동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정말역동적입니다. 자하 디자인의 특징인 곡면은 이런입체적인 사람의 움직임이 수반되는 곳에서 가장 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사진-2).



写真-1 北側からの外観 사진-1 북쪽에서 본 모습



写真-2 地下から地上への階段 사진-2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アルミパネルのつくる大きな面に沿って上方に移動し、地上部に出ると、建物の東側の歴史文化公園を望みます。歴史施設との対比も面白く目に映ります(写真-3)。

また曲面体は地下空間を覆うように張り出しています。スペースフレームで片持ち構造をつくっているとの説明でした。さぞかし迫力のある現場の情景が想像されます。私は以前工事中に訪れましたが、遠くから眺め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写真-4)。

アルミの巨大なボリュームに覆われた地下 2 階の 広場には建設中に発掘された遺跡が残され、未来的 なザハの造形と面白い対比をなしています。印象に 残る場面演出です(写真-5)。



写真-3 隣の歴史文化公園

알루미늄 패널이 만들어내는 큰 면을 따라 위쪽으로 이동해 지상으로 나오면 건물 동쪽의 역사문화공원을 바라볼 수 있다. 역사시설과의 대비도 흥미롭게 눈에 띈다(사진-3).

또한 곡면체는 지하공간을 덮도록 돌출되어 있다.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캔틸레버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었다. 꽤나 박력 있는 현장의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사 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사진-4).

알루미늄의 거대한 볼륨으로 덮인 지하 2층 광장에는 공사 중 발굴된 유적이 남아 있어 미래지향적인 자하 조형물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상적인 장면 연출입니다(사진-5).



写真-4 工事中の DDP



写真-5 史跡と DDP

建物の中に入ると、ここにもザハワールドです。デザインラボから案内してもらいましたが、階段という移動動線が、うねる曲面により巧みにデザインされています(写真-6)。最上部は屋上庭園(写真-7)です。この庭園も地上までつながった移動スペースです。

ミュージアムゾーンの上下移動は経験したことのない長いランプ。自然にみんな導かれていきます。 不思議な体験です(写真-8)。

DDP の全体はデザイナーの恣意的で自由な造形に見えますが、史跡のある地下広場と周辺街区や歴史公園に連続する地上部のダイナミックに結びつけ、また地下鉄駅と周辺東大門市場などとをうまくつなぐ役割も果たしています。地上部に広がるグローバルシティとしてのソウルと、地下にある李氏朝鮮時代の歴史をつないでいる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現在にも過去にもない未来的な造形で、現在と過去をつないでい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でしょう。地上部でその曲面に沿って、ユニークなパブリックアートに出会いながら歩くという体験も新鮮です。まさに巧みな都市デザインだと思います。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자하월드다. 디자인 연구소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계단이라는 이동 동선이 굴곡진 곡면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사진-6). 최상부는 옥상 정원(사진-7)이다. 이 정원도 지상까지 연결된 이동 공간이다. 뮤지엄 존의 위아래 이동은 경험해보지 못한 긴 경사로. 자연에 이끌려서 이동하게 된다. 신기한 체험입니다(Fig-8).

DDP 의 전체는 디자이너의 자의적이고 자유로운 조형물로 보이지만, 사적지가 있는 지하광장과 주변 상가 및 역사공원으로 이어지는 지상부의 역동성을 연결하고, 지하철역과 주변 동대문시장 등을 잘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상에 펼쳐진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과 지하에 있는 이씨조선시대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에도 과거에도 없는 미래지향적인 조형물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상에서 그 곡면을 따라 독특한 공공미술을 만나며 걷는 경험도 신선하다. 그야말로 영리한 도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写真-6 ユニークな階段



写真-7 屋上庭園



写真-8長いランプ

時に、ファッション関係の企業や店が集中するファ 관련 기업과 매장이 밀집한 패션타운이다(사진-9). ッションタウンです(写真-9)。

う全体の姿や、流れるようなダイナミックな感覚を体 験させる内部空間は、東大門地区をデザインの力でさ らに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いう地区の持つ意志や持つ べきイメージを強力に発信し続けています。

グローバルな都市間競争の時代にあって、デザイ ンでソウル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するというの は、歴代市長の都市戦略です。その戦略に沿って、 DDP は十分すぎるくらいの役割を果たしでいるのは 間違いないと感じました。ザハは、自分のデザイン を思う存分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期待された役割 を果たしたと言えます。都市デザインの力を感じさ せる成功例です。

◆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でもう一つ感じたこと

都市デザイン的な成功例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と感じたのですが、私個人レベルでは、少しだけし っくりこない感じを持ったことも正直に報告します。 それは先ほどのランプの印象に象徴されます。ザハ の空間は、ダイナミックで動きがあり楽しく刺激的

東大門地区は、城門の置かれた歴史地区であると同 동대문 지구는 성문이 자리한 역사지구인 동시에 패션

DDP 의 알루미늄 패널로 덮인 비정형의 곡면체라는 DDP のアルミパネルで覆われた不定形の曲面体とい 전체적인 모습과 흐르는 듯한 역동적인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은 동대문 지구를 디자인 디자인의 힘으로 동대문 지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구의 의지와 이미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시대에 디자인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역대 서울시장의 도시 전략이다. 그 전략에 따라 DDP 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하는 자신의 디자인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느낀 또 다른 느낌

도시 디자인적인 성공 사례임에는 틀림없다고 느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색한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램프의 인상이 상징적이다. 자하의 공간은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어 즐겁고 자극적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계산된



写真-9 ファッション店

ですが、私が気になるのは、移動させられていると いう感覚が生まれてしまうことです。計算されてい 유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은 이동하는 도중에도 るがゆえに、私個人の行動が、ザハによってうまく 誘導されているという印象です。人間は移動の途中 にも立ち止まったり、しゃがんだり、場合によって は逆方向に歩き始めたりと、ある意味では勝手な動 きをするものです。もちろんこの空間でも可能です が、ちょっと勝手にはしづらい設定された「流れ」の ようなものを感じてしまいます (写真-10)。

違う見方をすると、この経路で建築家のデザイン を体験してほしいという意図があまりにも直接的に 感じられ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人間が「流れ」の 空間にあっても勝手に自分中心の場をつくったり、 よどみをつくってしまうものだとすれば、そういう よどみのきっかけとなるような質感の違い、素材感、 小さな場所の感覚・・・そういう自由度、ある意味で はゆるさ、があっ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その方が、 人の安心できる環境ができるような気がします。あ えて言えば、人間スケールの建築空間には、建築家の 多少の迷いや逡巡が表れ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 つも思うのです。

공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행동이 자하에 의해 잘 멈춰서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등 어찌 보면 제멋대로 움직인다. 물론 이 공간에서도 가능하지만, 조금은 제멋대로 하기 어렵게 설정된 '흐름' 같은 것이 느껴진다(사진-10).

다르게 보면, 이 경로를 통해 건축가의 디자인을 경험해달라는 의도가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일까요? 인간이 '흐름'의 공간에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그런 정체되는 계기가 되는 질감의 차이, 소재감, 작은 공간의 감각... 그런 자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느슨함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휴먼 스케일의 건축 공간에는 건축가의 약간의 망설임과 망설임이 드러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写真-10 演出された階段

もう一つ別の視点からの印象を述べます。 ザハの示した都市デザインは、ソウルの歴史やまち の構造にもしっかり対応しています。しかし、造形 自体はソウルでなくても成立するものです。この地 자체로 개성이 넘치고, 그 개성 때문에 전 세계를 の風土的、歴史的なものとのつながりがあればさら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기 넘치는 자하만의 공간이 に良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です。

以上私個人の 2 つの印象と思いを付記しました。 しかし、私の希望にこたえるようなデザインは、ザ ハのめざす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ザハのデザイン は、それ自体で個性にあふれるもので、その個性ゆ えに世界中をくまなく席巻したのだと思います。才 생각입니다. 気あふれるザハならではの空間が隅々にまで徹底さ れているのです。その土地固有の事情に拘泥すれば ザハらしさを失うことでしょう。以前ローマの 21 世 紀美術館を見ましたが、あのローマの歴史的市街地 にあってもザハはザハでした(写真-11)。

だからザハに私が考える都市デザインを期待して 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では私の考え る都市デザインとは何か、少しだけ述べてみようと 思います。

이상 제 개인적인 두 가지 인상과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을 충족시키는 디자인은 자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하의 디자인은 그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인상을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 자하가 보여준 도시 디자인은 서울의 역사와 도시 구조에 잘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조형 자체는 서울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토적, 역사적 요소와의 연결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지역 고유의 사정에 얽매이면 자하다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의 21 세기 미술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로마의 역사적인 시가지에 있어도 자하는 자하였습니다(사진-11).

그래서 자하에게 제가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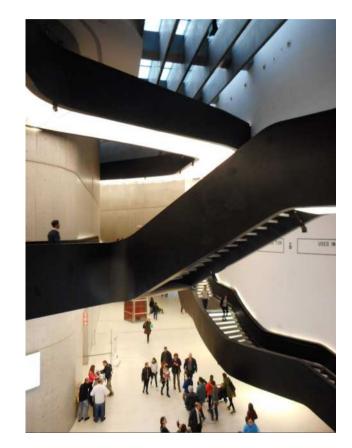


写真-11 21 世紀美術館

◆私の考える都市デザイン

私たちを取り囲む都市空間は、建築、道路、橋、公園、 川など様々な構築物や自然的要素から成り立っていま す。都市空間という言葉はフィジカルな実態を指すと 考えていいでしょう。そこに私たちが暮らしています。 ひとのいとなみや暮らしの場だと考えると、都市「空 間」というよりは都市「環境」という言葉が似合いま す。人間にとっての環境という意味では、気候や自 然、風土なども都市環境の一部と考えたほうが良い でしょう。

私たちの都市環境は自然や風土のもとで人々の物的あるいは精神的ないとなみが長い時間をかけて作り上げたものです。そういった都市環境のなかで私たちは育ち、くらし、様々な経験をします。時間とともに、都市環境は、様々な意味や物語に満ち、複雑な文脈をもつ世界となります。その環境とのかかわりの中で、私たちは自分が誰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確かめます。「ここはどこ?」という問いは「私は誰?」という問いにほぼ等しいと思います。私たちは、歴史的、文化的、また風土的存在である都市環境との関係の中で生きているのです。

◆내가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공간은 건축, 도로, 교량, 공원, 강 등 다양한 건축물과 자연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공간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실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촌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도시공간보다는 도시환경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우리의 도시 환경은 자연과 풍토 속에서 사람들의 물질적 혹은 정신적 토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여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생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시 환경은 다양한 의미와 이야기로 가득 찬 복잡한맥락의 세계가 된다. 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야?"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거의 같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풍토적존재인 도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19 世紀半ばに生まれた近代都市計画や 20 世紀初 頭から並走するモダニズム建築や都市思想は、都市 環境が歴史的、文化的また風土的存在であるという ことをひとまず棚上げして、インターナショナルで 국제적이고 기능 우선의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機能優先の都市空間づくりに励んできました。その 結果が均質で味わい深さに欠けるまちを生みました。 도시가 만들어졌다.

その反省のもとに、都市空間に再び人間を置き、 歴史的文化的また風土的存在としての都市環境を個 性的魅力のあるもの、誇りをもって生きるためのよ りどころにする活動が 20 世紀後半からの都市デザ インだったというのが私の理解です。

都市デザインが扱うべき課題や目標、手法は地域、 時代によって様々です。しかし、人間を中心に据え るということと、歴史、文化、風土的存在として都市 環境をとらえるという態度は根底にあり、変わらな いものだと思います。

19 세기 중반에 탄생한 근대 도시계획과 20 세기 초부터 병행된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사상은 도시환경이 역사적, 문화적, 풍토적 존재라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힘써왔다. 그 결과, 균질하고 맛의 깊이가 부족한

그 반성 아래 도시공간에 다시 인간을 배치하고, 역사적, 문화적, 풍토적 존재로서의 도시환경을 개성적 매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드는 활동이 20세기 후반부터의 도시 디자인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 다루어야 할 과제와 목표, 방법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과 도시 환경을 역사, 문화, 풍토적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자칫 기능적 정합성을 우선시하여 만들어지는 건축과 도시 공간을 다시 한 번 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도시 스케일에서 방의 스케일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こで DDP に戻ります。一例ですがミュージ 다시 DDP 로 돌아옵니다. 일례로 뮤지엄 존의 긴 アムゾーンの長いランプは人を移動させるという 機能にザハらしい流動的で未来的なデザインを与 유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えたものです。一方、都市空間に常に人を想定し、 その人にとっての環境として捉えるのが都市デザ 환경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시 디자인입니다. 자하의 インです。ザハの「美しいランプ」には建築家の 思いがみちているものの、「自分の居場所」にでき るような手がかりがない、つかもうとしても手か ら滑り落ちてしまうというのが、私の印象です。

また、都市デザインは、その場所における時間 の流れや、文化の繋がり、そして風土が積み重ね てきている文脈を注意深く読み取るところから出 発します。そのうえでそっと丁寧に新しいものを つけ加えていくという態度です。もちろん既存の 文脈にばかりに目を捕らわれると単なる保守主義 になってしまいますが、といって何も知らないか のように振る舞うことは、私の考える都市デザイ 개성을 창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ンとは異なるものになります。

램프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기능에 자하 특유의 도시 공간에 항상 사람을 상정하고, 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램프'에는 건축가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고, 잡으려 해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또한, 역사, 문화, 풍토적 존재로서의 도시 환경을 존중하는 자세로 마주한다면, 예를 들어 건축을 만들 때에도 그 장소의 시간의 흐름과 문화의 연결, 그리고 풍토가 쌓여온 맥락을 주의 깊게 읽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조심스럽게 덧붙여 나가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맥에만 눈을 빼앗기면 단순한 보수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역성이나 마을의

ザハの都市デザインは、きわめて個性的な造形力で解決すべき課題を都市空間の中で見事に解決しているという賛辞が送られるべきものです。同時に、ほんの少しですが、置き去りにしたもの-それは私の考える都市デザインには不可欠な「一人ひとりの人間の存在への思いやりと地域らしさへのこだわり」-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個人的な感想となります。

◆ソウルの都市デザイン、東京の都市デザイン

DDP の感想にとどめるつもりでしたが、少しばかり話が拡大してしまいました。もう一つだけ私の印象を述べます。

DDPのデザインラボを案内してもらったときに ヘザウィックというイギリス人建築家の面白い椅子 と出会いました。最近までヘザウィックという建築 家のことはよく知りませんでしたが、たまたま DDP を訪れる1週間ほど前に、東京の森美術館でヘザウ ィックの展覧会を見て関心を持ち始めていたので気 になりました。ソウルでも展覧会があるらしく、ま たネットで検索すると新しい開発計画にソウル市か らへザウィックが招待されているとの情報が出てい ました。そのことに興味が引かれました。 자하의 도시 디자인은 지극히 개성적인 조형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시 공간 안에서 훌륭하게 해결했다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조금이지만 남겨둔 것, 즉 제가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에 필수적인 '개개인의 인간 존재에 대한 배려와 지역성에 대한 고집'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의 도시 디자인, 도쿄의 도시 디자인

DDP 에 대한 감상으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다. 한 가지 더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P 의 디자인 랩을 안내받을 때 헤더윅이라는 영국인 건축가의 재미있는 의자를 만났습니다. 최근까지 헤더윅이라는 건축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우연히 DDP 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쯤 도쿄의 숲미술관에서 헤더윅의 전시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서울에서도 전시회가 있는 것 같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새로운 개발 계획에 서울시에서 헤더윅을 초청했다는 정보가 나왔다. 그점이 흥미로웠습니다.

森ビルでは最新作の麻布台ヒルズに彼を起用してい ます (写真-12)。

あくまで私の印象ですが、森ビルはこれまで KPF 事 務所など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タイルのデザインを 求めることが多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ヘザウィッ クもグローバルに活躍していますが、その場所や敷 地の条件に合わせて固有の解を見つけだしたり、特 有の質感や素材感にこだわったりする人のようです。 것 같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스타일을 고집하는 世界中どこでも同じスタイルを主張する(ザハのよ うに)のも一つの個性ですが、場所に合わせて毎回 변신을 시도하는 건축가도 매력적이다. 変身してみせる建築家にも惹きつけられます。

戦略でしょうが、同じ現象がソウルにも起こって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るとしたら、面白い符合だと思いました。

当たってい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グロー バル戦略に沿った都市デザイン(それも都市デザイ ンの在り方の一つです)の世界においても、場所固 축감을 살려서 발상하는 건축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有の条件や人間の持つ手触り感覚を生かして発想し ていくような建築家への期待が大きくなっているの ではないでしょうか。

東京でグローバルな都市デザイン戦略を展開する 도쿄에서 글로벌 도시 디자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모리빌딩은 최신작인 아자부다이 힐즈에 그를 기용했습니다(사진-12).

>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지만, 지금까지 KPF 사무실 등 국제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헤더윅 역시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장소와 대지의 조건에 따라 고유한 해답을 찾아내거나 특유의 질감이나 소재감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도(자하처럼) 하나의 개성이지만, 장소에 따라 매번

헤더윅의 기용은 시대적 분위기를 읽은 모리빌딩의 ヘザウィックの起用は時代の空気を読む森ビルの - 전략이겠지만, 같은 현상이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 맞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전략에 따른 도시 디자인(그것이 도시 디자인의 존재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의 세계에서도 장소 고유의 조건과 인간이 가진 있는 것이 아닐까요.



写真-12 麻布台ヒルズ

◆再び神宮外苑へ

冒頭に続き、神宮外苑に再び触れてこの小文を終わります。

神宮外苑は今も高度利用再開発案により、既存環境の激変が懸念されています。都市デザインのアウトプットは誰の声に重きを置くかにより、大きく異なってきます。神宮外苑の再開発案では、関係するグロ-バル企業の声が優先されています。一方、永遠の森をつくるために全国から浄財を寄せた、名もない多くの人たちの願いが形になったのが神宮外苑です。もう一度原点に戻り、歴史文化的存在としての神宮外苑に向き合い、絡まった糸を丁寧にほぐし、つむぎなおすことが、都市デザインに求められています。

神宮外苑の都市デザインを、東大門デザインプラ ザのような成功例として、韓国の皆さんに紹介でき る日が来ることを願うばかりです。

◆다시 신궁 외원으로

서두에 이어 다시 한 번 신궁외원을 언급하며 이글을 마무리한다. 신궁외원은 지금도 고도이용재개발안으로 인해 기존 환경의 격변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디자인의 결과물은 누구의 목소리에 무게를 두느냐에따라 크게 달라진다. 신궁외원 재개발안에서는 관련글로벌 기업의 목소리가 우선시되고 있다. 반면, 영원한숲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정성을 모은 이름 모를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신궁외원이다.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역사문화적존재로서의 신궁외원을 마주하고, 얽힌 실타래를조심스럽게 풀고 다시 엮어내는 것이 도시디자인에요구되고 있다.

하루빨리 신궁외원의 도시디자인을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성공사례로 대한민국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4. 道路景観の可能性 도로 경관의 가능성

Yoii Inoue 井上 洋司





初めて、韓国に行った。さまざまな驚き,発見があ 처음으로 한국에 갔다. 다양한 놀라움과 발견이 った。同時に国が違うと当たり前かもしれないが、 都市の景観に対する"あり方"の様々な違いを感じた。 도시 경관에 대한 '방식'의 다양한 차이를 느꼈다. 그 その一部を振り返って見たい。

◆道路景観の可能性

写真はソウルで滞在した宿の窓からの写真である。 (写真1) 特に、これといった特徴のある風景を撮 ったつもりはないのだが。都心の中に存在させるべ き「緑」のあり方に、日本の都市では見かけない姿を 見た。

仕事で、道路そのものの設計をすることは、まれ であるし、日本では、道路構造令という、いわゆる紋 切り型の道路設計指針が出来上がっていて、ほとん ど自由に設計ができないからだ。この縛りの利点も 十分理解してるつもりではあるが、以下の所感をえ た一枚の写真だ。

もう10年以上前、準幹線道路の設計をする機会を 海外で得た。中国には、日本の道路構造令のような 縛りがないと聞いた。そこでそこの地の地形を極力 そのままに、現況の地形を生かした道路設計を行っ た。(写真 2)

있었다. 동시에 나라가 다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를 되돌아보고 싶다.

◆도로 경관의 가능성

사진은 서울에서 머물렀던 숙소의 창가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 1) 특별히 이런 특징적인 풍경을 찍은 것은 아니다. 도심 속에 존재해야 할 '녹색'의 모습에 일본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업무상 도로 자체의 설계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본에서는 도로구조령이라는 이른바 문장형 도로 설계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 거의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규제의 장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느낌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이다. 10 여 년 전, 해외에서 준간선도로 설계를 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에는 일본의 도로구조령과 같은 규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곳의 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현 상황의 지형을 살린 도로 설계를 했다. (사진 2)



写直1 ソウル永登浦地区キョンインロ 2023 사진 1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2023



写真 2 青山地域住宅街区 中国四川省成都郊外 2011 사진 2 중국 쓰촨성 청두 외곽 청산 지역 주거 지역

その時以来、道路空間のもつ景観的な魅力は、単に 街路樹だけ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

また TDA の機関紙「景観文化」で、その街路樹でさえも、単純に景観的美しさだけではなく、"車を運転するものにとって、余計な視覚的混乱を避ける"という指摘を、街路樹研究の第一人者・藤井英一郎氏(千葉大学名誉教授)が語っている。(景観文化 61 号-景観古記-)高架道路のジャックションの大きなサイン的な役割も果たしそうなこの風景は都市の道路空間が、都市景観形成に大きく役立つ空間であることを改めて示唆してくれる。

最近日本でもウォーカブル (walkable) といった言葉で、歩いていて居心地の良い楽しい空間にしようという活動が行われているけれど、道路とかのインフラ整備の時に、余裕を持った事業用地計画は進んでいないように思う。(写真3)

それどころか実情と合わない都市計画道路が未だに進行中だ。しかも半世紀以上前に決まって、現場の実態と合わない亡霊のような都市計画道路があったりする。

고때부터 도로 공간의 경관적 매력은 단순히 가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TDA 의기관지 「경관문화」에서 가로수조차도 단순히 경관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시각적 혼란을 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가로수 연구의 권위자 후지이 에이치로 씨(치바대학 명예교수)가 말하고 있다. (경관문화 61 호-경관고기-)고가도로의 잭션의 큰 사인적 역할도 할 것 같은 이 풍경은 도시의 도로공간이 도시경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시사해준다.

최근 일본에서도 워커블(walkable)이라는 단어로 걷고 싶고, 걷기 편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로 등 인프라를 정비할 때 여유를 가진 사업용지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진 3)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게다가 반세기 이상 전에 결정되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유령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도 하다.



写真 3: 筆者近所の立体交差景観 (都道 59 号線、中神立体交差付近 2024年) 사진 3: 필자 동네의 입체교차로 풍경 (도도 59 호선 2024년)

その点、韓国では大胆でかつ、余裕のある大模範な インフラ整備が次々に行われていると感じた。その 모범적인 인프라 구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実行力、スピードはこの写真のところばかりでなく 느꼈다. 그 실행력, 속도는 이 사진에서 뿐만 아니라 インチョンの NT でも見られた。同行した方々の 10 年前との比較の話でもそのことがよく理解できた。 とりあえず作ってみる、やってみる、時には予算が オーバーしてしまうこともあるらしいが。(DDP 東 大門デザインプラザはその典型かもしれないが、間 違いなくソウルの名所になっている。) ただこの勢 いと様々な柔軟な決断力は都市デザインにとって極 めて重要だと感じた。そして、この一枚に写された ソウルの道路がいかにして生まれたのかも、大いに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気になっている。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는 대담하면서도 여유 있는 인천의 NT 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함께 동행한 분들의 10 년 전과 비교하는 이야기에서도 그 점을 잘 알 수 있었다. 일단 만들어보고, 해보고, 때로는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그 전형일 수도 있지만, 서울의 명소가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추진력과 다양한 유연한 결단력은 도시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서울의 도로가

Yoji Inoue 井上 洋司

ランドスケープアーキテクト Landscape Architect

5. 伝統的建造物群と街のあり方を考える 전통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다

◆伝統的建造物群と街のあり方を考える

北村韓屋村は朝鮮時代に両班といわれた貴族たちが住んでいた地域で、日本的に言えば伝統的建物群としての保全地域であるが、そのあり方がかなり違う。日本と同じように、定められた地区の建造物を利用した観光客相手の店がおおいのだが、そこまでに至る地区の建築物や色彩の質がかなり高いと感じた。伝統的な建物をコンバージョンして化粧品のショールームがあったが、これが、保全すべき地域のなかであったか外であったかわからないけれど、実に巧みに街並みに貢献していた。(写真 4)

後にわかったことだが、この地域に至る地域周辺は、建築意匠に関する法的整備指導が厳しく、質の高さを維持していると言われて、その詳細をしりたいとおもった。そう感じさせるぐらい、建築デザインの質や建築の素材、配色など周辺環境に配慮した整備がされていた。(写真 5/写真を改めてみると、道路面の規制のための配色など、もう少しどうにかしたいけれど) 伝建地区だけがポツンと取り残されているようなことの多い日本でみる風景とは違う試みがなされていると感じた。2点をみて、よい都市環境創造には所轄の壁を設けないことが重要なのだと感じさせる旅でもあった。

◆전통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다

북촌한옥마을은 조선시대 양반이라 불리는 귀족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일본식으로 말하면 전통건물군으로서 보존지역이지만 그 형태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구역의 건축물을 이용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점이 대부분이지만, 그 정도까지 이르는 구역의 건축물과 색채의 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전통 건물을 개조한 화장품 쇼룸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존해야 할 지역 안인지 밖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능숙하게 거리 풍경에 기여하고 있었다.(사진 4)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지역에 이르는 지역 주변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법적 정비 지도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건축 디자인의 질과 건축 재료, 색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진 5/사진을 다시보니 도로면 규제를 위한 배색 등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도 있지만) 전건지구만 덩그러니 남겨진 경우가 많은 일본과는 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행이었다.



写真 4:ソウル北村韓屋村地区の新たにできたコスメのショウルーム (2023 年)

사진 4: 서울 북촌한옥마을지구에 새로 생긴 화장품 쇼룸(2023 년)



写真 5:周辺の建築の質に配慮した新しい建築物たち(北村韓屋村地区周辺・2023年)

사진 5: 주변 건축의 품격을 고려한 새로운 건축물들 (북촌한옥마을지구 주변, 2023 년)

6. 都市のサイン、色彩と公共空間

도시의 간판, 색채와 공공 공간

Aya YODA 依田 彩





◆仁川 ART PLATFORM

-シンプルなデザインと色彩のサイン

古い建物をリノベーションして作られた仁川 ART PLATFORM は、1つの通りの両側の建物に文 化芸術関連施設を集積した地区です。計画敷地の規模はさほど大きくないものの、統一されたサインが展開されており、地区全体の一体感が形成されています。リノベーションされた建築物は煉瓦を基調としたものが多く、暖色系の温かみを感じさせる中明度の煉瓦色で、そこに高明度の真っ白なサインが映えています。建物には1つずつアルファベットが建物の入り当てられており、そのアルファベットが建物の入り口周りに表示されているため、外国人にもわかりやすい表記となっています。建物の規模や意匠が異なるものの、サインが統一されていることで全体のまとまりが創出されています。

古い建物をリノベーションして文化芸術関連施設として再生している同様の事例として、北京 798 を思い出したので、参考に写真を列挙します。北京 798 は仁川 ART PLATFORM と同じく煉瓦の建物が多く、敷地面積はより大規模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2012 年に訪れた当時は統一されたサインがなく、やや道に迷うことがあったのを思い出しました。誰にでもわかりやすいサインの重要性を仁川 ART PLATFORM では、再認識しました。

◆인천 ART PLATFORM

- 심플한 디자인과 색채가 돋보이는 간판

낡은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만든 인천 ART PLATFORM 은 하나의 거리 양쪽에 위치한 건물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구다. 계획 부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통일된 사인이 전개되어 지구 전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리노베이션된 건축물은 벽돌을 기본으로 한 건물이 많은데, 따뜻한 느낌의 중후한 벽돌색에 고광택의 새하얀 사인이 잘 어울린다. 건물에는 알파벳이 하나씩 할당되어 있고, 그 알파벳이 건물 입구 주변에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와 디자인은 각기 다르지만, 간판이 통일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문화예술 관련 시설로 재생한 비슷한 사례로 북경 798 이 생각나서 참고삼아사진을 열거해본다. 인천 ART PLATFORM과 마찬가지로 벽돌 건물이 많고 부지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2012 년 방문 당시에는 통일된 사인이 없어 다소헤맸던 기억이 난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의 중요성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다시 한 번 깨달았다.







Inchon Art Platform











参考:ART PLATFORM 同様に古い建物をリノベーションして再整備された北京 798 참고: ART PLATFORM 과 마찬가지로 낡은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새롭게 단장한 베이징 798

◆仁川セントラルパ-ク

-切り文字主体のサインで構成された都市空間

以前に訪れた際は、ガラスや金属の高層ビルで構 成された現代都市の光景にただ圧倒されたてしまい 빌딩으로 이루어진 현대 도시의 풍경에 압도당했다면 ましたが、今回は建築物に掲げられている施設名称 サインに注目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仁川セントラルパーク周辺の建築物には、高層部 の高い位置を基本として、施設名称サインが入って いるものが多くありました。いずれも板状のサイン を設置するのではなく、箱文字(切り文字)型がほと んどでした。サインの背景となる外壁とサイン自体 の色の対比も抑えられており、「見ようとすれば認識 できる」程度の視認性で十分であると感じました。 建物の頂部に設置するサインは、周辺景観に悪影響 を及ぼすと考えていましたが、大きさや配色を調整 することで景観への影響を抑えられると実感しまし た。同じ場所であっても、訪れる時に関心を持って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을 いることが少しずつ異なるため、何度視察しても発 방문해도 새로운 발견이 있는 법이다. 見はあるものです。

◆인천 센트럴파크

- 절취문자 위주의 사인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유리와 금속으로 된 고층 이번에는 건축물에 세워진 시설물 명칭 표지판에 주목해 볼 수 있었다.

인천 센트럴파크 주변 건축물은 고층부의 높은 위치를 기본으로 시설명 표지판이 들어간 건물이 많았다. 모두 판형 사인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자문자(절취문자)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인의 배경이 되는 외벽과 사인 자체의 색상 대비도 절제되어 있어 '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시인성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건물 꼭대기에 설치되는 사인은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크기와 배색을 조절하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같은 장소라도 방문할 때마다



高層ビルが多く建ち並ぶ仁川セントラルパーク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인천 센트럴파크



小さく切り文字で掲示されている施設名称 작은 글씨로 게시된 시설명

◆議政府(ウィジョンブ)の屋外広告物とサイン

-日本と同じ問題を抱える都市景観

議政府市の行政の方々と訪れた駅前や商業街の街 には、韓国語の文字が日本語に変われば日本のまち の駅前と何ら変わらない景色が広がっており、屋外 広告物に関して、日本と同じ問題を抱えていると実 感しました。駅前ビルのガラス面に展開された屋外 広告物や屋上看板は決して美しいとは言えませんが、 どことなく懐かしさを感じ、議政府市に親近感を覚 えました。建築物の壁面だけではなく、駅の階段の 蹴上部分にも広告を展開する様子まで似ています。 日本でも新しい商業施設が完成すると、そこだけ洗 練された雰囲気になり、その奥には煩雑な屋外広告 物が拡がる光景は珍しくありません。そして議政府 では、新しい商業施設のみならず、新たに整備され た公園や道路空間に設置されているサインも色彩や 形態に配慮され、より良好な都市景観が創出されて いました。サインでは、ピクトグラムの展開もあり、 外国人にもわかりやすいものになっています。

世界的に公共サインの質は徐々に向上し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しかし屋外広告物は、まだまだ道半ばです。建築物のみならず公共交通にも屋外広告物が展開される機会が増え、都市は広告だらけです。都市景観においては、引き算の要素を多く取り入れて、良好なまちなみを増やしていきたいものです。

◆의정부(위정)의 옥외광고물과 간판

- 일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경관

의정부시 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역 앞과 상업지구 거리에는 한국어 글자가 일본어로 바뀌면 일본 도시의 역 앞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어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는 일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실감했다. 역 앞 건물의 유리면에 펼쳐진 옥외광고물과 옥상 간판은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겨움을 느끼며 의정부시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건축물의 벽면뿐만 아니라 역의 계단 발판 부분에도 광고를 전개하는 모습까지 비슷하다. 일본에서도 새로운 상업시설이 완공되면 그곳만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 뒤편으로 번잡한 옥외광고물이 펼쳐지는 광경은 흔한 풍경이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새로운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새로 정비된 공원이나 도로 공간에 설치되는 사인도 색채와 형태에 신경을 써서 보다 나은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사인에서는 픽토그램의 전개도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 사인의 질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도 옥외광고물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도시는 광고로 가득 차 있다. 도시 경관에 있어서는 빼기 요소를 많이 도입해 좋은 도시 경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と同様に煩雑に壁面に掲示された屋外広告物 일본과 마찬가지로 번잡스럽게 벽면에 게시된 옥외광고물들



◆ソウルの公共空間

-十木とランドスケ-プが一体となった居心地の良い空間

イラインを見る機会があったので、同じ高架橋を生 かした新しい観光地としてソウル 7017 路もぜひ見 たいと思い、視察しました。WEB 等で写真を見る限 り、植栽が豊かで明るく開放的な雰囲気でした。し かし実際に見てみると正直期待通りではありません でした。平日の午前中ということもあり、人出が少 なかったこともあるでしょうが、閑散としていて、 殺風景で寂しい印象を受けました。

うか。よく見てみると床はシンプルなコンクリート 舗装で、手摺はガラスと金属。金属部分は塗装仕上 げで、ニュートラル系の明るいグレーで軽快な印象 です。サインは統一され、この 7017 路に沿って建つ ビルとも 2 階部分で繋がっており、アクセスも良好 で、通り沿いの建築物が道路に向かって開かれたつ くりになっており、丁寧に整備されていると感じま した。そして、やはり違いは緑であろうと思い至り ました。確かに通路には沢山の植栽枡が置かれ、自 然の緑が印象的に見え、うるおいが感じられます。

◆서울의 공공 공간

-토목과 조경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

縁あって近年、パリの芸術橋、ニューヨークのハ 최근 몇 년 동안 파리의 예술의 다리, 뉴욕의 하이라인을 볼 기회가 있어 같은 고가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로 서울 7017 로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웹 등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식재가 풍부하고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솔직히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평일 오전이라 인파가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한산하고 삭막하고 쓸쓸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일까. 사람 수 何がそう感じさせるのか。人の数だけなのでしょ 때문일까? 자세히 보면 바닥은 단순한 콘크리트 포장이고, 난간은 유리와 금속으로 되어 있다. 금속 부분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중성적인 밝은 회색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간판은 통일되어 있고, 이 7017 로를 따라 세워진 건물들과도 2 층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도로변의 건축물이 도로를 향해 개방되어 있어 세심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 차이는 녹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통로에는 많은 식재 枡 가 놓여져 있어 자연의 푸르름이 인상적이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高架橋を歩行空間として整備したソウル 7070 路 고가도로를 보행공간으로 정비한 서울 7070로



シンプルな意匠の手摺 심플한 디자인의 난간

しかしいずれも後付けである感は否めず、簡素な 舗装の仕上げと植栽枡のツルッとした質感がやや人 工的な印象を与えています。歩く人の目線で見てみ ると床に近い部分の緑量が少ないうえに、金属やガ ラスといった素材の質感がやや硬質で冷たい印象を 与えるのであろうと感じます。

比較として、ニューヨークのハイラインやパリの 芸術橋を見ると、緑量や舗装や手摺の素材感が異なり、自然と調和した温かみのあるものであると感じます。やはり近景で見えてくるものほど建材の素材 感は重要であると実感しました。

そして、土木とランドスケープの境界を感じさせない整備が一番の違いであろうと感じました。しかし何はさておき、これほどの規模の空間整備を日本の都市ではなかなかできていないことを思えば、7017路の整備は素晴らしく、日本でも学ぶべきことは多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하지만 모두 후붙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간결한 포장 마감과 식재 # 의 매끈한 질감이 다소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걷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바닥에 가까운 부분의 녹지량이 적고, 금속이나 유리와 같은 소재의 질감이 다소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비교하자면,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파리의 예술교를 보면 녹지의 양이나 포장과 난간의 재질감이 달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느낌을 준다. 역시 근경으로 보이는 것일수록 건축자재의 소재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토목과 조경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는 정비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이 정도 규모의 공간 정비가 일본 도시에서는 좀처럼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7017 로의 정비는 훌륭하고, 일본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緑量のあるパリの芸術橋 녹음이 우거진 파리의 예술 다리

そして何よりも 7017 路以外ではソウルの都市景観が、公共空間において日本よりもずっと成熟していると感じました。市庁舎前の広場や光化門広場は写真に見られるように多くの市民で賑わっていました。広場という公共空間が市民にとって非常に身近な存在となっていることが窺えました。そして、ソウル市の中心に流れる漢江(ハンガン)沿いの河川敷も見事な市民の憩いの場となっていました。市庁舎前にこれほど広大で豊かな芝生の広場がある都市が日本にどれほどあるでしょうか。同じ首都である東京の川辺に、これほど市民で賑わう場所があるでしょうか。日本にも市民にとって居心地の良い公共空間がもっと増えれば良いと考えます。

그리고 무엇보다 7017 로 외에는 서울의 도시경관이 공공공간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이 시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변의 하천부지도 멋진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시청 앞에 이렇게 넓고 풍요로운 잔디광장이 있는 도시가 일본에 몇 개나 있을까? 같은 수도인 도쿄의 강변에 이렇게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 있을까? 일본에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공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多くの市民で賑わう光華門広場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광화문 광장



多くの市民に親しまれている漢江公園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공원

- 7. 交差点の日除けパラソル コオ로 お양 파라舎
- 8. 議政府市の新交通システム沿いの水辺空間

의정부시 신교통 시스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간

今回十数年振りの訪問で、以前は清渓川の水辺空 間再生と韓流ドラマの影響で明洞・仁寺洞の賑わい や新しい江南地区が話題であった。仁川市・議政府 市およびソウル特別市でユビキタス技術による都市 生活サ-ビスや歩行環境改善を目指した最新プロジ ェクトによる飛躍的な街の変化と人々を魅了してい る光景に大変刺激を受けた。

◆交差点の日除けパラソル

景観文化 Vol.53('21, 07 月)で TDA 会員: ジョ ン氏が紹介した"増殖するパラソル"を、初めて体験 すると6月の気候でも日除け効果・実用性が感じら れた。また周囲歩道域への路面温度・気温低下を狙 いとした車道の水やり散水設備も散見されて歩行者 への配慮が窺われる。ますます高温化が懸念される アジア都市共通の高温多湿な自然環境+都市排熱 で、街中の歩行者にとって日除けゾーン(街路樹・ ビル影)に出会うとほっ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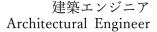
財源・設置スペ-ス・管理メンテナンス・色の規制等 の課題は有るが、改善工夫した"スマート日除けパラソ ルや日除けシェルター"の日本バージョンの可能性はど うかと考えさせられる。信号柱・街路灯とのユニット 化や冬季時・台風暴風時…はどうするか等。

십여 년 만의 방문인데, 이전에는 청계천 수변공간 재생과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명동-인사동의 활기찬 모습과 새로운 강남 지역이 화두였다.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도시 생활 서비스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최신 프로젝트를 통해 비약적인 도시 변화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모습에 큰 자극을 받았다.

◆교차로 차양 파라솔

조경문화 Vol.53('21.07 월)에서 TDA 회원인 지용씨가 소개한 '증식하는 파라솔'을 처음 체험해보니 6 월의 날씨에도 차양효과와 실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주변 보도로 노면온도 및 기온을 낮추기 위한 차도 물뿌리기 시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어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갈수록 고온화가 우려되는 아시아 도시 공통의 고온다습한 자연환경 + 도시 배기열로 인해 도심 속 보행자에게는 그늘막(가로수-건물 그늘)을 만나면 안도감이 든다. 재원, 설치 공간, 관리 유지보수, 색상 규제 등의 과제가 있지만, 개선된 '스마트 차양 파라솔이나 차양 쉘터'의 일본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호등, 가로등과의 일체화나 겨울철,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Minoru SUZUKI 鈴木 稔







地域によって色が違う 日除けパラソル 지역에 따라 색상이 다른 차양 파라솤



よく見られる日除けパラソル 흔히 볼 수 있는 차양 파라솔



歩行者が多い交差点に設置の 日除けシェルタ-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설치된 차양쉼터



日除けシェルタ-が設置されて いる周辺状況 차양쉼터가 설치된 주변 상황



ソウル駅高架道路を遊歩道にした 憩い空間への設置 서울역 고가도로를 산책로로 조성한 휴식공간에 설치



道路に水やり散水設置して路面温 度低下して歩行環境改善 도로에 물뿌리개 설치로 노면온도 낮춰 보행환경 개선

前述レポートによれば地球温暖化対策の市民サー スをソウル市整備事業で普及して、市民支持により 国の整備予算を増加して全国拡大した様子。市民ニ ーズを高めて日本の各自治体の理解と推進に期待せ ざるを得ないのか。

◆議政府市の新交通システム沿いの水辺空間 (遊歩道・サイクリングロ-ド)

初めての議政府市訪問だが政府系の京畿道北部庁 舎前の開放的な芝生広場には、ゴム床敷の遊具施設 が広がる公園と未だ樹形の小さい植栽群が配置され て、周りの高層住宅住民や来訪者の憩いの場となる 日が近いと思われる。U-LINEという高架式新 交通システムで議政府中央駅やソウル方面への通勤 アクセスになっている(東京の日暮里舎人ライナー に近い)。ただし高架駅下には健康機器も設置され ており、周辺には緑豊かな川沿いに沿う遊歩道・サ イクリングロードが整備されている。朝の散歩やジ ョギングする市民を眺めて、こんな街ならすごい人 気住宅地だろうと確信した。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대책의 시민 서비스를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보급하고, 시민들의 지지로 국가의 정비 예산을 늘려 전국으로 확대한 모습. 시민의 니즈를 높여 일본 각 지자체의 이해와 추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의정부시 신교통체계 수변공간

(산책로, 자전거 도로)

처음 방문한 의정부시이지만 정부계 경기도청사 앞의 탁 트인 잔디광장에는 고무바닥이 깔린 놀이시설이 펼쳐진 공원과 아직은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주변 고층주택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서울 방면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도쿄의 닛포리 토네리 라이너에 가깝다). 그러나 고가역 아래에는 건강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녹음이 우거진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아침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런 동네라면 정말 인기 있는 주거지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京畿道北部庁舎前の開放的な芝生 広場の植栽群 경기도 북부청사 앞 개방형 잔디광장 식재군



具公園空間1 경기도 북부청사 앞 고무바닥 놀이기구 공원 공간 1



高架駅舎下スペ-スには駐輪の他に 健康器具も設置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가장 가까운 U-라인 역사 주변 상황



京畿道北部庁舎前の開放的な芝生 広場と周辺環境 경기도 북부청사 앞 개방형 잔디광장과 주변 환경



京畿道北部庁舎前のゴム床敷の遊 具公園空間2 경기도 북부청사 앞 고무바닥 놀이기구 공원 공간 2

中央駅前の再開発では新設駅舎と商業ビルで一旦 歩行動線が分断されて、色々な銅像が配置されてい る公園広場側と反対にある小さなロータリー広場側 はやや離れて U-LINE 駅にアクセスするが落ち着け ない空間の印象だ。集客力のある旧市街地も歩いて 行ける距離なので、市内中心を流れる水辺環境を活 かした歩行回遊性ネットワークを図り更なる魅力あ る街づくりを推進願いたい。

중앙역 앞 재개발은 신설역사와 상업용 건물로 인해 보행 동선이 일단 단절되어 다양한 동상이 배치된 공원광장 쪽과 반대편에 있는 작은 로터리 광장 쪽은 다소 떨어져 U-LINE 역으로 접근하지만 불안한 공간이라는 인상이다. 집객력이 있는 구도심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도심을 흐르는 수변 환경을 활용한 보행 회유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를 추진했으면 한다.



京畿道北部庁舎前から最寄りの U-LINE 駅舎への周辺状況 경기도 북부청사 가장 가까운 U-라인 역사 주변 상황



京畿道北部庁舎最寄りの U-LINE 駅舎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U-LINE 역사

U-LINE 駅舎周辺の緑に囲まれた水 辺空間 1 U-라인 역사 p U-라인 역사 주변 녹지로 둘러싸인 수변공간 1



U-LINE 駅舎周辺の緑に囲まれた水 辺空間 2 U-라인 역사 주변 녹지로 둘러싸인 수변공간 2



U-LINE 駅舎周辺の緑に囲まれた水 辺空間 3 U-라인 역사 주변 녹지로 둘러싸인 수변공간 3

9. 人を招き寄せるショッピングストリート 飲食空間、伝統建築、そして、のんびり座れる椅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쇼핑 거리 식음 공간, 전통 건축, 그리고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의자

◆ソウル広蔵市場"うまいもん通り"がまちを活気づける

広蔵市場は 1905 年に設立した市場で開設当時は 農産物や薪炭を取り扱う市場だったとのことだが、 その後衣類や寝具、生活財など幅広い分野を取り扱ってきたそうである。その中で食品販売や飲食店を 中心とした「うまいもん通り」や「ユッケ通り」が人 気を博し現在では地元の人にも観光客にも注目の的 で、多くの客で賑わう場所となっている。外からは 落ち着いた商業施設とみられるだろうが、入ると直 ぐに頭上に万国旗がはためき、大勢の人が群れてい て驚かされる。韓国の名物メニューが山盛りで、作り 上げられ積み上げられていく調理場を取り囲み、期 待にあふれるお客さんたちの気持ちの高ぶりがアーケードの屋根の下にみなぎっている様子が繰り広げ ら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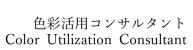
店員さんたちのエプロンや看板は赤系が多く、注 視性が高く目に留まりやすく、人々の関心を一層強 める力を出しているようである。

また、各種メニュ-に使われているトウガラシの色と野菜の色など対比的な補色の効果で、さらに注目されやすく、自然とワクワク感を盛り立てているといえよう。韓国料理の色というのは、食の欲への影響力が抜群であると改めて感じた。

◆서울 광장시장 '우마이몬 거리'로 활기를 되찾은 서울 광장시장

광장시장은 1905 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개설 당시에는 농산물과 장작을 취급하는 시장이었으나, 이후 의류, 침구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를 취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식품 판매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우마이몬 거리'와 '유케 거리'가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주목받으며 많은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한 상업시설로 보이지만, 들어서자마자 머리 위로 만국기가 펄럭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국의 명물 메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쌓여가는 조리장을 둘러싸고, 기대에 부푼 손님들의 마음이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펼쳐진다.점원들의 앞치마나 간판은 대부분 붉은색 계열이 많아 시인성이 높고 눈에 잘 띄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화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또한 각종 메뉴에 사용되는 고추의 색과 야채의 색 등 대비되는 보색 효과로 더욱 주목받기 쉬워 자연스럽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음식의 색이라는 것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Akiko SUGIYAMA 杉山 朗子







広蔵市場出入口 히로쿠라 시장 입구



広蔵市場通路連結部 히로쿠라 시장 접근 부서



万国旗ディスプレイ 만국기 디스플레이

日本では近年ア-ケ-ド型の商店街では、中心となっていた大型店舗の撤退や後継者がいなくなった老舗などが閉店し寂しくなってきたところが多くみられる。再開発などでマンションなどが計画されると通路に面した1階部分に店舗などは配置されない事例も見られ、「商店街」としては連続性を失い来街者も少なくなったりしている。この市場のようにア-ケ-ドの屋根に守られて飲み歩きができたり、カウンタ-に座って作りあがるのを見ながら食べられたりするお店が連なっている光景はうらやましい限りである。公共の通路ではないのでこのような展開は可能なのであろうが、日本でも、まちの構成要素として取り入れられるアイディアはないのだろうかと思った。

일본에서는 최근 아케이드형 상점가에서 중심이었던 대형 점포가 철수하거나 후계자가 없어진 노포 등이 폐점해 쓸쓸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다.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 등이 계획되면 통로에 면한 1 층 부분에 점포 등이 배치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상가'로서의 연속성을 잃어 방문객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 시장처럼 아케이드 지붕에 둘러싸여 술을 마시거나 카운터에 앉아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은 부럽기까지 하다. 공공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일본에서도 마을의 구성 요소로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調理されたメニュ-が並ぶカウンタ-。肉・野菜・魚などの素材売り場。トウガラシの赤と野菜の緑など補色対比で目に鮮やか

조리된 메뉴가 진열된 카운터. 고기, 야채, 생선 등 식재료 판매장. 고추의 붉은색과 야채의 녹색 등 보색 대비가 선명하다.







◆観光客が殺到しているお洒落な通り ソウル最古の韓屋村"益善洞"の伝統的素材のデザ イン

人気の高い観光地の仁寺洞(インサドン)に隣接する (イクソンドン)は、1920 年ごろに設立されたソウルで最も古いといわれる韓屋村である。韓国伝統家屋が密集している街区で狭い通路を挟んで築 100 年くらいの韓屋を改造したショップ・飲食店、ゲストハウスが続いている。内部はすっかり改装されてお洒落なショップになっているのが垣間見られた。しかし、外壁にはかつて使われていたと思われる瓦や石材、木材、タイルなどを使い続けて活かしたり、アクセントにしながらデザインしたりしているのが特徴的である。

韓国の建築・ショップデザインでは、伝統的素材を活かす様々な工夫がなされていて魅力を倍増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こういった動きは21世紀にはいり、ますます研究されて発展しているのであろう。以前、動画で韓屋村のデザインへの取り組みを見せていただいたが、現場で接するとさらにそのパワーを感じ取ることができ、大変嬉しかった。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련된 거리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 '익선동'의 전통 소재 디자인

인기 관광지인 인사동에 인접한 익선동은 1920 년경 조성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이 밀집한 거리로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지은 지 100 년 정도 된 한옥을 개조한 상점과음식점, 게스트하우스가 늘어서 있다. 내부는 완전히 개조되어 세련된 숍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돌, 나무, 타일 등을 그대로 살리거나 포인트를 주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건축, 상점 디자인에서는 전통적 소재를 활용한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매력을 배가시키고있는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은 21 세기에 들어서면서더욱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영상으로한옥마을의 디자인 노력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현장에서 직접 접하니 그 힘을 더욱 느낄 수 있어 매우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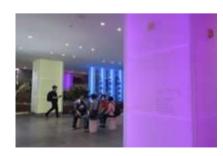


◆座れる場所が訪問客を集わせ和ませる

ソウル市内で地下鉄とつながる通路や清渓川に面 した商業施設へ渡る橋梁、議政府市のショッピン が多く行き来する場所には、座れる場所が用意さ れていて、買い物や待ち合わせなども安心できる。

こういったまちのデザインは「人」を中心に大切 に考えての結果と思われた。歴史遺産などの前で、 楽しく過ごせる公園が充実していると、韓国客も 気軽にアクセスできて、ますます人気を博してい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점점 더 인기를 얻을 くことと思われ、国内外の人々の人気は高まって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いくとことであろう。韓国の景観デザイン、商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관 디자인, 상업지구 街区の計画論を改めて参考にしたい。

ソウル市地下通路、清渓川の 橋梁、議政府市ショッピング ストリ-ト2点 왼쪽부터 서울시 지하통로, 청계천 다리, 의정부시 쇼핑거리 2 장.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방문객을 모이게 하고 편안함을 준다.

서울 시내 지하철과 연결되는 통로, 청계천에 면한 グストリートや名所・旧跡の重要地点など観光客 상업시설로 건너가는 다리, 국회의사당 쇼핑거리, 명소와 유적지 등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쇼핑이나 약속 장소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도시 디자인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역사 유산 등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한국 계획론을 다시 한 번 참고하고 싶다.

Akiko SUGIYAMA 杉山 朗子

色彩活用コンサルタント Color Utilization Consultant

10. 韓国のまちの色 한국의 도시 색

◆韓国のまちの色はそれぞれの用途に対応

今回は3つのまちを訪問し、見学や移動中の車窓 から見えた待ちを構成する要素で共通した傾向があ ると感じた部分を挙げてみたい。韓国でのそれぞれ に対するコンセプト・考え方とその展開としての色 彩の傾向の特徴があるのかと思われた。

◆住宅ビルの色

-非常にまとまりを感じさせる、穏やかな濃淡ト-ンのシッ ◆주거용 건물의 색상 クな組み合わせ中心

韓国では、新しい住宅は高層マンションとなって 중심으로 한 세련된 조합 いて飛行機の窓からもその集合の様子が見られて、 驚かされた。そんなマンションは、まとまり型の色 展開でベージュ系やブルーグレー系などが見られ落 ち着いたデザインとなっている。上空から見ても、 高層の住宅マンションは全体にやや明るく、濃淡で まとめたシックなデザインが主とまっているのが観 察できた。

周辺を緑地帯で囲っているのも特徴的であろう。

◆한국의 도시 색채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번에는 세 도시를 방문하면서 견학이나 이동 중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다림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공통된 경향을 느꼈던 부분을 꼽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각각에 대한 컨셉과 생각, 그리고 그 전개로서의 색채 경향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매우 통일감 있고 차분한 색조 톤의 시크한 조합을

한국의 신축 주택은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도 그 집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 놀라웠다. 그런 아파트들은 베이지, 블루그레이 등 통일감 있는 색상으로 차분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상공에서 본 고층 아파트 단지는 전체적으로 다소 밝고 색조를 절제한 세련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변이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특징이다.









◆ビジネスビルの色

-まとまりを感じさせる看板色の集合体

住宅とは異なり、駅前のビジネスビルは各階の会 주택과 달리 역 앞 비즈니스 빌딩은 각 층마다 회사 社等の看板が窓を覆っている。街区によって企業ビ 등의 간판이 창문을 덮고 있다. 거리마다 기업 건물들이 ル群が連続し看板色を纏っているようで驚かされた、 연속적으로 간판 색깔을 입고 있는 것에 놀랐다. 見学を進めると、色相やト-ンの傾向を合わせている 보고 있자니 색조와 톤의 경향을 맞춰가는 것 같았다. かのようであった、濃紺やワインなど深みのある色 짙은 네이비 블루, 와인 등 깊이 있는 색으로 통일되어 でまとまっていたり、ベ-ジュ、ブラウン、渋いオレ ンジなど YR 系の色相でまとめてあったりなど、色 색조로 통일되어 있는 등 색채의 집합체로서의 の集合体としてのまとまりを感じさせている。どう 통일성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협약이 있는지 꼭 한번 いう仕組みなのか、是非ヒアリングなどさせていた 물어보고 싶은 사례다. だきたい事例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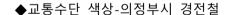
◆交通機関の色-議政府市軽電鉄

駅は注視性の高い色相を用いており、交通機関が 人々の活動の中心の一つと考えていると認められ、 な施設といってよいのだろう。

◆비즈니스 빌딩의 색상

-응집력을 느낄 수 있는 간판 색상의 집합체

있거나 베이지, 브라운, 차분한 오렌지 등 YR 계열의



역은 주목도가 높은 색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기관이 사람들의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인 サインカラ-の典型例であろう。近くの橋梁には花が 컬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근 다리에는 添えられており、衆目性も高めていて、まちの主要 꽃을 장식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고 있으며, 도시의 주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伝統素材の色

議政府市郊外では個人住宅ブロックの外壁および 門や塀の素材としてはレンガ及びタイルが中心であ 대문과 담장의 재료로 벽돌과 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った。韓国では素材への関心が強く、伝統的な意匠 한국에서는 소재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전통적 を個人個人が目指し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た。

同じ地区で建て替え予定のような事例にも、レン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 예정인 사례에서도 벽돌 타일 ガタイルなどが外壁材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韓国 등이 외벽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 주택의 기본 の住宅の基本的な素材なのであろう。

◆전통 소재의 색상

의정부시 교외에서는 개인 주택 블록의 외벽 및 디자인을 개인 개인이 지향하는 것 같았다.

소재인 것 같다.





















◆近代建築遺産

- 中国や日本その他の国の素材や色使い

仁川広域市の旧租界では、清国、日本それぞれの 当時の建築などを博物館として残したり、それらに 関連した施設などを整備して近代建築遺産の観光スポットとして紹介している。旧中国人街と旧日本人 街の境にある参道の石灯篭にはそれぞれの国のデザイン形状を残し、比較も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て興味深い。現在の中区庁舎は当時の日本の領事館が使われており、その正面玄関から繋がって当時の木造建築を彷彿とさせるストリートが展開されている。また、当時の建築に用いられていたタイルなどの外壁材やドアデザインも残されており、当時の日本建築デザインの近代_大正期の事例として貴重であろう。

◆현대 건축 유산

-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소재와 색상 사용

인천광역시의 옛 조계에는 청국, 일본 각각의 당시 건축 등을 박물관으로 남기거나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해 근대 건축유산의 관광명소로 소개하고 있다. 구 중국인 거리와 구 일본인 거리의 경계에 있는 참배길의 석등에는 각 나라의 디자인 형태가 남아 있어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현재의 중구청사는 당시 일본 영사관이 사용하던 건물로, 건물 정면에서 이어지는 거리에는 당시 목조 건축을 연상시키는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다. 또한, 당시 건축에 사용되었던 타일 등 외벽재와 출입구 디자인도 남아 있어 당시 일본 건축 디자인의 근대, 다이쇼 시대 사례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현 중구청사 1933 년 건립























1880 年代から 1930 年代の清国や日本の銀行など の近代建築や当時の木造を模した建築 1880 년대부터 1930 년대 청나라, 일본 은행 등 근대 건축물과 당시 목조 건축물을 모방한 건축물

11. 益善洞の韓屋リノベーション

익선동 한옥 리노베이션

益善洞(イクソンドン)はソウル都心部、宗廟や仁 寺洞から徒歩圏に位置する、約 2ha の地区である。 益善洞の周囲、東西約300m、南北約500mの範囲は 幹線街路網で囲まれ、その内部には幅員 6m ほどの 生活道路が東西方向に数本通っている。益善洞はそ の生活道路に囲まれた区域であり、幅員 2~3m 程度 の路地に面して韓国の伝統的木造建築である韓屋が 100 棟ほど、高密度で立ち並んでいる。

2014~15年ごろから、地域特有の路地と歴史を活 かし、現代的センスを取り入れた韓屋リノベ-ション が急増し、今日ではおしゃれなカフェ、レストラン、 パン屋、物販店などが並び、若者や観光客に大人気 の街となっている。一時は再開発指定地区とされて いたが、伝統家屋のリノベ-ションまちづくりの成功 によって再開発計画は中止され、韓屋の保存と活用 に方向転換された。

韓屋は柱、梁などに太い材が使われたがっちりし た軸組木造構造で、壁はレンガ造が多いようである。 その壁を大胆に撤去してガラスを嵌め込んだ建築が 多く見られる。地震がないためでもあろうが、大胆 なリノベ-ションによって、新旧の調和あるいはコン トラストが表現されている。歴史的なまち並み、建 築、路地が活かされ、現代的要素を取り入れながら 次世代に継承されている。

익선동은 서울 도심, 종묘와 인사동에서 도보권에 위치한 약 2ha 규모의 지역이다. 익선동 주변 동서 약 300m, 남북 약 500m 범위는 간선가로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에는 폭 6m 정도의 생활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여러 개가 지나고 있다. 익선동은 그 생활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폭 2~3m 정도의 골목길에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인 한옥이 100 여 채가 고밀도로 밀집해 있다.

2014~15 년경부터 지역 특유의 골목과 역사를 살리고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한옥 리노베이션이 급증해 현재는 세련된 카페, 레스토랑, 빵집, 잡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거리로 변모했다. 한때 재개발 지정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전통가옥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의 성공으로 재개발 계획이 중단되고 한옥의 보존과 활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옥은 기둥, 대들보 등에 굵직한 목재를 사용한 단단한 축조 목조 구조로, 벽은 벽돌로 된 경우가 많다. 그 벽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유리를 끼워 넣은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과감한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구의 조화 혹은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 역사적인 거리 풍경, 건축, 골목을 살리고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있다.

Shunii SUZUKI



ア-バンデザイナ-Urban Designer





翻って日本では、路地界隈の内部までも近代主義 的で画一的な都市計画が適用され、そのために伝統 的な街並みが失われている例が少なくない。まちづ くりのビジョンに欠ける短期的利益優先の都市開発 が許容されていることも、そのことに拍車をかけて いる。東京・神楽坂はその一例で、伝統的な街並みを 保全継承する法的手段が弱く、その防御は住民の意 思や限定的な地区計画に依存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 る。都市の個性や伝統を継承・発展させ、地域ならで はの都市デザインを実現するには、住民の力だけで はなく、行政の明確なビジョンとそれを実現する法 制度や支援方策が必要であることを考えさせられる。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골목 안쪽까지 근대적이고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적용되어 전통적 거리 풍경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을 만들기의 비전이 결여된 단기적 이익 우선의 도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쿄 가구라자카는 그 한 예로, 전통적 거리 풍경을 보전하고 계승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약하고, 그 방어는 주민의 의지와 제한적인 지구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개성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만의 도시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힘뿐만 아니라 행정의 명확한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와 지원책이



12. 仁川の旧日本人街

인천 구 일본인 거리

仁川市の港のそばにある旧市街の一角に旧日本人街(日本租界)がある。この地には太平洋戦争末期には1万人以上の日本人が居住していた。当時の旧日本領事館は保全・改修されて現在は仁川市中区役所として使われているなど、いくつかの建築物や日本家屋街などが歴史的建造物として保護されている。

韓国の人々にとっては戦前の日本の建物は負の遺産でもあろうが、それを敢えて保護、活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歴史を正視し、文化的価値も客観的に捉える姿勢を評価したい。さらにそれを観光資源として活用するなど、逞しさも感じた。

旧日本家屋街の建築は、日本の伝統的建築物とは 軒の深さや開口部の位置・形状、屋根の形状など異 なるが、それでも旧日本租界を基にした伝統的建造 物群の保存地域となっており、往時の日本人の生活 やその後の韓国人による修復・保護にまつわる葛藤 など、様々なことを思わせる。

何をもって街並み景観の本質と捉えるか、それを どのように継承していくかなどは日韓共通のテ-マ と考えられ、今後とも韓国の皆さんと交流しながら 検討していきたい。 인천시 항구 옆 구시가지 한 켠에 구 일본인 거리(일본 조계)가 있다. 이곳에는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1 만 명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했다. 당시 구 일본영사관은 보존 및 개보수되어 현재 인천시 중구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여러 건축물과 일본 가옥거리 등이 역사적 건축물로보호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 전 일본 건물은 부정적인 유산일 수도 있지만, 이를 굳이 보호하고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문화적가치도객관적으로 파악하는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강인함도 느낄 수있었다.

구 일본 가옥가의 건축은 일본의 전통 건축물과 처마의 깊이, 개구부의 위치 및 형태, 지붕의 형태 등이 다르지만, 구 일본 조계지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건축물군의 보존 지역으로, 과거 일본인의 생활과 그 후 한국인의 복원 및보호에 관한 갈등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거리경관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해나갈 것인가 등은 한일 공통의 테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한국의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싶다.

Shunji SUZUKI 鈴木 俊治

ア-バンデザイナ-Urban Designer



ア-バンデザイナ-Urban Designer

仁川広域市の面積は約 1,050km² (東京都区部は622km²) に及び、人口は約 300 万人と韓国ではソウル、釜山についで第 3 位の都市である。ソウルからの距離は約 40km でソウルと一体的な経済圏内にあり、ソウルの衛星都市と見なされている。

1883年に港が開かれた時点での人口は5,000人もなかったが、以降はソウルの外港、貿易港として発展した。韓国で唯一の中華街があり、日本統治時代には日本人町も造営された。その発展の経緯は横浜や神戸に似ている。

2001 年に仁川国際空港が開業してからは国際都市としての発展が目覚ましい。1990 年代から海面埋め立てて大規模な土地造成を行い、2003 年には空港に隣接する地域を韓国政府が仁川経済自由区域に指定し、国が主導してインフラ整備などを進めてきた。その中に松島(ソンド)国際都市がある。金融、情報基盤産業、環境調和型・大規模集合住宅による居住区域が設定されている。

2009 年に空港と松島国際都市を結ぶ仁川大橋が 完成し、その後同地区において国際的な会議やスポーツ大会を相次いで実施するなど、東アジアの拠点都 市になるという明確な世界戦略のもと、スマートシティ国家認定都市に選定(2022年9月)され、スマートシティの整備を進めている。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약 1,050km2(도쿄도 지역은 622km2)에 달하며, 인구는 약 300 만 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서울과의 거리는 약 40km 로 서울과 일체화된 경제권내에 있어 서울의 위성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1883 년개항 당시 인구는 5,000 명도 되지 않았지만 이후서울의 외항,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한국 유일의 차이나타운이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거리도 조성되었다. 그 발전 과정은 요코하마나 고베와비슷하다.

2001 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이 눈부신데, 1990 년대부터 해수면 매립을 통한 대규모 토지조성, 2003년 한국 정부가 공항 인접 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가 주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 가운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다. 금융, 정보기반산업, 환경조화형-대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2009 년 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완공되고, 이후 동 지역에서 국제회의와 스포츠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동아시아 거점도시가 되겠다는 명확한 글로벌 전략 하에 스마트시티 국가인증도시로 선정(2022 년 9 월)되어 스마트시티를 정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松島地区の開発は、ス-パ-ブロック、広大なオ-プンスペ-ス、シンボリックな高層建築、整備された幹線街路など、まさにコルビジェら CIAM がアテネ憲章で提唱したモダニズム都市が 21 世紀に実現されたように見える。一方近~中景で見ると、高層建築の地上階は街路に面して店が開に並ぶ構成となっており、街路のヒエラルキ-も明確であるなどの点ではニューア・バニズム的であり、その教科書のような開発とも見える。松島の中心部には 40ha に及ぶ松島セントラルパークがあり、緑と水(海水を引き込んだ)の豊かな未来都市のイメ-ジが実現されている。雨水の再利用システムなど環境と人工物の調和にも配慮されている。

一方、非常に整然として空間が広いため活動密度が低く、こまごまとした活動やモノが見えず、生活感は感じにくい街でもある。経年劣化につれて、公共施設や建築の維持管理負担の増加が予想される。また、建築地上階の商店と街路の間に段差が見られる箇所が多く、バリアフリーの点も気になった。広大な地域であるため移動は車が中心で、徒歩と公共交通だけでは移動が不十分と感じられ、今後新たなモビリティの導入も必要になると思われる。

반면, 매우 정돈되고 공간이 넓어 활동 밀도가 낮고, 활동이나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아 생활감을 느끼기 어려운 도시이기도 하다. 노후화에 따라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축 지상층 상가와 도로 사이에 단차가 보이는 곳이 많아 장애인 편의시설도 신경 쓰였다.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 이동은 자동차가 중심이고, 도보와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향후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様々な意味で、実験的な都市であるのかもしれな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험적인 도시일지도 모른다. い。その点でも横浜みなとみらいに類似しているが、 그런 점에서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와 유사하지만, 仁川の方が世界戦略を基にだいぶ大胆、先進的な実 인천이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훨씬 더 대담하고 験にチャレンジし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る。 진보적인 실험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4.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に参加して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참가 소감

2023 年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は、2 日間の日程で仁川(インチョン)市、議政府(ウィジョンブ)市を視察した。3 日目は、自由参加でソウル市内の視察を実施した。1 日目は、仁川市は、金浦国際空港から旧日本・中国居留地、松島(ソンド)経済自由区域などを視察した。2 日目の議政府市では、米軍から返還された基地跡地、駅前周辺や商店街を視察、ソウルへ移動の途中、漢江の盤浦漢江公園に立ち寄った。3 日目は、ソウル市内を見学、ザハ・ハディドのDDP、清渓川、光化門広場などを視察し、帰国。スケジュールは過密ではあったが、韓国の都市デザインは、日本に比べはるか先を進んでおり、今回の交流会も多くの学びがあった。

毎回、韓国側の参加者は、毎回 10~20 人程度おり、 公務員も多く参加している。2~3 年で部署移動が行われ、技能職でもゼネラリスト志向が強い日本の地方自 治体職員と違い、韓国では、横浜市の都市デザイン室 を参考に、各都市で首長直轄の都市デザインの専門部 署を創設し、都市デザイナ-を専門職として採用し、都 市デザイン分野全般の統括や調整が行われている。そ のため、日本を含め、海外の事例研究に熱心であり、交 流会に参加する度に、その熱意に圧倒される。 2023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는 2 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의정부시를 시찰하고 3 일은 자유참가로 서울시내를 시찰했다.1 일차 인천시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구일본-중국거류지,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을 시찰했다.2 일차 의정부시는 미군반환기지 반환기지, 역주변 및 상가 등을 시찰했다. 의정부시에서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미군기지 반환부지, 역 주변과상가를 시찰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한강반포한강공원에 들렀으며, 3 일차에는 서울 시내를둘러보고 자하 하디드 DDP,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을시찰한 후 귀국했다. 일정이 빡빡했지만, 한국의 도시디자인은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서가고 있어 이번교류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 측 참가자는 매회 10~20 명 정도이며, 공무원도 많이 참가하고 있으며, 2~3 년 단위로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기능직이라도 제너럴리스트 성향이 강한 일본 지자체 직원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실을 참고하여 각 도시마다 단체장 직속도시디자인 전문부서를 만들어 도시디자인 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도시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디자이너를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도시디자인 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연구에 열심이며, 교류회에 참석할 때마다 그 열정에 압도당한다.









ソウル駅とソウル路 7017 서울역과 서울로 7017



仁川市 旧日本居留地 인천시 옛 일본인 가옥

韓国は、ソウルの清渓川の再生事業を始まり、国を 挙げて都市デザインに注力しており、仁川市の特別 地域など大規模なプロジェクトが国主導で進められ るなど、デザイン性の高い大規模な開発が官民あげ てあちこちで行われている。どの事業も事業スピード は、日本のそれと比べ格段に速い。一方で、ソウルも 含め中心市街地の中にはまだ、市場など庶民的な雰 囲気が残っているところも多く残っており、今回、 少し視察することができた。

また、今回の開催地の2都市を含め、ソウルやその近郊都市に人口の約50%が居住していることから、高層の住宅があちこちに建てられており、現在も多くの建設中のものを見かけた。仁川市の松島地区も公園を中心にデザイン性の高い高層住宅が立ち並ぶ景観に圧倒された。その反面、韓国は、日本よりも少子高齢化が進んでおり、これらのインフラの更新を迎える時にどのような政策を打ち出していくのだろうか個人的にはとても関心がある。

交流会も 10 年を迎えた。今後も引き続き開催していき、一層交流が深まることで、お互いの公共デザインの発展に貢献できればと思っている。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시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천시 특별구역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등 디자인성이 높은 대규모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느 사업이나 사업 속도는 일본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도심지 내에는 아직 시장 등 서민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도 많이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시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최지인 두 도시를 포함해 서울과 그 근교 도시에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고층 주택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으며, 현재도 건설 중인 곳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천시 송도지구도 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성이 높은 고층 주택이 즐비한 풍경에 압도당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의 갱신을 맞이할 때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교류회도 10 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류가 더욱 깊어져서 서로의 공공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仁川 松島自由区域の高層住宅 인천 송도 자유구역 고층 주택



議政府 川の両側に並ぶ高層住宅 의정부 강 양쪽에 늘어선 고층 주택들

15. 韓国の夜間照明の事例紹介

한국 야간조명 사례 소개

Reiko CHIKADA 近田 玲子

照明デザイナ-Lighting Designer



1 漆黒の闇に包まれる夜の川面を背景にした 光のショ-空間・盤浦漢江公園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밤의 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빛의 쇼-공간, 반포한강공원

2023 年 6 月 / 撮影者: 近田玲子 2023 년 6 월 / 촬영자: 오카다 레이코



(バンポデキョ)の橋桁から降り注ぐ全長 1,140m 月光レインボ-噴水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반포대교 교각에서 쏟아지는 총 길이 1,140m 의 달빛 무지개 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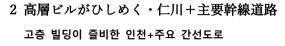
写真 1-2 盤浦漢江公園から噴水ショ-を眺める市民 世포한강공원에서 분수쇼를 관람하는 시민들





写真 1-3, 4 ショッピングや食事を楽しめる盤浦大橋のすぐ横に作られたフロ-ティング形態の光る人工島・水上複合文化空間 (セビッソム)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반포대교 바로 옆에 조성된 플로팅 형태의 빛나는 인공섬, 수상복합문화공간(세빛섬)



2023年6月/撮影者: 近田玲子



写真 2-1 仁川市夜景 인천시 야경



写真 2-2 橋のライトアップ 다리 라이트업

3 文化の中心・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문화의 중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014年3月/撮影者:近田玲子



写真 2-3 幹線道路 간선도로



写真 2-4 トンネル入口 - 터널 입구



写真 3-1 東大門プラザ1 동대문플라자 1



写真 3-2 東大門プラザ 2 동대문플라자 2



写真 3-3 東大門プラザ 3 동대문 플라자 3



写真 3-4東大門プラザ向かい側동대문 플라자 맞은편

4 都市の中の水辺・清渓川

도심 속 수변, 청계천

2007年9月/撮影者:近田玲子



写真 4-1 清渓川 1 청계천 1



写真 4-2 清渓川 2 청계천 2



写真 4-3 清渓川 3 청계천 3



写真 4-4 清渓川 4 청계천 4

16. 議政府市キャンプ・レッドクラウド基地跡地について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 부지에 대하여**

Naomichi KURATA 倉田 直道

> 都市デザイナ-Urban Designer



今回の韓日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2日目の議政府市では、米国より返還されたキャンプ・レッドクラウドの跡地利用についてのコメントを求められた。先ずキャンプ・レッドクラウド(CRC)の概要であるが、議政府市の北西端に位置し、約836,000m²の敷地を有し、アメリカ陸軍第二歩兵師団の司令部として使用されてきた。CRCは、1950年から53年にかけての朝鮮戦争以来、前線近くに配備されたアメリカ陸軍の拠点であったが、たびたび延期されてきた移転計画の一環として、ついに閉鎖されることになった。

1998 年夏、CRC のある地域は大雨に見舞われ、致命的な洪水と被害を CRC にもたらした。CRC の背後にある丘の大部分が流され、大規模な土石流が CRC の南半分を壊滅させた。いくつかのバラック(将校の宿舎)は、ヘリポートに隣接するゴルフ・プロショップとともに破壊された。また、21D 博物館も泥と水の奔流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洪水で命を落とした米軍兵士はいなかったが、多くの韓国国民と家畜が洪水で亡くなった CRC はアメリカ軍の韓国駐留に対するさまざまな抗議やデモの場となってきた。そのような最大の抗議は 2002 年で、韓国の抗議者たちが火炎瓶を投げつけ、基地の周りのフェンスに穴を開けた。

이번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2 일차 의정부시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개요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북서쪽끝에 위치한 약 836,000㎡ 의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육군 제 2 보병사단의 사령부로 사용되어 왔다. 전선인근에 배치된 미 육군의 거점이었으나, 수차례연기되어 온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마침내 폐쇄하게되었다.

1998년 여름, CRC의 일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CRC에 지명적인 홍수와 피해를 입혔고, CRC 뒤쪽 언덕의 대부분이 휩쓸려 내려갔으며, 대규모 토석류가 CRC 의남쪽 절반을 파괴했다. 일부 막사(장교 숙소)는 헬기장에 인접한 골프 프로샵과 함께 파괴되었다. 또한 21D 박물관도 진흙과 물살로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는 없었지만, 많은 한국 국민과 가축이 홍수로 사망한 CRC는 미군의 한국 주문에 대한다양한 항의와 시위의 장이 되어왔다. 가장 큰 시위는 2002 년 한국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고 기지 주변울타리에 구멍을 뚫은 사건이었다.



写真 1キャンプ・レッドクラウド跡地全景캠프 레드 클라우드 유적지 전경

このデモは、米軍車両が 2 人の女子生徒を轢いた 楊州高速道路事件に反発したものであった。2016 年 すべての在韓米軍が北朝鮮との国境近くの基地キャ ンプ・ハンフリーズに移った後、2018 年 10 月キャ ンプ・レッドクラウドが閉鎖され、2019 年 4 月に米 軍兵力が完全に撤退した後、2022 年 2 月に議政府市 に返還された。返還された CRC は、洪水被害を受け たのち、基地移転の予定があったこともあり、十分 な維持管理がなされておらず、殆どゴーストタウン 状態となっている。また、長年基地として利用され てきたことから土壌汚染の懸念もあり、土壌汚染の 調査が予定されているが、その結果土壌浄化処理の 必要性も示されている。

こうした課題を抱えた CRC であるが、議政府市は、CRC が平和と安全のための韓米同盟の努力と歴史的価値を示す象徴であるため、ここに文化公園を整備するという方針を示している。

이번 시위는 미군 차량이 여학생 2 명을 치어 숨지게 한 양주 고속도로 사건에 대한 반발로, 2016 년 모든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국경 근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후 2018 년 10 월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폐쇄되고 2019 년 4 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후 2022 년 2 월 의정부시에 반환되었다. 반환된 CRC 는 홍수 피해를 입은 후 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유령도시와 다름없는 상태이다. 또한, 오랜 기간 기지로 사용되어 토양오염 우려도 있어 토양오염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토양정화 처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CRC 이지만, 의정부시는 CRC 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과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今回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において、TDAのメンバーは CRC 基地の跡地利用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ために、CRC の現地視察を行なった。2018年に閉鎖されたのち、放置された状態の CRC は洪水の被害もあり荒れ果てた状態であったが、オフィス、レストラン、ホール、劇場、住宅、ギャラリー、兵舎など、基地機能を象徴した幾つかの建物は、将来改修すれば十分活用できそうなものであった。CRC がこれまで議政府市市民にとって、足を踏み入れることのできない、閉じたエアポケットのような軍事目的の場所であったことから、返還後は、市民に開かれた、平和な暮らしを象徴する文化公園として整備する方針は素晴らしい選択だと感じた。

私自身は、CRC 基地の跡地利用の参考事例ということで、米国サンフランシスコにおけるプレシディオ基地の跡地利用について紹介した。結果的ではあるが、CRC を文化公園として再整備しようとする議政府市の方針に合致した参考事例となったように思う。以下のプレシディオ基地の跡地利用の基本方針はそのまま CRC の跡地利用にも適用できるように思われる。

이번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에서 TDA 회원들은 CRC 기지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CRC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2018 년 폐쇄된 후 방치된 CRC 는 홍수 피해로 인해 황폐한 상태였지만, 사무실, 레스토랑, 홀, 극장, 주택, 갤러리, 병영 등 기지 기능을 상징하는 몇 개의 건물은 향후 개조하면 충분히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CRC 가 그동안 의정부시민들에게는 발 디딜 틈이 없는 폐쇄된 에어포켓과같은 군사적 목적의 장소였던 만큼 반환 후에는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책은 훌륭한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CRC 기지 부지 활용의 참고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 기지 부지 활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CRC 를 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하려는 의정부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참고사례가 된 것 같다. 아래의 프레시디오 기지 부지 활용의 기본 방침은 그대로 CRC 부지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esidio 地区全景 Presidio 지역 파노라마



Presidio 地区の地図 Presidio 지구 지도

- ンの場としての公園環境の創出
- 歴史的ランドマーク地区の重要な景観要素とし て既存の基地建物の文化機能への転用・利活用
- 環境に配慮した持続可能な交通システムとイン フラ・システム
- 多様な市民参加の機会
- 自然資源、文化資源、景観資源、レクリエーショ ン資源の保全強化
- 長期的運営管理に対する自立的な資金調達

CRC の利活用には大きな財政的な課題があるよ うであり、そのため時間をかけた整備が不可避であ るように思われます。そのために長期的な展望のも とで利活用計画が不可欠であるように思う。その際 に、まず初めに着手する必要があるのは、本来の地 勢の再生に寄与する地域固有の植生に配慮した樹種 などによる地域らしいラインドスケープの整備であ ろう。それから、時間を掛けて既存建物の文化的な 利活用を進めれば良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 豊かな自然資源を活かした市民のレクリーショ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환경 조성
 - 역사적 랜드마크 지구의 중요한 경관 요소로서 기존 기지건물의 문화기능으로의 전환 및 활용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과 인프라 시스템 •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
 - 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레크리에이션 자원의 보전 강화
 - 장기적 운영관리에 대한 자립적 재원 조달

CRC 의 활용에는 큰 재정적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정비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 아래 활용 계획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은 본래의 지형 재생에 기여하는 지역 고유의 식생을 고려한 수종 등을 통한 지역다운 라인드스케이프의 정비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존 건물의 문화적 활용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Naomichi KURATA 倉田 直道

都市デザイナ-Urban Designer

17. ソウル特別市公共空間整備について **서울 특별시 공공공간 정비에 대하여**

今回の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正式な視察対象ではなかったが、非公式のソウル視察があった6月3日(土)と4日(木)に別行動でソウル市内の公共空間の整備の現状を見てまわった。ここ数年韓国を訪れる機会があり、ソウル市における街路など公共空間の整備が著しいとの印象を持っていたのでそれを確認したいというのが大きな動機であった。

そこで先ず訪れたのが世宗大路であった。世宗大路は光化門広場・徳寿宮・崇礼門・南山・ソウル路7101 など世宗大路の代表的な観光名所を繋ぐ歩行者空間のネットワークの核として整備されている。光化門広場は、いつも多くの車で溢れていた往復12車線の世宗大路を、全区間の道路幅を往復7~9車線に狭め、狭めた分の道路にソウル広場(6,449 ㎡)の2倍以上の面積の歩行空間である「公園を抱く広場」(13,950 ㎡)を整備している。東側には自転車道が整備されている。

이번 도시디자인교류회의 공식적인 시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서울 시찰이 있었던 6 월 3 일(토)과 4 일(목)에 별도의 일정으로 서울 시내 공공공간의 정비 현황을 둘러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가로 등 공공 공간의 정비가 눈에 띄게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 큰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세종대로였다.

세종대로는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남산, 서울로 7101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보행공간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광화문광장은 항상 많은 차량으로 넘쳐나던 왕복 12 차선 세종대로를 전 구간 도로 폭을 왕복 7~9 차선으로 좁히고, 좁혀진 도로에 서울광장(6,449 m²)의 2 배가 넘는 면적의 보행공간인 '공원을 품은 광장'(13,950 m²)을 조성하고 있다. 동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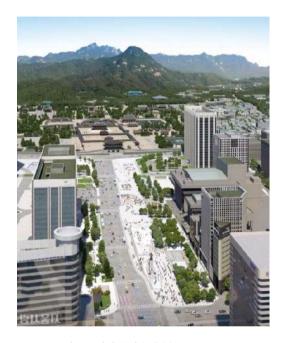


写真 1 光化門広場全景 사진 1 광화문 광장 전경



写真3 案内図 사진3 안내도





写真 2 沿道交差点周りの整備 사진 2 도로변 교차로 주변 정비





公園を抱く広場には、多くの市民の意見を反映した、四季の変化が感じられる各種多様な樹木や花々(韓国の自然と四季が感じられるように、高木 37 種を 317 株、低木 30 種を 6,700 株、33 種の花を 33,431本と 2,698㎡の広さに 2 種類の芝生)を植栽し、それに加えて、噴水などの複数の水景施設や埋蔵文化財遺跡展示施設を整備し、文化と歴史と自然が調和するソウルの中心市街地のシンボル的な歩行者空間となっている。ここで街路樹ならぬ街路森という概念を取り入れているのも興味深い。ソウル市は、今回の事業を機に、車両中心の構造から人中心、緑が豊かな空間に満ちた「生態文明都市」への転換を目指すという意味を込めて、世宗大路歩行者空間に「サラムスプギル(人と森の道)」という事業名を名付けている。

こうしたソウル市における都市空間整備は、従来の車中心の都市から人中心の都市へ生まれ変わろうとしている近年のソウル市の都市交通政策の表れ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る。ソウル市の都市交通政策は市民の歩行安全の強化と、歩きたい都市づくりという二つのテーマで構成されている。代表的な歩行安全の強化施策としては「安全速度 5030」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공원을 품은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목과 꽃들(한국의 자연과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고목 37 종 317 주, 관목 30 종 6,700 주, 초화류 33 종 33,431 본과 2,698 ㎡ 면적에 2 종의 잔디)을 식재하고, 여기에 더해 분수대 등 여러 수경시설과 매장문화재 유적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와 역사, 자연이 어우러진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보행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가로수가 아닌 가로숲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도흥미롭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차량 중심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녹지가 풍부한 '생태문명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아 세종대로 보행공간에 '살림숲길'이라는 사업명을 붙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공간 정비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은 시민의 보행안전 강화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보행안전 강화 정책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꼽을 수 있다.



街路森 Streetson (이름)



街路森 Streetson (이름)

ソウル市は「安全速度 5030 政策をまさに速度から 安全へ、車から人への交通安全パラダイムの大転換」 とし、「これからは先ず人を優先して考える名実共に 交通先進国になれるように」と呼びかけた。道路交 通法の施行規則の改正に基づき、ソウル市内の最高 制限速度を幹線道路で時速 50 km、生活道路で時速 30 km以内に下方修正するという内容である。ただし、 移動性の確保が必要な自動車専用道路は現行の制限 速度である時速 70~80 kmが維持されている。ソウル 市は「安全速度 5030」事業を通じて、安全運転文化 に対する市民の共通認識を広め、歩行者の安全水準 が向上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いる。もう一つのテー マである歩きたい都市づくりの取り組みとして光化 門広場が位置づけられる。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바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에서 사람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부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 시속 50 km , 생활도로에서 시속 30 km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 km 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테마인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



周辺幹線道路の歩道 주변 간선도로의 보도



街路森 Streetson (이름)



街路森 Streetson (이름)

こうした大胆かつ積極的な歩行環境改善の取り組 みをみて思い出すのは、10年以上前に国土交通省と 厚生労働省の国土施策創発調査の一環で海外におけ る歩くまちづくりを調べた際に、ソウル市において 2009年に制定された「ソウル特別市歩行権確保と歩 行環境改善に関する基本条例 | の存在に驚いたこと である。改めて確認してみると現在もこの条例は活 きており、こうした都市空間整備や交通政策の理念 的かつ制度的なバックボーンになっている。

いると、都市に対する理念を欠いた対症療法的な枠 組みを出ていない。この辺りは、韓国のまちづくり の取り組みに学ぶところではないだろうか。

이러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노력을 보면서 10 년 전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의 국토시책발굴조사의 일환으로 해외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조사했을 때, 서울시에서 2009 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의 존재에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의 존재에 놀랐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 이 조례는 현재도 유효하며, 이러한 도시공간 정비와 교통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걷고 싶은 我が国の近年の歩くまちづくりの取り組みをみて 도시만들기 노력을 보면, 도시에 대한 철학이 결여된 대증요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마을만들기 노력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噴水広場 분수대 광장



噴水広場 분수대 광장



噴水広場 분수대 광장



噴水広場 분수대 광장



埋蔵文化財展示施設 매장문화재 전시시설



埋蔵文化財展示施設 매장문화재 전시시설





倉田 直道 Naomichi KURATA アーバンデザイナー Urban Designer

1. 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景観デザインの背景としての都市政策と法制度について 한국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도시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デザインで都市問題を解決する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縁で、2018 年 11 月に 韓国の江原道春川市で開催された「公共デザインフォーラム 2018」に参加した。近年、韓国政府やソウル市などの自治体がデザイン政策に力を入れていることは承知していたが、商品などのブランド力、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にデザイン的な付加価値を加える産業の振興政策といった理解であった。

しかし、今回の公共デザインフォーラムに参加し、 韓国において、公共デザイン政策がまちづくりや都 市再生を推進するに大きな原動力となっていること を知る機会となった。「公共デザインフォーラム 2018」のテーマは「デザインで都市問題を解決する」 で、私を含む、デザイン、まちづくり、行政の専門家 による基調講演、事例報告の後、報告者に春川市市 長が加わり、公共デザイン学会会長の司会でパネル ディスカッションが行われた。

1. 디자인으로 도시 문제 해결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 인연으로 2018 년 11 월 한국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공공디자인포럼 2018'에 참가했다. 최근 한국 정부나 서울시 등 지자체가 디자인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품 등의 브랜드 파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적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 진흥 정책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디자인포럼에 참여하면서한국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계기가 되었다. '공공디자인포럼 2018'의 주제는 '디자인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다'로 필자를 포함한디자인, 마을만들기, 행정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사례보고에 이어 춘천시장님이 보고자로 참여하여 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具体的な事例を通して、このフォーラムで強調され たのは、「公共デザイン」は特定の専門家だけの作業で はなく、社会全体が参加する共同作業であり、公共デ ザインを通して社会問題を解決し、公共の場を美しく 快適にすることで「より暮らしやすい都市」としての 競争力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指すということであった。 デザインは、単に製品や空間の美しさを改善する段 階を越えて、都市が直面する課題解決の活動にその領 域が拡大している。さらに、都市の文化的力量を育て るうえで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また、2022 年度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に参加し、 ソウル市を中心ではあるが都市デザイン、景観デザイ ンの取り組みを視察する機会を得たが、それらプロジ ェクトを推進する背景として、国や地方自治体におけ る都市政策やそれを進めるための法制度や体制がある ことを知った。この辺りが日本と韓国を比較した際に、 近年飛躍的に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景観デザイ ンのプロジェクトが成果を収めている大きな要因でも あるように感じた。そこで付け焼き刃的ではあるが調 べたので、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景観デザイン のプロジェクトの背景である都市政策や関連する法制 度について、その一部を以下に紹介した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강조된 것은 '공공디자인'은 특정 전문가만의 작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이며,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장소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더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이나 공간의 아름다움을 개선하는 단계를 넘어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 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22 년도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에 참가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의 노력을 시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도시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최근 비약적으로 한국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큰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도시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해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2. 公共デザインと公共デザイン法

公共デザイン (Public Design) という用語を積極 的に使用し、これに対する概念と対象を規定したの は、韓国である。2005年に国会で「公共デザイン文 化フォーラム」が組織され、国会議員たちが公共デ ザインを活用して地域と国の発展方策を模索し始め た。2007年、ソウル市は副市長級にデザインの専門 家(デザイン総括)を招聘し、公共デザインをソウ ル市発展の革新戦略として設定した。ソウル市は公 共デザインの効率的な実行のために専担部署を組 織し、関連条例を制定し、デザインガイドライン を策定し、デザイン委員会を通じてデザインの審 議と諮問を強化した。ソウル市は市民に公共デザ インの機能と重要性を知らせるために様々な試行 事業を実施したが、最も代表的なものは「デザイ ンソウル通り」のような街路環境整備事業であっ た。ソウル市から始まった公共デザインは、早い時 期に他の自治体にも広がり、京畿道に副知事級でデ ザイン総括が採用され、公共デザイン関連条例、 ガイドライン、委員会、住民協議会などが作られ た。公共デザインは自治体行政に導入され始めた が、その根拠となる法的制度は比較的弱かった。

2.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대상을 규정한 것은 한국으로, 2005년 국회에서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이 조직되어 국회의원들이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부시장급에 디자인 전문가(디자인 총괄)를 초빙하여 공공디자인을 서울시 발전의 혁신 전략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디자인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공공디자인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서울거리'와 같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었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공공디자인은 일찌감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어 경기도에 부지사급으로 디자인총괄이 채용되었고,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가이드라인, 위원회, 주민협의회 등이 만들어졌다. 공공디자인은 지자체 행정에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2006年、国の文化体育観光局を中心に公共デザ インの推進を支援するための「デザイン基本法」 制定を推進したが、関連省庁との協議不足で法律 制定は実現しなかった。2007年、国の建設交通局 が主体となって景観法が制定された。景観法は公 共デザインの主な対象である景観を扱っている が、公共デザインの概念を完全に網羅していなかっ 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自治体は景観法 に基づいて景観条例、景観委員会、景観総合計画 などを作成し、しばらくの間、これらの条例と委 員会によって公共デザインが推進された。

務員任用にデザイン担当が新設され、デザイン専攻 者が公共機関や地方自治体に公共デザイン業務を担 当できる道が開かれた。しかし、2011年に公共デザ インを主導していたソウル市長が退任し、公共デザ インに対する政治的な評価が変わり、多くの自治体 で「公共デザイン」の代わりに「都市デザイン」とい う用語を使用するところが増えた。

2006 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부족으로 법 제정이 무산되었고, 2007년 건설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은 공공디자인의 주요 대상인 경관을 다루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경관종합계획 등을 만들었고, 한동안 이 조례와 위원회를 통해 공공디자인이 추진되었다. 2009 년 공공디자인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공무원 임용에 디자인 담당이 2009 年、公共デザインの効果的な実践のために公 신설되면서 디자인 전공자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2011 년 공공디자인을 주도하던 서울시장이 퇴임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바뀌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대신 '도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났다.

このような理由から、自治体によって公共デザイ ン業務部門が同様の業務を遂行しながらも、景観 デザインチーム、都市デザインチーム、公共デザイ ンチーム、都市再生チーム、都市建築チームなど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様々な名称を持っているのが現実である。政治的環 境変化にもかかわらず、国家機関や地方自治体が公 共デザインの重要性を認識するようになり、公共デ ザイン政策と事業が拡大され、新都市整備などに おいて公共デザインのための計画が策定されるよ うになった。文化体育観光局傘下の韓国工芸デザイ ン文化院が 2015 年に公共デザインの現況などの体 系的な調査を行い、その上で2016年2月に文化体 育観光局主導で「公共デザイン振興のための法律」 (公共デザイン法)が公布され、同年8月に法律が 施行された。公共デザイン法の制定は、法的な裏付 けなしに国家機関や自治体で施行されていた公共デ ザイン条例、委員会、事業、制作の根拠となる法律 を提供したという点で大きな意義を持っている。

ただ、法律制定時の他省庁との協議過程で「公共デ ザイン法 | が扱う範囲が「施設物など | と表現され、公 共デザインの重要な対象となる空間が含まれていない ため、今後制度的な補完の必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마다 공공디자인 업무부서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관디자인팀.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팀, 도시재생팀, 도시건축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고, 신도시 정비 등에서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원이 2015 년에 공공디자인 현황 등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 년 2 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공공디자인법)이 공포되어 같은 해 8 월 법이 시행되었다. 공공디자인법 제정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 사업, 제작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공디자인법'이 다루는 범위가 '시설물 등'으로 표현되어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대상인 공간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公共デザインは社会文化の変化に能動的に対応でき る方案で、施設だけでは公共デザインが目指す公共性 を実現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たがって公共デザイン 事業の施行原則を忠実に履行するためには、「公共施設 物 | から「公共空間と場所 | などに公共デザインの範囲 が拡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現代都市で公共領域と 民間領域の区分が次第に曖昧になっているため、公共 デザインの対象も国、自治体、公共機関で造成する事 業に限定することから脱却し、公的機能をする民間の 施設と空間に拡大する必要がある。

公共デザイン法において「公共デザイン」は、一般公 衆のために国、地方自治体、公的機関が計画・整備・運 営又は管理する公共施設等について、公共性と審美性 の向上のために設計する行為及びその結果と定義づけ ている。さらに、国及び地方自治体の責務として、公共 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に必要な施策を策定し、必要な 財源の拡充と運営の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している。国及び地方自治体は、それぞれ公共デザイ ン振興総合計画を策定するとともに、公共デザインの 振興に関する事項を審議、調整するために公共デザイ ン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공공디자인은 사회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물만으로는 공공디자인이 지향하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서 '공공공간과 장소'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대상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사업에 국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공기능을 하는 민간 시설과 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계획-정비-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デザイン的思考とは、より良い結果を得るため、課 디자인적 사고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제를 題を実用的かつ創造的に解くためのプロセスであり、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며, 韓国で顕在化している社会的現象や文化的、経済的、 環境的変化に応じ、デザインを通して社会の公共的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의 공공적 価値を向上させるための、計画、戦略、政策、実行、 管理の統合的方法論でもある。また、公共デザイン の基本原則として、

- 1) 公共の利益と安全を最優先に考慮し、美しく快適 な環境を整備する、
- 2) 年齢、性別、障害の有無、国籍などに関係なく、 すべての人が安全で快適に環境を利用すること ができるデザインを目指す、
- 3) 国・地域の歴史やアイデンティティを表現し、周 3) 국가-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囲の環境と調和、バランスをとらねばならない、
- 4) 公共デザインに関する国民の意見を積極的に集 約し、意思決定プロセスに国民が参加できる様々 な方策を用意する、

などを挙げている。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전략, 정책, 실행, 관리의 통합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 2)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며,
-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

公共デザインは、製品デザイン、空間デザインの ようにデザインの最終成果物による概念ではなく、 公益性と公共性というデザイン活動と目標が目指す 価値に基づいて作られた用語である。したがって、公 共デザインは価値指向的な性格を持ち、製品、空間、 視覚媒体などすべてに適用できる概念である。公 共機関によって公共のために公益性を与えるデザ イン活動のすべてが公共デザインであり、そのた め、公共デザインが適用される対象によって、公共 空間、公共施設物、公共視覚媒体、公共建築などの 用語で公共デザインの詳細項目を区分している。

「公共デザイン」の概念は、市場と消費者を志向する 産業デザインと対比して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デザ インの実行主体を基準にして、産業デザインが企業で あれば、公共デザインは公共機関が主体となる。産業 デザインは企業の資本によって実行されるのに対し、 公共デザインは国民の税金によって実行される。した がって、産業デザインは効率を重視するのに対し、公 共デザインはより高いレベルの透明性と民主性が要求 される。デザインの指向価値を基準にすると、産業デ ザインは販売促進を目指すのに対し、公共デザインは 公共性と公益性の増進を目指す。

공공디자인은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처럼 디자인의 최종 결과물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디자인 활동과 목표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며 제품, 공간, 시각매체 등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공공을 위해 공익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활동 모두가 공공디자인이며, 따라서 공공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건축 등의 용어로 공공디자인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시장과 소비자를 지향하는 산업디자인과 대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의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산업디자인이 기업이라면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된다. 산업디자인은 기업의 자본에 의해 실행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된다. 디자인 지향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디자인은 판매촉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을 목표로 하다.

このため、産業デザインの成否は製品販売量、販 売収益などの指標で評価できる一方、公共デザイン の評価は比較的曖昧で難しいと言える。デザインの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受益者の観点から、一般的に産業デザインは 限 ら れ た 目 標 顧 客 を対象とするのに対し、公共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디자인은 시민과 デザインは市民のような幅広い人々を対象とする。し たがって、公共デザインにおいて利用者のニーズ及 び欲求の把握と収束の難しさが存在する。最後に、 公共デザインは産業デザインに比べ、デザイン活動 に法律などの制度的規制と支配を多く受ける。

따라서 산업디자인의 성패는 제품 판매량, 판매 수익 등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공공디자인의 평가는 수혜자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은 한정된 같은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이용자의 요구 및 욕구 파악과 수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디자인 활동에 법 등 제도적 규제와 지배를 많이 받는다.

表. 公共デザインと産業デザインの特徴の比較

	公共デザイン	産業デザイン	公共デザインの比較特性
実行主体	公共機関	民間企業	法と制度の基盤
目指す目標	公共性の向上	売上/収益の増加	評価の難しさ
コース	民主性、透明性	効率性	プロセス重視
受益者	国民/市民	ターゲット顧客/消費者	ニーズ把握の難しさ

표.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특징 비교

	공공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비교 특성
실행 주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과 제도의 기반
지향하는 목표	공공성 강화	매출/수익 증가	평가의 어려움
코스	민주주의, 투명성	효율성	프로세스 중시
수혜자	국가/시민권자	타겟 고객/소비자	니즈 파악의 어려움

このような「公共機関による公衆対象の公益性(公益 性)増進のための | 公共デザインは、最近のデザイン と社会文化の傾向を反映すると、次のような特性 が強化されている。

1) 参加のデザイン

公共デザインは国民の税金によって実行され、 国民と市民がデザインの利用者になるため、デザイ ン過程で国民の意見の収集、評価、管理などの参加が 등 공공디자인의 추세를 보면 시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重要である。ヨーロッパや日本などの公共デザイ ンの傾向を見ると、市民参加の幅が拡大し、方法が 高度化してい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公共デザイ ンは結果も重要だが、デザインの過と手順が非常に 重要である。公共デザインはプロセスと手続きが民 主的で、合理的で、透明でなければならない。公共デ ザインの利益を皆が共有できるよう公平性を持たな ければならない

2) 統合のデザイン

ザインの対象とする。しかし、日常で公共領域と民間 領域を明確に区別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例えば、 看板などの屋外広告物は民間の建物に取り付けられて いるが、都市景観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そのため、主 要都市では民間領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屋外広告 物に強力な規制政策を使用している。

이러한 '공공기관의 공공대상 공익성(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최근 디자인 및 사회문화적 경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1) 참여 디자인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실행되고 국민과 시민이 디자인의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평가, 관리 등 참여가 중요하다. 유럽이나 일본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의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디자인은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이익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2) 통합 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을 디자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일상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公共デザインは一般的に公共領域に属するものをデ 들어,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민간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만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요 도시에서는 민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先進国の場合、銀行、病院、学校、博物館、体育施設 などは民間施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公的機能を果 たすため、公共デザインの活用を奨励している。この ような理由から、これからの公共デザインは公的領域 と私的領域の効率的な調和と統合が必要である。公共 デザインが扱う領域は、建築、製品、視覚物、サービ ス、情報など既存のデザインのすべての領域を包括す る。したがって、公共デザインの事業と政策を遂行す るためには、異なるデザイン分野の専門家の協力が必 要である。デザイン対象や領域の拡大に伴い、公共デ ザインの活用には、デザイン分野以外にも工学、社会 学、人文科学など他分野との協力が拡大している。特 に、デザインが複雑多難な社会問題の解決に積極的に 活用され、社会と人を深く理解するために人文学的ア プローチが重視されている。

以下に、公共デザインの振興に関する法律を記す。 (韓国語訳は省略)

선진국의 경우 은행, 병원, 학교, 박물관, 체육시설 등은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효율적인 조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이 다루는 영역은 건축, 제품, 시각물, 서비스, 정보 등 기존 디자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디자인 대상과 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활용을 위해 디자인 분야 외에도 공학, 사회학, 인문학 등 타 분야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이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회와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어 번역은 생략)

公共デザインの振興に関する法律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略称:公共デザイン法)

[実施 2016.8.4] [法律第 13956 号 2016.2.3 制定] 文化体育観光部

(韓国語訳は省略)

第1章 総則

第1条(目的)

この法律は、公共デザインの文化的公共性と審美 性の向上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国家及 び地域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品格を高め、国民の文 化享受権を増大させること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 する。

第2条(定義)

この法律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公共デザイン」とは、一般公衆のために、国家、 地方自治体、「地方公企業法」に基づく地方公企業、 「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 | 第4条に基づく 公共機関(以下、「国家機関等」という。)が造成・ 製作・設置・運営又は管理する公共施設物等に対 して、公共性と美観向上のためにデザインする行 為及びその成果物をいう。

- 2. 「公共デザイン事業」とは、国家機関等が公共施 設物等の公共デザインを実現する過程で実施する 事業で、公共デザイン関連の企画・調査・分析・ 諮問・設計及び製作・設置・管理等をいう。
- 3. 「公共施設物等」とは、一般公衆のために国家機 関等が整備・製作・設置・運営又は管理する次の 各号の施設物と用品、視覚イメージ等をいう。
- ① 公共交通機関の停留所、自転車置き場などの公共 交通施設物。
- ② 車両進入防止用杭、フェンスなどの歩行安全施設
- ③ ベンチ、街路販売台、パーゴラ(pergola)などの便 官施設物。
- ④ マンホール、消火栓、信号機制御ボックスなど供 給施設物
- 街路樹保護帯、街路植木鉢、噴水など緑地施設物
- 案内標識板、懸垂幕掲示台、指定壁面板などの案 内施設物。
- ⑦ その他、仮木から棒木までの施設物に準ずる施設 物

第3条(国家及び地方自治体の責務)

国家及び地方自治体は、公共デザインの振興及び統合 管理のために必要な施策を樹立・施行し、必要な財源 の拡充と運営の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条(他の法律との関係)

公共デザインに関して他の法律に特別な規定がある場 合を除き、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2章 公共デザイン振興総合計画など 第5条(公共デザイン振興総合計画の策定等)

- 1.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公共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を経て、5年ごとに公 共デザイン振興総合計画(以下、「総合計画」という) を策定・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総合計画を第7条による公 共デザイン委員会の審議を経て確定・変更する。こ の場合、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確定・変更された 総合計画を地方自治体及び関係機関の長に通知し なければならない。
- 3. 総合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ていなけれ ばならない。
- ① 公共デザイン政策の基本目標と方向性に関する事項。

- ② 公共デザインの総合的・体系的な管理に関する 事項
- ③ 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の育成に関する事項
- ④ 公共デザイン関連法・制度に関する事項
- ⑤ 公共デザイン振興のための関連分野との協力及 び国民参加に関する事項
- ⑥ その他、公共デザインの振興に関する重要事項
- 4.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総合計画の効率的な樹 立・推進のために、地方自治体及び関係機関に関 連資料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資料の 提出を要請された機関は、特別な事由がない限り これ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 5.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総合計画の樹立・施行に 必要な公共デザインの現況について実態調査を 行うことができる。
- 6. 第1項による総合計画の樹立・施行、第4項によ る資料の提出及び第5項による実態調査の方法・ 手続きなど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6条(地域計画の策定等)

1.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及び 特別自治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は、

- 総合計画に基づき、地域条件を考慮した広域公共 デザイン振興計画(以下、「広域計画」という)を5 年ごとに策定・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 合、広域計画を策定しようとする市・道知事は、 事前に市長・郡守・区長(自治区の区長をいう。以 下同じ)の意見を聞いて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市長・郡守・区長は、総合計画及び広域計画に基 づき、地域の条件を考慮した地域公共デザイン振 興計画(以下、「市・郡・区計画」という)を別途に 策定・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長は、広域計画又 は市・郡・区計画(以下、「地域計画」という)を第 9条による地域委員会の審議を経て確定・変更す る。<改定 2023.3.21.>。
- 4. 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長が地域計画を策 定する場合、管轄地域の当該公共施設物を管理す る国家機関等の長は、地域計画の策定・施行に積 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長は、地域計画の 樹立・変更に関する事項を地域住民に知らせなけ ればならず、地域住民及び地域計画の樹立・変更 による利害関係者は、地域計画を樹立する地方自

- 治体の長に地域計画に含まれるべき事項につい て提案することができる。
- 6. 地域計画の樹立・施行、第5項による地域計画の 樹立に関する案内及び提案の処理等に必要な事 項は、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

第3章 公共デザイン委員会等 第7条(公共デザイン委員会の設置)

公共デザインの振興に関する次の各号の事項を審 議及び調整するため、文化体育観光部長官所属の公 共デザイン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置くこ とができる。

- ① 第5条第1項の規定による総合計画の策定に関 する事項。
- ② 第15条第2項の規定による推進協議体に対す る諮問に関する事項
- ③ 公共デザイン振興及び統合管理のための政策に 関する事項
- ④ 公共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の事業と活動支援に 関する事項
- ⑤ 公共デザイン関連法律・制度の改善に関する事項
- ⑥ その他、委員会が公共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に必

要であると認める事項

第8条(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

- 1. 委員会は委員長 1 人を含む 10 人以上 30 人以下 の委員で構成する。
- 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とする。
- ① 企画財政部、産業通商資源部、国土交通部及びそ 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関係中央行政機関の次官 級公務員。
- ② 公共デザイン関連分野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 富で、徳望のある人のうち、文化体育観光部長官 が委嘱する者。
- 3. 委員会は、所管事務を専門的に遂行するために分 科委員会を設置・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 4. その他、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 文化体育観光部令で定める。

第9条(地域委員会)

1. 地域計画の樹立・施行、第 15 条第 2 項による推 進協議体に対する諮問及びその他条例で定める 事項を審議するため、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 区長所属で地域の公共デザイン振興のための委 昌会(以下「地域委員会」という)を置く。

- 2. 地域委員会の委員の中には、公共デザインと関連 する分野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で、徳望のあ る者が含まれるものとする。
- 2. (委員長は文化体育観光部長官とし、委員は次の 3. その他、地域委員会の構成及び運営等に必要な事 項は、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

第4章 公共デザイン事業の推進等 第10条(公共デザイン事業実施の原則)

国家機関等の長は、公共デザイン事業を推進する際、 次の各号を基本原則とする。

- ① 公共の利益と安全を最優先に考慮し、美しく快適 な環境を造成するようにする。
- ②年齢、性別、障害の有無、国籍などに関係なく、 全ての人々が安全かつ快適に環境を利用できる デザインを目指す。
- ③ 国家・地域の歴史及びアイデンティティを表現し、 周辺環境と調和・バランスをとるようにする。
- ④ 公共デザインに関する国民の意見を積極的に収 集し、意思決定過程に国民が参加できる多様な方 案を用意する。
 - ⑤ 公共施設物などを管轄する関係機関と積極的な

協力体制を通じ、統合的な視点の公共デザインが 実現できるようにする。

⑥ その他、この法律で定めた事項に従うように努力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 11 条(公共デザイン業務)

- 1.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事業を効率的に推進 するため、公共デザイン事業の全部又は一部を公 共デザイン業務として発注することができる。
- 2. 公共デザイン業務契約を締結する場合、公共デザ イン業務の品質及び品格を保証するために適正 な業務対価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第2項による対価の算定 に必要な基準を定めて告示する。

第12条(公共デザイン業務への参加)

第 18 条による公共デザイン業務の専門遂行機関 と第 20 条による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を大統領令 で定める基準以上保有する機関、法人、団体等は、公 共デザイン業務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

第 13 条(提案書の補償)

1.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業務に関する契約を 締結する場合、落札者に決定されなかった者のうち、 提案書評価で優秀な評価を受けた者に対しては、予

算の範囲内で提案書作成費の一部を補償すること ができる。

2. 第1項による提案書補償の基準及び手続きなど必 要な事項は、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定めて告示する。

第 14 条(公聴会)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事業を推進する際に必 要な場合、公聴会を開催し、地域住民及び関係専門 家等の意見を聴取しなければならず、公聴会で提示 された意見が妥当で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公共デ ザイン事業の推進内容に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 15 条(推准協議体)

- 1.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事業を円滑に推進す るために必要な協力を得るために、地域住民、市 民団体、関連企業、関係専門家、行政機関などで 構成される公共デザイン事業推進協議体(以下 「推進協議体」という)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 2. 委員会又は地域委員会は、推進協議会の要請があ る場合、必要な諮問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推進協議会の構成及び運営など必要な事項は、大 統領令で定める。

第 16 条(専門家の参加)

1.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事業を推進する際、

- 専門家を委嘱して当該業務の一部を進行させた り、関連業務を総括して調整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第1項による専門家の資格・業務範囲及び報酬な ど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 17 条(専担部署の設置及び人材の配置)

国家機関等は、公共デザイン事業の円滑な実施のた めに専担部署を設置したり、必要な専門人材を配置 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章 公共デザイン振興の基盤造成 第 18 条(公共デザイン業務専門遂行機関の育成)

- 1. 国は、第 11 条による公共デザイン業務を専門的 に遂行できるように、次の各号の会社・機関・学 校及び団体を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支 援・育成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公共デザインに関する企画・調査・分析・開発・ 諮問などを専門とする会社で、文化体育観光部令 で定める基準に該当する会社(以下、「公共デザイ ン専門会社」という。)
- ② 「高等教育法」に基づく大学・産業大学・専門大 学・技術大学及び各種学校として公共デザイン関 連学科又は研究所などが設置された学校。

- ③ 研究機関として公共デザインに関する研究を行 う機関。
- ④ 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公共デザイン関連機関 または団体。
- 2. 公共デザイン専門会社は、文化体育観光部令で定 める要件と手続きにより、文化体育観光部長官に 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申告した事項を変更し ようとする場合も同様とする。
- 3.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第2項の規定による申告 又は変更申告を受けた日から 14 日以内に、申告 の受理又は変更申告の受理の可否を申告者に通 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第3項で定めた期間内に申 告の受理又は変更申告の受理の可否又は苦情処 理関連法令による処理期間の延長を申告者に通 知しない場合、その期間(苦情処理関連法令によ り処理期間が延長又は再延長された場合は、当該 処理期間をいう)が終了した日の翌日に申告又は 変更申告を受理したものとみなす。

第 19 条(専担機関の指定等)

1.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公共デザイン振興業務を 専担する機関(以下「専担機関」という)を指定す ることができる。

- 2. 専担機関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 ① 第20条による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の養成に関 する事業。
- ② 第 21 条による優秀公共デザインの選定に関する 1. 国と地方自治体は、文化的公共性と審美性に優れ 事業。
- ③ 公共デザインの振興に関する政策研究及び研究 2. 第1項による優秀公共デザインの選定・表彰のた 支援事業
- ④ 公共デザイン関連データベース構築事業
- ⑤ 公共デザインの価値拡散のための公共デザイン の試行事業、教育、広報
- 3. 国は、専担機関の運営等に必要な経費を支援する 国家及び地方自治体は、予算の範囲内で公共デザイ ことができる。
- 4. 専門機関の指定及び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 領令で定める。

第20条(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の養成)

- 門人材の養成のために、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に 関する基準を策定することができる。
- 2. 政府は、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の養成に関する産 2. 文化体育観光部長官及び地方自治体の長は、この 学協力と教育を奨励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専門人材の養成に活用す

るため、公共デザイン専門人材の実態を調査す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実態調査の範囲、方法、 手続きなど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21条(優秀公共デザインの選定等)

- た公共デザインを選定・表彰することができる。
- めの方法及び手続きなど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 で定める。

第6章 補則

第 22 条(国庫補助)

ンの振興を目的とする事業又は活動に対して必要な 経費の全部又は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条文体系図ボタン

第 23 条(権限の委任・委託)

- 1.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公共デザインに関する専 1. 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の一 部を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自治体 の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 法律によ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公共デザイン 関連団体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3.ソウル特別市の都市デザイン政策 「デザインソウルー

ソウル市オ・セフン(呉世勲)市長は2006年、機能と 効率中心、建設と産業など構造中心のハードウェア都 등 구조 중심의 하드웨어 도시(HARD CITY)를 문화-市(HARD CITY)を文化とデザイン、コンテンツ中心 のソフト都市(SOFT CITY)に切り替える政策パラ ダイムとして「デザインソウル1.0」を発表した。

HARD CITY ⇒ SOFT CITY

Hardware 中心 ⇒ Software中心

機能・効率中心 ⇒ 人間中心

自動車中心 ⇒ 歩行者中心

Fast 社会 ⇒ Slow 社会

物理的な開発・成長重視 ⇒文化・芸術・歴史重視

1) 「デザインソウル 1.0」の「22原則」

第1原則:ソウル、場所の「魂」をデザインする

第2原則:人間中心の都市、市民中心のソウルを作る。 제3원칙: 서울, 환경공생의 도시를 만든다.

第3原則:ソウル、環境共生の都市を作る。

第4原則:都市の位階と秩序を立つ。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정책

'디자인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기능-효율 중심, 건설-산업 디자인-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도시(SOFT CITY)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디자인 서울 1.0'을 발표했다.

HARD CITY ⇒ SOFT CITY

Hardware 센터 ⇒ Software센터

기능-효율 중심 ⇨ 인간 중심

자동차 중심 ⇨ 보행자 중심

빠른 사회 ⇨ 느린 사회

1) '디자인 서울 1.0'의 '22가지 원칙'

제1원칙 : 서울, 장소의 '영혼'을 디자인하다

제2원칙 : 인간중심의 도시,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든다.

제4원칙 : 도시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다.

ソウル都市デザイン条例:都市デザイン基本計画

第5原則:安全な都市を作る。

第6原則:接近性の高い都市を作る。

第8原則:ソウルの固有の印象を作って刻印させる。

第9原則:歴史と文化が生きているソウル。

第10原則:コンテンツ中心のSOFT CITYを作る。 제9워칙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서울, 제10워칙 :

第11原則:世界の都市としてのソウルを建設する。

第12原則:魅力のある都市ソウルを発掘する。

第13原則:都市の相互作用を高める。

第14原則:市民と市民、都市と市民のコミュニケーシ 제13원칙: 도시의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ョンをデザインする。

第15原則:市民参加のソウル。

第16原則:統合的で一貫したソウルを作る。 제15원칙: 시민참여의 서울.

第17原則:都市空間を簡潔できれいにデザインする。 제16원칙: 통합적이고 일관된 서울을 만든다.

第18原則:よく読められる都市ソウルを作る。

第19原則:市民のために健康な都市を作る。

第20原則:移動しやすいソウルをデザインする。

第21原則: Ubiquitous (どこにでもある、お馴染み

の)都市を志向する。

第22原則:ソウルを楽しい都市でデザインする。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제5워칙: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第7原則:「ソウルらしさ」をデザインする。 제6원칙: 접근성이 높은 도시를 만든다. 제7원칙:

'서울다움'을 디자인한다.

제8원칙 : 서울의 고유한 인상을 만들어 각인시킨다.

콘텐츠 중심의 SOFT CITY를 만든다.

제11원칙 : 세계 도시로서의 서울을 건설한다.

제12원칙 :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발굴한다.

제14원칙 : 시민과 시민, 도시와 시민의 소통을

디자인하다.

제17원칙 : 도시공간을 간결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한다.

제18원칙 : 잘 읽히는 도시 서울을 만든다.

제19원칙 : 시민을 위해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제20원칙 : 이동이 편리한 서울을 디자인한다.

제21원칙: Ubiquitous(어디에나 있는, 익숙한) 도시를

지향한다.

제22원칙: 서울을 즐거운 도시로 디자인한다.

今日、ソウル通りでおなじみの水平販売台、ベンチ、 歩道ブロック、ゴミ箱など多様な標準型公共施設や地 보도블록, 쓰레기통 등 다양한 표준형 공공시설물과 지하철 下鉄キャノピー、バス乗り場など交通施設は「デザイ ンソウル 1.0 | 推進当時開発、整備されたものだ。 以後、全国で初めて都市デザイン条例を制定('06.7)し、 조례 제정('06.7), 이듬해에는 부시장급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翌年にはブッシュ長級のデザインソウル総括本部組織 を発足('07.6)、デザインガイドライン制定('08.5)など 多様な法的・制度的基盤を設けた。

この努力の結実により、ソウルの都市デザインイン

フラが構築され、都市美観は画期的に改善され、これ はソウルのグローバル都市競争力を向上させた。 ラインを制定するなど、全国的に都市デザインブーム を起こして上位法人公共デザイン振興法制定('16.2)を 牽引した。 2008 年 13 位だったソウルのグローバル都 市競争力順位(日本森記念財団都市戦略研究所発表基 準) は 4 年連続上昇し、2012 年には 6 位まで上がっ た。

오늘날 서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판매대, 벤치, 캐노피,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은 '디자인서울 1.0' 추진 당시 개발, 정비된 것들이다. 이후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 조직 발족('07.6),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08.5)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의 도시디자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전국 117 개 지자체에서도 도시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全国 117 の自治団体でも都市デザイン条例及びガイド 도시디자인 붐을 일으켜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16.2)을 견인했다. 2008 년 13 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순위(일본 삼림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기준)는 4년 연속 상승하여 2012년에는 6위까지 올랐다.

2) 「デザインソウル2.0」の「22原則」

した。人間・文化・コンテンツ中心ソフトソウル(Soft Seoul)を標榜した既存 1.0 のデザイン哲学は、そのまま 引き続きながらもグローバルステンダードに合致した ソウルのデザイン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することで ソウルをグローバルトップ 5 都市競争力のデザイン都 市に牽引するという目標である。

このために市は「デザインソウル 2.0 | を裏付ける大 きな枠組みでの大原則として「共感」、「包容」、「貢 献」、「回復」、「持続可能なデザイン」の5原則を 立てた。まず、ソウルらしさに誇りと楽しさを感じる 「共感」デザインのため、自然緑地、水辺、歴史文化、 市街地、夜間、進入、屋外広告物など景観資源別推進戦 略を設ける。「2040 ソウル都市基本計画」と合わせて 変化した高さ管理政策を具体化する景観ガイドライン を樹立し、ソウルだ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生きてい る特化景観を作る。また、ソウルを「楽しい都市」にす るためのファンデザインを確立し、ソウルライト光化 門、DDP、漢江を市民に愛される祭りとして造成する とともに、関連メディア産業も育成する。

2) '디자인 서울 2.0'의 '22 가지 원칙'

ソウル市が「楽しい活力都市ソウル」を作るための 서울시가 '즐거운 활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서울 「デザインソウル 2.0 プロジェクト推進計画」を発表 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람-문화-콘텐츠 중심의 소프트 서울(Soft Seoul)을 표방한 기존 1.0 의 디자인 철학은 그대로 이어가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울을 글로벌 5 대 도시경쟁력 디자인 도시로 견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디자인 도시로 견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 이를 위해 시는 '디자인 서울 2.0'을 뒷받침하는 큰 틀의 대 원칙으로 '공감', '포용', '기여', '회복',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5가지 원칙을 세웠다. 먼저 서울다움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디자인을 위해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도심지, 야간, 진입, 옥외광고물 등 경관자원별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변화된 고도관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서울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특화경관을 만든다. 또한 서울을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팬디자인을 확립하고 서울빛광화문, DDP, 한강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조성하는 한편, 관련 미디어 산업도 육성한다.

次に、みんなが味わう「包容 | デザインを追求する。 これまでは生涯周期に合わせたなら、今後は子供から 大人まで一緒にできる世代融合型デザインを具現する。 地域住民、男女野荘すべてが楽しめる超世代遊び場デ ザインを作り、市民に優しい美術作品などを盛り込ん だ公共美術7大スポットを来る2027年まで造成する。 市民誰でも便利に利用できるようにソウル内の山と新 築公衆トイレに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を適用する。ペ ットの人口 1.500 万時代を迎え、ペットの利用が多い 公共空間、公共施設をペットと共存が可能なデザイン で満たす。

ソウル市と市民、企業が一緒に作る「貢献」デザイン も模索する。すべての行政にデザインの視点を適用す ることを目的として、効果的に検証されたライフデザ インタイプを自治区に広げるために、市自治区はデザ イン協力を強化します。企業と大学の社会環境活動を 支援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の役割のためにデザ イン交流を積極的に活性化する。さらに、釜山エキス ポ、順天湾国家庭園博覧会、国内ユネスコ創意都市と もデザイン、メディア分野で協力してデザイン交流に 努める。

다음으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 디자인을 추구한다. 지금까지는 생애주기에 맞췄다면 앞으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디자인을 구현한다. 지역주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초세대 놀이터 디자인을 만들고, 시민 친화적 미술작품 등을 담은 공공미술 7 대 명소를 오는 2027 년까지 조성한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산과 신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반려동물 인구 1.500 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공공공간, 공공시설을 반려동물과 공존 가능한 디자인으로 채운다.

서울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만드는 '기여' 디자인도 모색한다. 모든 행정에 디자인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검증된 생활디자인 유형을 자치구로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 간 디자인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과 대학의 사회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위해 디자인 교류를 적극 활성화한다. 또한 부산엑스포.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와도 디자인, 미디어 분야에서 협력하여 디자인 교류에 힘쓴다.

化する。ソウルをより安全な都市にするために、標準 型安全設計、災害予防安全設計、空間安全設計などを 継続的に拡大適用する。ソウル市民の身体と精神健康 のためにソウル型アクティブデザインを開発し、運動 弱者のための空間も造成する。

環境と経済を活かす「持続可能」デザインにも集中 する。企業と公共デザインを通じて ESG プログラムを 展開し、路地上圏にデザイン要素を加え、地域経済の 活性化に貢献する。ソウルデザイン産業の生態系づく りのためにネットワークを構成する一方、ソウル中小 企業の競争力を高めるために段階的支援(スタート・ メイキング・マーケティング)と随時支援(コンサルテ ィング、教育)を並行する。

このような内容を骨子とする[デザインソウル 2.0 プ ロジェクト推進計画」は、市民が日常で楽しんで安全 で活力あふれるソウルを作るという「アクティブソウ ル|をビジョンに5原則(共感・包容・貢献・回復・ 持続可能デザイン)以下 55 の詳細プロジェクト事業を 한국어 번역 생략) 中心に推進する。

(以下、韓国語訳は省略)

市民の安全と健康を担当する「回復」デザインを強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회복' 디자인을 강화한다. 서울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표준형 안전디자인, 방재안전디자인, 공간안전디자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민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해 서울형 액티브 디자인을 개발하고, 운동약자를 위한 공간도 조성한다.

>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도 집중한다. 기업과 공공디자인을 통해 ESG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골목상권에 디자인 요소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서울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서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지원(창업-제작-마케팅)과 수시 지원(컨설팅, 교육)을 병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서울 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든다는 '액티브 서울'을 비전으로 5대 원칙(공감-포용-기여-공헌-회복-지속가능 디자인) 아래 55개 세부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하

① ソウルらしさに誇りと喜びを感じる共感デザイン

山、川、街でソウル型景観とソウルアイデンティ ティ(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市民生活の近く で楽しむソウルファン(Fun)施設・空間開発・光フ エスティバル事業を推進する。

- **(2040 景観計画樹立)** 7 大景観資源別 (△自然緑 地景観、△水辺景観、△歴史文化景観、△市街地景 観、△夜間景観、△進入景観、△屋外広告物)保全・ 管理及び形成方向を提示し、今後ソウル市景観心の 運営及び景観上世計画など樹立指針として活用する。
- (リズム感のあるスカイライン形成誘導) また、最 近樹立された「2040ソウル都市基本計画およびソウ ル都心基本計画 | などにより変化した高さ管理政策 と整合性を合わせて具体化する景観ガイドラインを 設け、建物の色彩、材料、市民生活上と調和する建築 物の建設を誘導し、リズム感・開放感・経済軸が確保 された都市の連続した立体的スカイラインを形成す る計画だ。
- **(3有5無)** '3 有 5 無'とは平面、立面、空間を統合 デザインし(3 有)、不法建築物、不法家板台、不法立 看板、不法広告物、不法駐車(5無)のない快適な空間

を造成する事業だ。 '24 年公募を通じて5つの自治 区を選定、事業を推進する。

- (公共デザイン振興条例自治法規改正) 最近急変す る環境変化に積極的に対応しようとソウル市公共デ ザイン振興条例自治法規改正を通じてこれまで「公 共施設物」に限られていた公共デザイン審議範囲を 公共空間、視覚画像、新技術接木施設物、公共用品な どに拡大推進する。

夜間景観のためのソウル光を新規定立し、ソウル 色・ソウル書体 2.0 バージョンも新規開発する。ま た、ソウルを「楽しい都市」にデザインするためにフ ァン (fun) 空間や施設の開発を拡大し、ソウルライ ト光化門、DDPなどの光祭りを通じて都市夜間観光 コンテンツを強化する。

② みんなが一緒に味わう包容デザイン

既存の公共デザイン事業が子ども、青年、中長年、 大人など生涯カスタマイズ型を目指して推進した場 合、今後は多様な世代を包容、文化を融合して社会 葛藤を緩和することを目標に施設物、空間などを開 発する。

- **(超世代遊び場デザイン開発)** '24 年パイロット事 業を通じて優秀モデルとガイドラインを開発、'25年 から自治区公募を通じて全方位拡散する。
- (公共美術 7 大スポットの造成) 日常で誰でも芸 術と出会える市民に優しい美術作品を通じて都市空 間に想像力と活力を吹き込む公共美術を具現する。 特にソウルビジョン 2030、グレートハンガンプロジ ェクトと連携して 2027 年まで公共美術 7 大スポッ トを造成し、世界的な水準の競争力を備えた芸術都 市への成長足場を設ける。
- (ソウル山特化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ソウルに存 在する 67 山を誰でも安全で便利に楽しむことがで きるように「ソウル山特化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パイロット事業を推進する。山や森の道進入部及び 特定場所情報デザイン、便官・休憩施設の造成を通 じて、入口から頂上まで全てが快適に楽しめるよう にデザインする。
- (ソウル公衆トイレ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新築ソ ウル市公共建物設計時、男女同線分離などを反映し たソウル市公衆トイレ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ガイド ラインを開発し、今年9月に配布する。既存公衆ト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イレの場合、非常ベル・反射鏡など安心施設をまず 設置する。

ペットの人口 1500 万時代、国民 4 人のうち 1 人が ペットの社会現象を反映し、ペットと非ペットの人、 ペットと人が持続可能に共存できるように'24 年か ら公共空間と公共施設物(陰水台、ベンチ)などをデ ザインし、ソウル市全域に拡散・普及する予定だ。

③ 市民と企業が共に作る貢献デザイン

ソウル市は行政内部組織、自治区、企業、大学など を連結し、相互協力と参加・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 窓口機能をする「ソウルデザインX」という協力プ 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民選8機創意行政のエン ジンを本格稼動する。

デザイン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は、急速な政策環 境の変化と複雑さに応じた様々な領域間のコミュニ ケーションと融合が必須の時代的流れを反映し、デ ザインが持っている固有の属性である「創造」、「接 続 | 、「融合 | 機能をソウル市行政プロセスに移植し たのが主な特徴だ。

それぞれ別々の領域では、解決が難しい複雑な問 題を多様な利害関係者や専門家、市民との価値共有 と水平的な相互作用を通じて革新的な解決策を導き、 最終的に市民により多くの恩恵を提供するという趣 旨だ。

デザイン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政策企画 初期段階からソウル市各部署及び自治区、市民、専 門家利害関係者が参加・疎涌し共同デザインを推進 する。

政策決定過程が段階的に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 て公開され、多数の考えや専門知識、十分な調査分 析過程を通じて不確実性を減らし、多様な面で効果 的にアプローチし、最終成果物に対する市民満足度 を高める。

また、CSR、ESG に関心のある企業にも政策参加 の機会を提供し、社会全体にデザイン貢献文化を広 める。

ソウル市で開発した効果性が検証された既存 67 種類の生活デザイン事業の場合、自治区補助事業を 通じて全方位に拡散する。

市民の安全と健康を担当する回復デザイン

- ⑤ 子供、産業現場労働者などのための安全デザイン、 ソウル市民の身体的・精神的健康増進のためのア クティブデザインを開発・普及する。
- **(標準安全設計の拡散)** ソウル市は昨年の工事現場 での産業災害を予防する安全色や危険表示など安全 ピクトグラムデザインを 6 種を開発し、今年市発注 工事現場 62 カ所適用を皮切りに、来年からは市全体 発注工事現場に拡散適用する計画だ。また、工事場 の安全管理システムと連携して民間工事現場にも適 用を誘導する。
- (災害予防設計)ソウル市は昨年の大雨による半地 下住宅浸水被害の多数発生と関連し、今年の動作区 と瑞草区を試験自治区に指定、水害安全デザインを 開発する。
- **(アクティブデザインの開発)**また、運動弱者を含 む市民全員が健康で幸せな都市を作るソウル型アク ティブデザインを開発する。アクティブデザインは ニューヨークで肥満解決のために始まった都市建築 のガイドラインです。ソウル市は身体健康、精神健 康すべてのための公共空間及び施設物を開発、漢江 公園及び地下鉄歴史などに適用する。

⑥ 環境と経済を生かす持続可能なデザイン

企業と共に環境的に持続可能な公共施設物及び公 共空間を共同開発・普及し、路地上圏にデザイン要 素を加え、地域経済活性化を図る。

地域の生態環境に貢献しようとする企業と ESG 協 力関係を構築し、適正技術を融合した資源循環設計 を開発する。

潜在力を備えた路地商圏景観デザインの開発と支 援を通じて、ソウル代表ローカルブランドを育成し、 小商工人の自生力強化を支援する。

また技術と品質に優れたソウルの中小企業が創意 的なデザインで差別化された競争力を発揮できるよ う、デザイン産業の育成・支援事業を本格推進する。

デザイナー養成のための初期デザイン企業支援か ら中小企業のデザイン能力強化を助ける製品企画・ デザイン開発、マーケティング・販路開拓に至るま で、中小企業とデザイン専門企業が共生するコラボ レーションにより、中小企業の製品やサービスを改 善し、ソウルのグローバル競争力強化に一助すると いう趣旨だ。

事業内容は△中小企業産業デザイン開発、△小商 工人+デザイナーマッチング及びコラボレーション

新製品開発、△青年デザイナーDDPブランド商品 開発、△デザインスタートアップ育成(We Up Project)、△持続可能なデザイン製品・サービス販 路開拓支援だ。

4. ソウル特別市歩行権確保と歩行環境改善に関す る基本条例

ソウル市における大胆かつ積極的な歩行環境改善 の取り組みをみて思い出すのは、10年以上前に国土 交通省と厚生労働省の国土施策創発調査の一環で海 外における歩くまちづくりを調べた際に、ソウル市 において 1997 年 1 月に制定された「ソウル特別市 歩行権確保と歩行環境改善に関する基本条例」の存 在に驚いたことである。改めて確認してみると改定 を繰り返しつつ現在もこの条例は活きており、こう した都市空間整備や交通政策の理念的かつ制度的な バックボーンになっている。

以下は条文 (韓国語訳は省略)

第1条(目的)

この条例は、ソウル市民(以下「市民」という)の歩行 権確保と歩行環境改善に関する基本事項を定め、ソ ウル特別市(以下「市」という)が歩行環境施策を総合 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ことにより、安全で快適な 歩行環境を造成し、市民の歩行権を確保することを 目的とする。

第 2 条(定義)

この条例で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歩行権」とは、歩行者が安全かつ快適に歩くこと ができる権利をいう。

- 2. 「歩行環境」とは、歩行者の歩行と活動に影響を与 える物理的、感覚的、精神的側面とこれに関連する 制度などを含む総体的な環境をいう。
- 3. (削除 2009.11.11) 歩行弱者

第3条(基本責務)

① ソウル市長(以下「市長」という。)は、すべて の歩行者が歩きたくなり、歩きやすい都市にす るため、次のような基本責務を遂行する(改正 2009.11.11)

- 1.歩行権の確保に関する事項
- 2.歩行環境施設の維持管理に関する事項
- 3.歩行環境の改善に関する事項
- 4.歩行環境改善のための市民参加と協力に関す る事項
- 5. その他歩行権確保・歩行環境施設の維持管 理・歩行環境改善に必要な事項。
- ② 市長は、自治区の歩行環境改善施策の策定及び 改善事業を積極的に支援するよう努力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4条(市民の権利と義務)

- ① すべての市民は、安全で快適な歩行環境で生活 する権利を有する。
- ② すべての市民は、歩行権確保と歩行環境改善施 策の策定と推進に関する情報について知る権利 を有する。
- ③ すべての市民は、歩行環境改善事業に積極的に 参加し、協力する義務がある。

第5条(歩行環境改善基本計画の策定)

① 市長は、5 年ごとに歩行環境改善基本計画を策

- 定し、毎年年度別の施行計画を策定しなければ たらない
- ② 歩行環境基本計画には、「歩行安全及び便宜増進 に関する法律 | 第7条第2項及び同法施行令第 5 条各号で規定している内容が含まれていなけ ればならない。
- ③ 市長は、歩行環境基本計画を樹立したり、主要 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市民の意見 を十分に収集して反映する。<개정 2015.5.14> <개정 2015.5.14
- ④ 市長は、都市計画など歩行環境と関連する主要 計画が策定又は変更される場合には、歩行環境 基本計画を最大限反映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6条(造成基準の設定)

- ① 市長は、歩行環境を改善する際に遵守すべき歩 行環境造成基準を設定し、関連計画を策定して 交通施設の運営・管理等に適用しなければなら ない(改正 2009.11.11)
- 第1項の規定により、市長が歩行環境造成 (2) 基準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

2009.11.11, 2013.3.28, 2015.5.14> 1.

- 1.幹線道路の歩行環境改善に関する事項。 第8条(権限の委任)
- 2.学校通学路の改善に関する事項
- 3.裏面道路の改善に関する事項
- 4.観光及び商店街密集道路など歩行者の通行が多 第9条(施行規則)
- い区域の歩行環境改善に関する事項
- 5.歩道の整備に関する事項
- 6.横断歩道の設置・整備に関する事項
- 7.公共交通機関と連携した歩行環境改善に関する 事項
- 8.車のない通りの整備に関する事項
- 9.広い交差点の改善に関する事項
- 10. 『道路交通法』第2条による歩道及び歩行者専 用道路の禁煙環境づくりに関する事項
- 11.その他歩行環境の改善に関する事項

第2項各号の事項を反映した具体的な歩行環境造 成基準は規則で定める。(新設 2009.11.11)

第7条(財政支援など)

① 市長は、歩行環境改善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かか る財政上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検討して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定 ② 市長は、自治区の歩行環境改善事業にかかる費用 の一部を予算の範囲内で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市長は、この条例の規定による権限の一部を区長に 委任して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条例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5. 韓国における景観行政と景観法

韓国において美しい国土の実現に向けた法的根拠 として 2007 年「景観法」が制定された。韓国の景 観法は「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という 国土の基本的な空間環境管理の法制度と緊密に連携 している。都市デザインと景観に対する関心が増大 し、2013 年景観法が改訂された。改訂景観法は景 観計画、景観事業等7章で構成されている。韓国景 観法の特徴は中央政府主導で法律が先に制定され、 自治体に景観行政を「勧奨」する形で進められてい る。規制緩和の動きの中で、景観に関する多様な規 制に対する社会的合意形成には多くの課題があり、 景観法の構造的限界も指摘されている。

日本において「景観法」が制定されたのが 2004 年 6月で、これを機に「屋外広告物法」、「都市緑地保 全法」も改正され景観緑三法と呼ばれている。都市 部の景観や緑を保全・創出するための基礎的な法律 であるが、これと比較して韓国の取り組みは、韓国 の都市部の景観や緑の保全、創出を目的とした現行 목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の制度は主なもので三つある。

5. 한국의 경관행정과 경관법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국토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2007 년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토의 기본적인 공간환경관리 법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도시 디자인과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3 년 경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 7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경관법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로 법이 먼저 제정되고 지자체에 경관행정을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많은 과제가 있으며, 경관법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관법'이 제정된 것은 2004 년 6 월이며, 이를 계기로 '옥외광고물법', '도시녹지보전법'도 개정되어 경관녹지 3 법이라고 불린다. 도시부 경관과 녹지를 보전-창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인데, 이에 비해 한국의 노력은 한국의 도시부 경관과 녹지 보전, 창출을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以後、国土 計画法) | 、「都市公園及び緑地などに関する法律 (以後、公園緑地法) | 、「景観法 | がそれであり、 それぞれは日本の「都市計画法」、「都市緑地法」、 「景観法」にほぼ相当する法制である。類似した日 本の法律が少なからず影響している。

以下、法令 (韓国語訳は省略)

景観法

施行 2019. 3. 14.] [法律第 15460 号、2018. 3. 13.、 他法改正] [施行 2019.3.14.

国土交通部(建築文化景観課), 044-201-3779, 3781

第1章 総則

第1条(目的) この法律は、国土の景観を体系的に管 理するため、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成に必要な事 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美しく、快適で、地域特性が 現れる国土環境と地域環境の造成に寄与することを 目的とする。

第2条(定義) この法律で使用する用語の意味は次の とおりであ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경관법'이 그것인데, 각각 일본의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경관법'과 거의 유사한 법제이다. 유사한 일본 법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법령 (한국어 번역은 생략)

- 1. 「景観」とは、自然、人工要素及び住民の生活相な どで構成される一団の地域環境的特徴を示すもの をいう。
- 2.「建築物」とは、「建築法」第2条第1項第2号に よる建築物をいう。
- 第3条(景観管理の基本原則) 景観は、次の各号の原 則に基づいて計画され、管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国民が美しく快適な景観を享受できるようにする こと。
- 2.地域の固有の自然・歴史及び文化を明らかにし、地 域住民の生活及び経済活動との緊密な関係の中で、 地域住民の合意を通じて良好な景観が維持される こと。

- 3.各地域の景観が固有の特性と多様性を持つことが できるよう、自律的な景観行政運営方式を推奨し、 地域住民が主体的に参加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4.開発に関連する行為は、景観と調和及びバランス をとるようにすること。
- 5.優れた景観を保全し、損なわれた景観を改善・復元 すると同時に、新たに形成される景観は個性的な 要素を持つように誘導すること。
- 6.国民の財産権を過度に制限しないようにし、地域 間の公平性を考慮すること。

第4条(国及び地方自治体等の責務)

- 1) 国及び地方自治体は、美しく快適な景観を形成す 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設け、優秀な景観を発掘して 支援・育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国及び地方自治体は、景観管理の基本原則に対す る国民の理解を高め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国民は、美しく快適な景観を保全し、改善するた めに、国及び地方自治体の施策に積極的に協力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5条(他の法律との関係) 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 成などに関し、他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

除き、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2章 景観計画

第6条(景観政策基本計画の策定など)

- 1) 国土交通部長官は、美しく快適な国土景観を形成 し、優秀な景観を発掘して支援・育成するため、景 観政策基本計画を 5 年ごとに策定・施行しなけれ ばならない。
- 2) 景観政策基本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 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 1.国土景観の現況及び環境変化の見通しに関する 事項。
- 2.景観政策の基本目標と望ましい国土景観の未来 像の策定に関する事項。
- 3.国土景観の総合的・体系的な管理に関する事項。
- 4.社会基盤施設の統合的な景観管理に関する事項
- 5.優れた景観の保全及びその支援に関する事項
- 6.景観分野の専門人材の育成に関する事項
- 7.地域住民の参加に関する事項
- 8.その他景観に関する重要事項
- 3) 国土交通部長官は、景観政策基本計画を策定する 際、「農漁業者の生活の質の向上及び農漁村地域開

発促進に関する特別法 | 第5条第1項による農漁 業者の生活の質の向上及び農漁村地域開発基本計 画など景観に関連する計画と連携するようにしな ければならない。

- 4) 国土交通部長官は、景観政策基本計画を策定又は 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環境部長官など関係中 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公聴会等を経て意見を聴 取した後、第29条第1項により国土交通部長官の 所属で設置する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 らない。
- 5) 国土交通部長官は、景観政策基本計画を策定した 場合、これを官報又は国土交通部の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に公告し、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次 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改正 2015.7.24.
- 1.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市長・道知事・特別自治 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
- 2.市長「「済州特別自治道設置及び国際自由都市造成 のための特別法 | 第10条第2項の規定による行政 市の市長(以下「行政市長」という)は除く。以下同 じ]・郡守(広域市の管轄区域にある郡の郡守は除く。 以下同じ)

- 3.行政市長
- 4.区長(自治区の区長をいう。以下同じ)及び広域市の 郡守(以下「区長等」という。)
- 5. 「経済自由区域の指定及び運営に関する特別法」第 27条の2第1項の規定により設置される行政機構 (以下「経済自由区域庁」という)の長(以下「経済自 由区域庁長 | という)

第7条(景観計画の策定権者及び対象地域)

- 1) 次の各号の者は、管轄区域について景観を保全・ 管理及び形成するための計画(以下、「景観計画」とい う)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5.7.24.
- 1.市・道知事
- 2.人口 10 万人を超える市[「済州特別自治道設置及 び国際自由都市造成のための特別法 | 第 1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行政市(以下、「行政市」という。以 下同じ]の市長。
- 3.人口 10 万人を超える郡(広域市の管轄区域にある 郡を除く。以下、この条第2項及び第4項で同じ) の郡守。
- 2) 人口 10 万人以下の市・郡の市長・郡守、行政市 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域庁長は、管轄区域に対

して景観計画を策定することができる。

- 3)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市 長・郡守、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域庁長 は、二つ以上の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 市・郡・区(自治区をいう。以下同じ)、行政市又は 経済自由区域庁の管轄区域にまたがる地域を対象 に共同で景観計画を策定することができる。
- 4) 道知事は、市長・郡守が要請したり、その他必要 と認める場合には、二つ以上の市又は郡の管轄区域 にまたがる地域を対象に景観計画を策定すること ができる。

第8条(景観計画の樹立の提案)

- 1) 住民(景観計画の樹立による利害関係者を含む) は、第7条により景観計画を樹立することができ る者に提案内容を添付して景観計画の樹立を提案 することができる。
- 2) 第2項により景観計画の策定を提案された者は、 その処理結果を提案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 第1項及び第2項に規定した事項のほか、 景観計画の提案、提案書の処理等について必要な事 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9条(景観計画の内容)

- 1) 景観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ていなけ ればならない。ただし、道知事が策定する景観計画 には第 4 号から第 11 号までの事項を省略すること ができ、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 治道知事、市長・郡守、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 由区域庁長が策定する景観計画には第5号から第9 号まで及び第 11 号の事項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17.4.18.
- 1.景観計画の基本方向及び目標に関する事項
- 2.景観資源の調査及び評価に関する事項
- 3.景観構造の設定に関する事項
- 4.重点的に景観を保全・管理及び形成すべき区域(以 下「重点景観管理区域」という。)の管理に関する 事項
- 5. 「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37条第1 項第1号による景観地区(以下「景観地区」という) の管理及び運用に関する事項
- 6.第16条による景観事業の推進に関する事項。
- 7.第19条による景観協定の管理及び運営に関する事 項。
- 8.景観管理の行政体系及び実践方案に関する事項。

- 9.自然景観、市街地景観及び農山漁村景観など特定 の景観の種類又は建築物、街路、公園及び緑地など 特定の景観要素の管理に関する事項
- 10.景観計画の実施のための財源調達及び段階的推 進に関する事項。
- 11.その他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成に関する事項で、 当該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事項。
- 2) 景観計画が既に策定されている特別市・広域市・ 特別自治市・特別自治道(以下「市・道」という)の 管轄区域で策定する市・郡・区・行政市・経済自由 区域庁の景観計画は、当該市・道の景観計画に適合 しなければならず、市・郡・区・行政市・経済自由 区域庁の景観計画の内容と市・道の景観計画の内容 が異なる場合は、市・道の景観計画が優先する。
- 3) 市・道知事、市長・郡守、行政市長、区長等又は 経済自由区域庁長(以下「市・道知事等」という)は、 景観計画を樹立する場合には、既に樹立された他の 法律による景観関連計画に適合させなければなら ず、景観計画が樹立された後に他の法律による景観 関連計画を樹立する場合には、既に樹立された景観 計画に適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4) 景観計画は、都市・郡基本計画(「国土の計画及び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利用に関する法律 | 第2条第3号による都市・郡 基本計画をいう。以下同じ)に適合しなければなら ず、景観計画の内容と都市・郡基本計画の内容が異 なる場合は、都市・郡基本計画が優先する。

5) 国土交通部長官は、景観計画の樹立基準等に関し、 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係中央行政機関 の長と共同で定め、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条(景観計画の樹立又は変更のための基礎調査)

市・道知事等は、景観計画を樹立又は変更しようと する場合に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景 観計画の樹立又は変更に必要な事項を調査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景観計画の樹立又は変更に必 要な事項について他の法令により調査した結果があ る場合には、その調査結果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

第11条(公聴会及び地方議会の意見聴取)

1) 市・道知事等は、景観計画を樹立又は変更しよう とする場合には、事前に公聴会を開催し、住民及 び関係専門家等の意見を聴取し、公聴会で提示さ れた意見が妥当で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景観計 画に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1項の規定による公聴会の開催に必要な事項は、 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地方自治体の 条例で定める。
- 3) 市・道知事等は、景観計画を策定又は変更しよう とする場合には、当該地方議会(行政市及び経済自 由区域庁の場合には、行政市及び経済自由区域庁が 所属する地方自治体の議会をいう。以下、この項で 同じ)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 地方議会は特別な事由がない限り30日以内に意見 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期限内に意見を提出 しなければ意見がないものとみなす。
- 4) 道知事は、第7条第4項の規定により景観計画を 樹立又は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関係市長・郡 守の意見を聞くために期限を明示し、景観計画案を 関係市長・郡守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 4 項の規定により景観計画案を受け取った市 長・郡守は、明示された期限までにその景観計画案 に対する意見を道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そ の期限内に意見を提出しなければ意見がないもの とみなす。

第 12 条(景観計画の策定手続き)

- 1) 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は、景観計画を策定又 は変更する場合には、環境部長官など関係行政機関 の長と事前に協議した後、第29条第1項の規定に より、当該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の所属で設置 する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1項の規定により協議を要請された関係行政機 関の長は、特別な事由がない限り、その要請を受け た日から30日以内に意見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 その期間内に意見を提出しなければ協議が行われ たものとみなす。
- 3) 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は、景観計画を樹立又 は変更した場合には、関係行政機関の長に関係書類 を送付し、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告し、 住民が閲覧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条(景観計画の承認)

- 1) 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域庁長は、第7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景観計画を樹立又は変更す るに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管轄市・ 道知事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2) 市・道知事は第1項の規定により景観計画を承認

するには、環境部長官など関係行政機関の長と事前 に協議した後、第29条第1項の規定により当該 市・道知事所属で設置する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 ければならない。

- 3) 市・道知事は、景観計画を承認すると、関係行政 機関の長及び当該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 域庁長に関係書類を送付しなければならず、関係書 類を受け取った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域 庁長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告し、住 民が閲覧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2項による協議については、第12条第2項を 準用する。

第 14 条(景観地区の指定及び管理)

- 1) 市・道知事等は、景観計画に基づいて景観地区を 指定したり、指定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 合、景観地区の指定手続き等は「国土の計画及び利 用に関する法律 | 第37条による。<改正2017.4. 18.
- 2) 景観計画を策定した市・道知事等は、景観地区を 景観計画に基づい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 正 2017. 4. 18.

第 15 条(景観計画の整備)

第7条により景観計画を策定した者は、5年ごと に同条による景観計画についてその妥当性を再検討 して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章 景観事業

第 16 条(景観事業の対象など)

- 1)中央行政機関の長又は市・道知事等は、地域の景 観を向上させ、景観意識を高めるため、景観計画が 策定された地域で次の各号の事業(以下「景観事業」 という)を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
- 1.街路環境の整備及び改善のための事業
- 2.地域の緑化に関連する事業。
- 3.夜間景観の形成及び整備のための事業
- 4.地域の歴史的・文化的特性を持つ景観を生かす事 業。
- 5.農山漁村の自然景観及び生活環境を改善する事 業。
- 6.その他、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成のための事業 として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事業。
- 2) 第1項の規定により景観事業を施行できる者以 外の者は、景観計画が策定された地域で関係中央行

政機関の長又はその景観計画を策定した市・道知事 等の承認を受け、景観事業を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景観事業の施行を承認受けようとする者 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中央行政機関 の長又は市・道知事等に事業計画書を提出しなけれ ばならない。

3) 第2項の規定による承認申請を受けた中央行政 機関の長は、景観事業の施行を承認する前に、大統 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29条第1項の規定 により国土交通部長官の所属で設置する景観委員 会又は承認申請を受けた中央行政機関の長の所属 で設置する景観に関する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 ばならず、市・道知事等が景観事業の承認申請を受 けた場合には、景観事業の施行を承認する前に、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当該市・道知事等の所属 で設置する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

第 17 条(景観事業推進協議会)

1) 中央行政機関の長又は市・道知事等は、景観事業 を円滑に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地域住民、市 民団体、関係専門家等で構成される景観事業推進協 議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 2) 景観事業推進協議会は、景観事業の計画樹立、景 観事業の推進及び事後管理など景観事業の各段階 に参加し、景観事業が一貫性を維持するように努力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景観事業推進協議会の組織・運営及び業務などに 関し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4) 第 18 条(景観事業に対する財政支援など) ① 国 及び地方自治体は、第16条第1項及び第2項によ る景観事業に必要な資金の全部又は一部を補助又 は融資することができ、景観事業に必要な技術支援 を行うことができる。
- 5) 中央行政機関の長又は市・道知事等が必要と認め るときは、景観事業を施行する者に対し、監督に必 要な報告をさせたり、資料の提出を命じることがで きる。

第4章 景観協定

第 19 条(景観協定の締結)

1) 土地所有者と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者(以下 「土地所有者等 | という。)は、全員の合意により、 快適な環境と美しい景観を形成するための協定(以

下「景観協定」という。)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景観協定の効力は、景観協定を締結した 土地所有者等にのみ及ぶ。

- 2) 一団の土地又は一つの土地の所有者が 1 人であ っても、その土地の所有者は、当該土地の区域を景 観協定の対象地域とする景観協定を定めることが できる。この場合、その土地所有者1人を景観協定 の締結者とみなす。
- 3) 土地所有者等は、第1項の規定により景観協定を 締結(第2項の規定により土地所有者1人が景観協 定を定め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する場合、次の 各号の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この法律及び関係法令に違反しないこと。
- 2. 「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2条第6 号による基盤施設の立地を制限する内容を含まな いこと。
- 4) 景観協定は、次の各号の事項を含むことができる。 <改正 2016.1.6.
- 1.建築物の意匠・色彩及び屋外広告物(「屋外広告物 等の管理と屋外広告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 | 第2 条第1号による屋外広告物をいう)に関する事項 2.工作物[「建築法」第83条第1項により特別自治

- 道知事又は市長・郡守(広域市の管轄区域にある 郡の郡守を含む。以下、第27条第4項及び第28 条第3項で同じ)・区長に申告して築造する工作 物をいう。以下同じ]及び建築設備(「建築法」第 2条第1項第4号による建築設備をいう)の位置 に関する事項。
- 3.建築物及び工作物等の外部空間に関する事項。
- 4.十地の保全及び利用に関する事項
- 5.歴史・文化景観の管理及び造成に関する事項。
- 6.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事項
- 5) 土地所有者等が景観協定を締結する場合には、景 観協定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ず、景観協定書には 次の各号の事項を明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景観協定の名称
- 2.景観協定の対象地域の位置及び範囲
- 3.景観協定の目的
- 4.景観協定の内容
- 5.第1項の規定により景観協定を締結する者(以下 「協定締結者」という。)及び第20条第1項の規 定による景観協定運営会議の氏名・名称及び住所
- 6.景観協定の有効期間
- 7.景観協定に違反した場合の制裁に関する事項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8.その他、景観協定に必要な事項として当該自治体 の条例で定める事項。

第20条(景観協定運営会の設立)

- 1)協定締結者は、景観協定書の作成及び景観協定 の管理等のために必要な場合、協定締結者間の自律 的な組織として運営会(以下「景観協定運営会」と いう)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 2) 景観協定運営会を設立するには、協定締結者の過 半数の同意を得て、景観協定運営会の代表者及び委 **員を選任し、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 市・道知事等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条(景観協定の認可)

- 1) 協定締結者又は景観協定運営会議の代表者は、景 観協定書を作成し、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市・道知事等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認可申請を受けた市・道知事等は、認可を する前に第29条第1項の規定により、当該市・道知 事等の所属で設置する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 ばならない。
- 2) 市・道知事等は、第1項の規定により景観協定を

認可したとき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内容を公告し、住民が閲覧できるように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 22 条(景観協定の変更)

景観協定の変更については、第19条及び第21条 を準用する。ただし、大統領令で定める軽微な事項 を変更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 23 条(景観協定の廃止)

- 1) 協定締結者又は景観協定運営会議の代表者は、景 観協定を廃止しようとする場合、協定締結者の過半 数の同意を得て、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市・道知事等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2) 景観協定の廃止については、第21条第2項を準 用する。

第24条(景観協定の遵守及び承継)

1)景観協定の対象となる区域で第 19 条第 4 項各号 の事項に該当する行為をしようとする協定締結者 は、第21条及び第22条により認可された景観協 定の内容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景観協定が第21条第2項の規定により公告され た後、景観協定の対象となる区域で協定締結者であ る土地所有者等から権利を移転又は設定された者 のうち、大統領令で定める者は、協定締結者として の地位を承継する。ただし、景観協定で別段の定め がある場合は、それに従う。

第 25 条(景観協定に関する支援)

- 1) 市・道知事等は、景観協定書の作成等の助言に対 する回答など、景観協定に関する技術的・財政的支 援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協定締結者又は景観協定運営会議の代表者は、景 観協定に必要な費用等を支援受けようとする場合、 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等に事 業計画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章 社会基盤施設事業等の景観審議 第26条(社会基盤施設事業の景観審議)

1)「建設技術振興法」第2条第6号の規定による発 注庁(以下、この条で「発注庁」という)は、次の各 号の社会基盤施設事業で大統領令で定める規模以 上の事業を実施しようとする場合、大統領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第29条第1項の規定による景観 委員会(以下、この章で「景観委員会」という)の審 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8.3.13.

- 1. 「道路法」による道路
- 2. 「鉄道の建設及び鉄道施設の維持管理に関する法 律 による鉄道施設。
- 3.「都市鉄道法」に基づく都市鉄道施設
- 4. 「河川法」に基づく河川施設
- 5.その他、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施設
- 2) 第2項による景観委員会の審議基準は、環境関係 法律による環境性評価と重複しないように国土交 通部長官が環境部長官と協議して告示する。
- 3) 第3項にもかかわらず、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発注庁が構成した景観に関する委員会の審 議を経た場合、景観委員会の審議を受けない。この 場合、発注庁は審議結果を 15 日以内に当該景観委 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7条(開発事業の景観審議)

1)「都市開発法」第2条第1項第2号による都市開 発事業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開発事業を施行しよ うとする者は、開発事業による地区の指定や事業計

画の承認などを受ける前に、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1項の規定による景観委員会の審議基準は、環 境関係法律による環境性評価と重複しないように 国土交通部長官が環境部長官と協議して告示する。
- 3) 第1項の開発事業のうち、大統領令で定める規模 以上の開発事業を施行しようとする者は、次の各号 の事項を含め、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前 景観計画を策定し、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 ならない。ただし、開発事業の計画に次の各号の事 項が含まれている場合には、事前景観計画を策定し たものとみなす。
- 1.景観計画の基本方向及び目標に関する事項。
- 2.周辺地域の景観の現況に関する事項。
- 3.景観構造の設定に関する事項
- 4.建築物、街路、公園及び緑地など主要景観要素を 通じた都市空間構造の立体的な基本構想に関する 事項
- 4) 第3項の規定により事前景観計画を樹立(同項各 号以外の部分但し書きにより事前景観計画を樹立 したものとみなす場合を含む)して景観委員会の審 議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優れた景観を創出するた

めに必要な場合、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長 に「建築法」第71条第1項の規定による特別建築 区域の指定申請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 特別建築区域の指定申請を要請された市・道知事又 は市長・郡守・区長は、特別な理由がなければ要請 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 28 条(建築物の景観審議)

- 1)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建築物を建築し ようとする者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景 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 1.景観地区の建築物(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 る建築物は除く)
- 2.重点景観管理区域の建築物で、当該地方自治体の 条例で定める建築物。
- 3.地方自治体、「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に よる公共機関又は「地方公企業法」による地方公企 業が建築する建築物で、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 める建築物。
- 4.その他、管轄地域の景観管理のために必要な建築 物で、当該地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建築物。
- 2) 第2項による景観委員会の審議基準は、環境関係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法律による環境性評価と重複しないように国土交 通部長官が環境部長官と協議して告示する。

- 3) 第1項第1号及び第2号に該当する建築物を建 築しようとする者は、優れた景観を創出するために 必要な場合、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建 築法 | 第 42 条、第 55 条、第 58 条、第 60 条及び 第 61 条の基準を緩和して適用することを特別市 長・広域市長・特別市長・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 郡守・区長(以下、この条で「許可権者」という。) に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3項の許可権者は、「建築法」第4条による建 築委員会の審議を経て、当該基準の緩和の可否と適 用範囲を決定し、その結果を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 ばならない。
- 5) 第3項及び第4項による基準の緩和要請及び決 定の手続き、その他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6章 景観委員会

第29条(景観委員会の設置)

1) 景観に関連する事項に対する審議又は諮問のた め、国土交通部長官又は市・道知事等の所属で景観 委員会を置く。ただし、景観委員会を設置・運営す

ることが困難な場合には、大統領令で定める景観に 関する委員会がその機能を行うことができる。

- 2) 市長・郡守、行政市長、区長等又は経済自由区域 庁長は、別の景観委員会を構成せず、当該地方自治 体(行政市及び経済自由区域庁を含む)が属する市・ 道に設置された景観委員会で審議するよう市・道知 事に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 3) 国土交通部長官又は市・道知事等は、景観に関す る事項の審議が必要な場合、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他の法律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委員会と 第1項の規定による景観委員会(同項ただし書によ り景観委員会の機能を代わって行う景観に関する 委員会を含む。以下同じ)が共同で行う審議を経る ことができる。

第30条(景観委員会の機能)

- 1) 景観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 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 1.第 12 条による景観計画の樹立又は変更。
- 2.第13条による景観計画の承認。
- 3.第 16 条による景観事業実施の承認。
- 4.第 21 条による景観協定の認可

- 5.第 26 条による社会基盤施設事業の景観審議
- 6.第27条による開発事業の景観審議
- 7.第28条による建築物の景観審議
- 8.その他、景観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事項として大 統領令で定める事項。
- 2) 国土交通部長官又は市・道知事等が景観委員会に 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 る。ただし、第3号及び第4号は、市・道知事等に のみ該当する。
- 1.景観計画に関する事項
- 2.景観事業の計画に関する事項
- 3.景観に関する条例の制定及び改正に関する事項。
- 4.その他景観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事項で、当該地 方自治体の条例で定める事項。

第31条(景観委員会の構成・運営)

この法律で定めるもののほか、景観委員会の構成・ 運営に関する事項及びその他必要な事項は、大統領 令で定める。

第7章 補則

第32条(人材の養成及び支援)

- 1) 国及び地方自治体は、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成 を促進するため、専門人材の養成及び教育、優秀な 景観の発掘及びそれによる褒賞など必要な支援を 行うことができる。
- 2) 国は、地方自治体に地域の開発又は整備事業に必要な費用を支援する場合、景観の保全・管理及び形成のための計画又は実績が優秀な地方自治体を優先的に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第33条(景観管理情報システムの構築・運営)

- 1) 国土交通部長官又は市・道知事等は、景観計画の 樹立、景観審議など景観管理を効率的に行うため、 景観管理情報システムを構築・運営することができ る。
- 2) 国土交通部長官又は市・道知事等は、景観管理情報システムを通じて景観資源の現況、景観事業の内容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事項を関係機関及び一般国民に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1項及び第2項で規定した事項のほか、景観管理情報システムの構築・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大

統領令で定める。

以下省略

国吉 直行 Naoyuki KUNIYOSHI アーバンデザイナー Urban Designer

2.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 10 年と韓国都市デザインの現在地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 10 년과 한국 도시디자인의 현주소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はより具体的な議論の場に

昨年 2023 年開催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は、これまでの交流会とは異なる、具体的な場所を題材とした事例発表と意見交換の場となりました。特にウィジョンブ市では、市側からあらかじめ、①駅周辺の歩行者空間の整備と質の向上、②米軍基地返還跡地の文化発信拠点などとしての活用 についての議論を期待されたことを軸に組み立てられ、対象地区のまち歩きと具体的な提案を行う交流会議となった。今後の交流会の議論のあり方を示す場となった。

また、3日目(自由参加)のソウル市及び1日目のインチョン市では、日本都市よりも先を行く都市デザイン実践事例を多く体感し、日本側からの参加者の多くは、大きな刺激を受けたようであった。

◆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のスタート

昨年の日韓交流会(6月1,2日、インチョン市、ウィジョンブ市で開催)は、両国の交流を開始して10年目の記念となる大会となった。この交流は、2015年の鎌倉市、横浜市での開催が第1回であるが、韓国側協力団体 PUDA 代表のイソクヒョンさん(中央大学教授)は、景観文化 vol.60(2023.09発行)誌面で「2014年、日本の都市デザイン専門家達のソウル訪問がきっかけとなって始まった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は今年で10周年となった」と述べています。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 2023 년 개최된 한일도시디자인교류회는 지금까지의 교류회와는 달리 구체적인 장소를 주제로 한 사례발표와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위정시에서는 시 측에서 사전에 ①역 주변 보행공간 정비와 질적 향상, ②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문화발신 거점 등으로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상지역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교류회의가 되었다. 향후교류회의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3 일차(자유참가)의 서울시 및 1 일차 인천시에서는 일본도시보다 앞서가는 도시디자인 실천사례를 많이 체감하여 일본 측 참가자 대부분이 큰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 시작

지난해 한일교류회(6 월 1,2 일, 인천시, 위정시에서 개최)는 양국의 교류를 시작한 지 10 년째를 기념하는 대회였다. 이 교류는 2015 년 가마쿠라시, 요코하마시에서의 개최가 1 회인데, 한국측 협력단체인 PUDA 의 이소현 대표(중앙대 교수)는 조경문화 vol.60(2023,09 발행) 지면을 통해 "2014 년 일본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도시디자인 교류회가 올해로 10 주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ョンさんなど韓国の先駆的都市デザインの専門家達か らの要請により、韓国各地からの要請により、助言を 求められることが多くなりました。吉田さんは主に環 境色彩についてその領域の専門家団体等から、私はソ ウル近郊のシフン市やスウォン市など、行政活動とし て都市デザインに力を入れたいと考えていた都市から、 幾度か助言や講演を要請され訪問しました。そういっ た中で、イさんは PUDA (より良い都市デザインフォ ーラム)という都市デザインの専門家団体を立ち上げ ました。そして、その後のPUDA主催のアーバンデザ インフォーラムに吉田さんや私が参加したことがきっ かけとなり、2015年の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発足と なったようです。

◆各年の開催概要

□2015 日本

町並み景観づくり、横浜では、都市デザイン室が推進 役を担っている総合的な都市デザイン行政を話題とし 도시디자인 행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관문화 vol.32) ました。 (景観文化 vol.32)

2010 年代初めから、吉田愼悟さんや私は、イソクヒ 2010 년대 초부터 요시다 신오 씨와 나는 이소현 씨 등 한국의 선구적인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한국 각지에서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요시다 씨는 주로 환경색채에 대해 그 영역의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저는 서울 근교의 시흥시나 수원시 등 행정활동으로 도시디자인에 힘을 쏟고자 하는 도시에서 몇 차례 자문과 강연을 요청받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대표는 PUDA(더 나은 도시디자인포럼)라는 도시디자인 전문가 단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 후 PUDA 주최의 어반 디자인 포럼에 요시다 씨와 제가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5 년 한일 도시 디자인 교류회가 발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도별 개최 개요

□2015 일본

제 1 회 가마쿠라시, 요코하마시 가마쿠라에서는 第1回 鎌倉市、横浜市 鎌倉では、歴史的都市の 역사적인 도시의 거리 경관 조성, 요코하마에서는 도시디자인실이 추진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적인

□2016 韓国

第2回は、TDAメンバーがまとまって韓国を訪問交 流した初めての大会でした。韓国キョンギ道のシフン 市、スウォン市で開催。両市訪問の前にインチョン市 の大規模開発地ソンド地区の中心部を見学。ソウル郊 개발지인 송도지구 중심부를 견학했다. 서울 외곽의 신흥 外の新興住宅都市として成長しているシフン市では、 旧下水道施設(タンク等)を保存活用した市民交流空 間で交流会議を開催。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城壁 に取り囲まれている城郭都市スウォンでは、歴史的建 造物の保存状況とともに、横浜の商店街整備に学んだ という書店街の町並み景観と通りの歩行者空間整備を 見せてもらいました。(景観文化 vol.35)

※写真5点

□2017 日本

成田市、台東区浅草(景観文化 vol.39)

□2018 韓国

キョンギ道の住宅都市・廣州市、龍仁市(景観文化 vol. 경기도의 주거도시 광주광역시, 용인시(경관문화 vol.43) 43)

□2016 한국

제 2 회 대회는 TDA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첫 번째 대회였다.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에서 개최. 두 도시 방문에 앞서 인천시의 대규모 주거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에서는 옛 하수시설(탱크 등)을 보존-활용한 시민교류 공간에서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 수원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현황과 함께 요코하마의 상점가 정비에서 배웠다는 서점가의 가로경관과 거리의 보행자 공간 정비 등을 견학했다. (경관문화 vol.35 에 게재)

※ 사진 5점

□2017 일본

나리타시, 다이토구 아사쿠사(경관문화 vol.39)

□2018 한국







スウォン 스완



シフン 시훈



スウォン 스완

□2019 日本

長野県松本市、小布施町、長野市(景観文化 vol.47) 松本市での韓国側からの発表には、「住民参加を通じ た芸術文化村づくり-DMZ(非武装地帯)へマル村の事 例」アン・ヒョンジン教授発表もありました。

長野開催を信濃毎日新聞が密着取材、日韓交流会議 の意義を伝える特集記事ナショナルを超えて「記憶を 拓く」を複数回掲載しました。

※B写真1、新聞記事1

□2019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오부세초, 나가노시(경관문화 vol.47) 마츠모토시에서의 한국 측 발표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술문화마을 만들기 - DMZ(비무장지대) 헤마루 마을의 사례'라는 안현진 교수의 발표도 있었다. 나가노 신노마이니치신문이 개최를 밀착 취재하여 한일교류회의의 의의를 전하는 특집기사 '기억을 넘어'를 여러 차례 게재했습니다.

B 사진 1, 신문기사 1





□2020、2021 オンライン **ZOOM** 開催

2020 は韓国パジュ市 DMZ での開催などが期待さ れていましたが、コロナ禍のため訪問開催はやめ、 ZOOM 開催となりました。(景観文化 vol.51,52)

□2022 日本

世田谷区下北沢、川越市(景観文化 vol.58)

□2023 韓国

インチョン市、ウィジョンブ市で交流会議。オプシ ョンとしてソウル市見学

※E 開催ポスター1、写真1

□2020, 2021 온라인 ZOOM 개최

2020 년은 한국 파주 DMZ 에서의 개최 등이 기대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 개최는 취소하고 ZOOM 개최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관문화 vol.51,52) ※C

□2022 일본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 가와고에시(경관문화 vol.58)

□2023 한국

인천시, 위정시에서 교류회의. 옵션으로 서울시 견학 E 개최 포스터 1, 사진 1





◆韓国の都市デザインの経緯と現在

に、第2回光州ビエンナーレを見学に初めて韓国を訪 제2회 광주비엔날레를 견학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間、ソウル市と光州市の市街地に初めて接した。2002 年には、光州市で開催された都市デザインシンポジウ ムに招待され、横浜の都市デザインを報告させてもら っています。帰りにソウル市も見学。この頃は、まさに 韓国の都市デザインがスタートしようとしていた時期 でした。高架道路を撤去し、暗渠となっていた川を改 修し、魅力的な水辺の歩行者空間を出現させようとす るチョンゲチョン(清渓川)プロジェクトが発表され ていましたが、まだ工事着手前の雑然とした問屋街の 姿を見ることが出来ました。

◇韓国の先駆者─ソウル市の都市デザイン活動

イ・ミョンバク市長時代(2002~2006)にチョンゲ チョンプロジェクト (2005) の成功を収めます。これ を引き継ぎ、次のオ・セフン市長(第1次 2006~2011) は、さらに発展させ、「デザインソウル」という政策を 掲げました。ソウル市は、横の軸チョンゲチョンに交 '서울 어반 디자인 플랜'을 수립해 실행에 옮긴다. 差する南北を貫く複数の歩行者空間や緑の軸からなる 「ソウル・アーバンデザインプラン」を策定し、実施に 移しています。

◆한국 도시 디자인의 역사와 현재

私は 1997 年に、個人的に横浜の設計者などと一緒 1997 년 개인적으로 요코하마의 설계자 등과 함께 방문해 서울과 광주시의 도시를 처음 접했고, 2002 년에는 광주시에서 열린 도시디자인 심포지엄에 초대받아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을 보고한 적이 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시도 견학했다. 이 시기는 한국의 도시디자인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암거였던 하천을 정비해 매력적인 수변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청계천 프로젝트가 발표됐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어수선한 도매상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선구자 - 서울시의 도시 디자인 활동

이명박 시장 시절(2002~2006) 청계천 프로젝트(2005)의 성공을 거둔다. 이를 이어받은 오세훈 시장(1 차 2006~2011)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디자인 서울'이라는 정책을 내세운다. 서울시는 가로축인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여러 보행공간과 녹지축으로 구성된

光化門広場 (2009)、ソウル市新市庁舎、市庁舎前広 場のほか、「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プ&パ-ク」、「漢江ル ネッサンスプロジェクト | などを手掛けています。

私は、2010年に、ある民間団体主催のシンポジウム に招待され、ソウルを訪れた際、オ・セフン市長に事前 に情報を知られ、市庁舎に呼ばれ、完成直後に一部個 所で問題となっていた光化門広場の問題個所の処理に ついて意見を求められた経験があります。

対立する政党に所属していた、次のパク・ウォンス ン市長(2011~2020)は、ソウル駅付近鉄道を横断す る老朽化して解体予定の高架自動車専用道路を解体せ ずに歩行者空間とする「ソウル路 7017」(2017) 事業 を発案、実施しています。私は、「ソウル路7017 | 工事 中に、ソウル市庁舎市長室でパク・ウォンスン市長と 対談する機会がありましたが、その時、パク市長が、ニ ュ-ヨ-クのハイラインの現場で、運営管理に参加協力 している地域団体の方々と意見交換をした話を聞き、 よく勉強されていることを感じました。

광화문광장(2009), 서울시 신청사, 시청 앞 광장 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맡았습니다. 저는 2010 년 한 민간단체 주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오세훈 시장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주고 시청에 불려가 준공 직후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되었던 광화문광장의 문제 구간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립하는 정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2011~2020)은 서울역 인근 철도를 가로지르는 노후화되어 철거 예정인 고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로 7017'(2017) 사업을 발안, 시행하고 있다. 나는 '서울로 7017' 공사 중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박 시장이 뉴욕 하이라인 현장에서 운영관리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한 이야기를 들으며 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잘 배우고 있다고 느꼈다.

2020 にオ・セフン市長が再登板しますが、新たに「グ レ-トハンガン(漢江)プロジェクト|を掲げ、公共事 業主体の新たな都市デザインプロジェクトに取り掛か っています。その中で、かつて自分が手掛けた、光化門 広場の改造も行い、両側に配置していた車道を片側に 集約し、これまでシンボル性を重視し、左右対称な広 場となっていた空間を、西側街区と一体となった市民 の使いやすい広場へと改善した柔軟な対応には驚きま した。オ・セフン市長は昨年、横浜都市デザインの現況 などの見学にも来日しています。

◇ソウル近郊都市の多様な都市デザイン活動

韓国の首都として、人口規模や財政力も突出してい るソウル市の取り組みは、歩行者空間向上や河岸公園 空間整備など新規プロジェクト型で、デザイン性も高 い取り組みが多く、別格の取り組みともいえます。一 方で、圧倒的な行政主導型ともいえます。

立ちますが、歴史ある旧市街地との共存を重視した取 공존을 중시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り組みも進めつつあるようです。

2020 년 오세훈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위대한 한강 프로젝트'를 내세워 공공사업 주체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자신이 직접 맡았던 광화문광장의 리모델링도 진행했는데, 양쪽에 배치되어 있던 차도를 한쪽으로 통합하고, 상징성을 중시해 좌우대칭의 대칭형 광장이었던 공간을 서측 가로수길과 일체화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광장으로 개선한 유연한 대처가 놀라웠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에도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현황 등을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서울 근교 도시의 다양한 도시 디자인 활동

한국의 수도로서 인구 규모와 재정력이 뛰어난 서울시의 노력은 보행공간 개선, 강변공원 공간 정비 등 신규 프로젝트형, 디자인성이 높은 사업이 많아 남다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압도적인 행정주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지인 大規模開発地ソンド地区や国際空港などを抱える歴 송도지구와 국제공항 등을 보유한 역사항만도시 인천시도 史港湾都市インチョン市でも、大型プロジェクトが目 いち 프로젝트가 눈에 띄지만, 역사 깊은 구도심과의 第2部:韓国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推進の歩みと背景 한국 도시디자인 추진의 역사와 배경

その他の多くのソウル近郊都市であるシフン市やス 서울 근교 도시인 시흥시, 수원시는 일찍부터 소도시의 ウォン市は、早くから、小都市ながらの個性を生かし 개성을 살린 도시 디자인에 도전하고 있다. た都市デザインにチャレンジしてきています。

◇韓国政府の制度面、政策面でのフォロー-

2019 年に景観法制定、2023 年に公共デザイン促進 事業が開始されます。

このことにより、各都市において、町並み景観づくり、 道路、広場施設など公共空間のデザインの向上などが 義務化されます。民間の都市デザイン関連コンサルタ ントへの需要が高まり、また、市や区などの行政内に デザイン調整を行うデザイン専門職を置く流れが生ま れます。一方で、景観法にもとづく景観整備と公共デ ザインを別々の部署で担当するような分断が発生する 状況も生まれ、課題と思われます。

◇近年の特徴

空間を、原型を生かしながら活用しているリノベ-ショ ン型民間プロジェクト成功例も増えています。

◇한국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후속 조치

2019 년 경관법 제정, 2023 년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도시에서는 가로경관 조성, 도로, 광장 시설 등 공공공간의 디자인 개선 등이 의무화된다. 민간 도시 디자인 관련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와 구 등 행정기관 내에 디자인 조정을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한편, 경관법에 따른 경관조성과 공공디자인을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분절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최근 특징

ソウルでは、先ほど、行政主導型プロジェクト中心 서울에서는 앞서 행정주도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と述べましたが、ソウル各地には昔からの路地型商業 말씀드렸지만, 서울 곳곳에는 옛 골목형 상업공간을 원형을 살리면서 활용하는 리노베이션형 민간 프로젝트 성공사례도 늘고 있다.

私が2015~2018年に都市デザインアドバザ-を務め た南部の光州市では、鉄道敷地跡地の「緑の道~プル ンギル」の計画提案と、整備後の運営管理を環境系大 学研究室及び出身者を主体としたチ-ムに任せる取り 組みを目にしました。

昨年訪問したウィジョンブ市では、市長も含め、歩 行者空間の整備など都市デザインの課題への取り組み を市民参加型で進めようとする新しい傾向を強く感じ ました。これらの参加型プロジェクトを PUDA のイ さん達が精力的にフォロ-していることも知りました。 ウィジョンブ市は市長ほかのメンバ-が、2022 年に交 流会を開催した世田谷区下北沢を訪問していますが、 現在、世田谷区や TDA メンバーの倉田さんなどへの協 力の打診を行っているようです。TDA と PUDA、そ して日韓都市デザイン交流会を通じた新たな協力関係 が生まれそうで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最後に、ウィジョンブのキム・ドングン市長や、ソウ ルのオ・セフン市長、パク・ウォンスン市長など、先進 的な都市では市長自ら、世界を見て回り、最近の世界 的傾向などをよく勉強しています。日本でも、そうあ りたいです。ウィジョンブ市では、本年、「歩きた くなる都市デザイン局 | が誕生するとのことです。

제가 2015~2018 년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로 활동했던 남부 광주광역시에서는 철도부지 폐선부지 '푸른길~풀뿌리길'의 계획 제안과 정비 후 운영관리를 환경 관련 대학 연구실 및 출신이 주축이 된 팀에 맡기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방문한 위정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 보행자 공간 정비 등 도시 디자인 과제를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하려는 새로운 경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형 프로젝트들을 PUDA 의 이 대표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위정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멤버들이 2022 년에 교류회를 개최한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를 방문했는데, 현재 세타가야구와 TDA 멤버인 쿠라타 씨 등에게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정읍의 김동근 시장이나 서울의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등 선진 도시에서는 시장님들께서 직접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근 세계적인 추세 등을 잘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례신도시에는 올해 '걷고 싶은 도시디자인국'이 생긴다고 한다.

開催概要 개최 개요

【開催の主旨】

記録集で多くのコメントがあった事項を中心に、今後の良質な都市デザインの 推進に向けて、日韓交流に参加したメンバーで意見交換を行う。

【テーマ】

テーマ 1. 現代の韓国、特にソウルにおける公共空間デザインの進展

- ・ 現在の韓国、特にソウルにおける公共空間デザインの現状と実現プロセス
- ・ いつごろから韓国(特にソウル)では都市デザインに政策的に力を入れて取り組むようになったのか。そのきっかけは何か。またそれが 10 年以上続いていることの理由は何か。
- 都市デザインの実現プロセスとして重要なことは何か。また、不足している /今後改善すべきと思われることは何か。
- ・ 近年韓国で実現された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市民の反応はどうか。

テーマ 2. 近年の日本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韓国の専門家からみた評価

・ 韓国側から見て、近年の日本、東京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気づくことは何 か。そのデザインや維持管理について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

テーマ 3. 今後、日韓交流を介して取り組むべき都市デザインのテーマは何か。

【開催日時】

2024年5月20日(月) 18:30~20:10 zoomによるオンライン会議

개최 취지

기록집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양질의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한일교류에 참가한 회원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주제

주제 1. 현대 한국, 특히 서울에서의 공공공간 디자인의 진전

현재 한국, 특히 서울의 공공공간디자인의 현황과 실현 프로세스

한국(특히 서울)에서는 언제부터 도시 디자인에 정책적으로 힘을 쏟게 되었는가? 그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디자인의 실현 과정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시디자인의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에서 실현된 도시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주제 2. 최근 일본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한국 전문가가 본 평가

최근 일본 도쿄의 도시디자인에 대해 한국 측에서 볼 때, 최근 일본 도쿄의 도시디자인에 대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 디자인과 유지관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제 3. 향후 한일교류를 통해 다루어야 할 도시디자인의 주제는 무엇인가?

개최일시

2024 년 5월 20일(월) 18:30~20:10 zoom 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参加者 참가자

国吉 直行 KUNIYOSHI Naoyuki



倉田 直道 KURATA Naomichi



イ・ソクヒョン LEE Seokhyun 이석현



近田 玲子 CHIKADA Reiko



吉田 愼悟 YOSHIDA Shingo



小林 正美 KOBAYASHI Masami



クァク・ドンファ KWACK Dongwha 곽동화



鈴木 俊治 SUZUKI Shunji



倉澤 聡 KURASAWA Satoru



矢内 匠 YANAI Takumi



オム・ジョン UM Jiyeon 엄지연



討議要旨 日本語 토론 요지 일본어

鈴木俊治: 今日はお忙しいところご参集ください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年 TDA のメンバーで韓国を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仁川、議政府、ソウルの各地で都市デザインの現状を拝見し、お話を伺って大変感銘を受けました。 様々なことがありますが、特に都市デザインが画期的に、非常にあの早いスピードで導入されていることに関して非常に驚き、素晴らしいと思いました。

韓国ではどうしてこのようにできるのだろうか、日本は置いていかれているといった感想を書いた人がたくさんおりました。そこで皆さんの感想、日韓の都市デザインの違いや共通点、今後どのように発展していったらい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ついて、参加した皆さんに書いていただき、記録を残すことが有意義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それが先にお送りした記録集です。日本側メンバーの感想を書いているだけ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ので、一度韓国の皆様方にご意見を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日に至りました。この会の実施にあたり、TDA 代表理事である国吉直行先生から改めて日韓交流 10 周年を迎えた意義、今後の発展の方向などを含め、お話し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

国吉直行: 皆さん、こんばんは。今回の記録集や懇談会は鈴木俊治さんが発案してみんなに呼びかけて実施に至りました。私たちの日韓交流がちょうど 10 周年ということもあり、今の生々しい感想を忘れないうちに記録しておこうということです。長く韓国との交流をしてきた私としても、韓国の都市デザインはスタートのころから随分様相が変わってきて、日本が 30 年ぐらいやってるところを多分 10 年ぐらいのペースで進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感じです。日本の様々な取り組みの良

いところ、悪いところを全部飲み込みながら韓国流に動い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 おります。

日本でも同様ですが、頑張っている都市と頑張っていない都市では様々な違いがあると思いますし、専門家や大学の先生などの関わり方も非常に異なっていると感じました。

私は割と頻繁に各地でアドバイス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いろいろな経験から見てみると、日本の方が、都市空間のデザインや都市計画において、まだまだ行政がきちんとしていないと感じました。一方韓国では非常に真摯な姿勢で取り組んでいると感じました。また、専門家の育成が不可欠だということがあり、これは長い間感じていたことです。全体として、韓国では国として温かい施策が行われていると感じました。

日本の場合は、私も役所に所属していましたが、役所内では、土木や建築の専門家としての立場が、自治体によっては単なる業者扱い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専門家としてではなく、単なる下請けとして扱われる傾向もあります。そういった点が、日本では専門家が育っていかない要因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感じました。そういった経験を経て、ちょっとその辺は韓国が羨ましいなとも思います。昨年、仁川や議政府、ソウルで実例をいろいろ見せてもらいました。

韓国と日本の違いを今の段階で少し明らかにし、それが両国の都市デザインの発展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から、この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皆さんには様々な質問や感想を述べ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韓国から参加いただいている皆さん、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鈴木俊治: 今日は、私たちが設定したテーマに基づいて、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日ご出席の韓国の皆様のご意見をまず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テーマは3つあります。

一つ目は、現代の韓国、特にソウルにおける公共空間デザインの進展についてです。いつ頃から韓国、特にソウルでは都市デザインに政策的に力を入れて取り組むようになったのか、そのきっかけは何か、また、それが十年以上長きにわたって継続している理由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

次に、韓国の皆様からご覧になって、都市デザインの実現プロセスとして重要なことは何か、また不足している、あるいは今後改善すべきと思われることは何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近年、韓国で実現された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市民の皆さんの反応はどうな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次に、近年の日本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韓国の専門家の皆様はどのように評価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という点です。日本あるいは東京のデザインについて気づくことは何か、そのデザインついてどのように評価されているか、忌憚のないご意見を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三点目は今後、日韓交流を介して取り組むべきデザインのテーマは何かという ことです。

韓国では近年都市デザインが目覚ましい発展を遂げていると思いますが、その 背景、現状、今後の展望、課題などについて、韓国の皆様からお話をいただけれ ばと思います。

倉田直道: 公共空間デザイン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が、韓国では公共デザインという言葉がよく使われ、それは必ずしも公共空間デザインではないです。

公共デザインと公共空間デザインとはどこが違うのか興味があります。公共デザイン法を見ると、都市の課題を、デザインを通して解決するとされています。その中で、空間がまだちゃんと位置付けられていないという言い方をしているので、その辺りも含めて伺いたいと思います。

イ・ソクヒョン: 内容がかなり難しく概略になりますが、全体的な私の感想をまずお話しし、続いてカク先生とジョンさんのお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私が日本に留学したのが 1999 年、その時期は韓国がかなり経済的に厳しい時期でした。そういう時に景観デザインとか環境デザインなどの話題を出しても、経済がこんなに悪いのにそんな余裕はないと感じる人が多かったです。

私が日本から韓国に帰ったのが 2007 年でしたが、その時には韓国では景観とか環境デザインがかなりブームになっていました。特にソウル市では、オ・セフン市長が中心になって、全体の先進的な動きをやっていました。考えてみると韓国の国民の GDP が 2002 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の時に多分 20,000 ドル以上になっていて、2006 年にオ・セフンさんが市長になりました。 経済が発展した時期にオ・セフンさんのように景観とか環境の意識が強い方が市長になり、遅れていた都市デザインに力を入れ始めました。経済が強くなってきたので、なんとか国民の賛成を得られるという時代的な流れがありました。そのころから韓国では本格的に都市デザインの動きが始まったと思います。

もちろんその前からもいろんな動きがありましたが、本格的に始まったのはやはり 2002 年からの経済的な成長、市民の意識の成長、そしてオ・セフンさんのような市長が頑張ってそれを引っ張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他のソウルの民間人たちが、

オ・セフンさんの動きを見て「我々も頑張ってや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都市デザインの動きが本格的に始まったと思います。

その後、漢江ルネサンスや色彩の基準を作る、都市デザインルールを作る、条例を策定するなど、基本的なことが始まり、2010年ごろからはいろいろな自治体にその動きが本格的に広がり、良い事例ができてきました。2020年からは、公共デザインの法律もあり、各地域で量ではなく質に重点を置いた個性的なものを作ろうという動きが成長してきました。その影響で、韓国の都市デザイン、公共デザインがかなり広がったと思います。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経済とリーダー、市民の意識の成長が柱とな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最初は景観デザインがスタートでした。景観デザインは、日本でも景観法が基礎になったと思います。次に住民参加へと発展し、公共デザインの話も出てきました。

公共空間などとも呼ばれていますが、全体的に見ると都市デザインという言葉で全てを見ることが正しいと思います。韓国では文化府で公共デザイン、国土交通府で景観法というように、管理主体によってその法律や呼び方が違いますが、結局は全て都市デザインという観点で見た方が正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最近、韓国は経済的にあまり良くないですが、前のように都市デザインに対する関心が減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各自治体では国民の生活を豊かにするために都市デザインがかなり必要だという意識は国民的基盤になっています。これからは各地域の都市デザインをどう個性的に快適に作るかが課題だと思います。

簡単に韓国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話しましたが、日本の都市デザインについても、私ももう 20 年近く見てきました。韓国では行政が相当がんばっていますが、日本の都市デザインで一番羨ましいのは、特に企業、民間レベルの都市デザイン

の動きです。丸の内のように企業や地域の管理者たちが全体の景観を管理するということは、韓国では今もなかなか難しく、日本から学ぶべきところが多いです。行政の積極的な動きについては、韓国も最近かなり頑張っていて、それに伴って住民の意識も深まってきています。しかし、民間レベルの高い努力は、韓国ではまだまだ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のお話で、2002 年のワールドカップあたりから経済が向上し、その中で景観や都市デザインに注目して実行された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羨ましく、すごいと思いました。つづいてクァク先生、お話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クァク・ドンファ: 4つほど簡単にお話しします。地区単位計画、日本では地区計画ですが、そのような都市計画が作られたことで、景観が作られ、都市デザインが発展したと思います。これが一つ目です。二つ目はソウル市長であったイ・ミョンパクが実施した清渓川の復元以降、いろいろな都市でグリーンの軸がたくさん作られ、グリーンの重要性が高まったことです。三つ目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時に都市再生事業が全国で多数実施されたことです。これによって、日本のようなまちづくりのシステムが作られました。四つ目は、産業構造の変化で、都市の中の大規模な空き地がランドスケープアーバニズム的な観点から整備されたことです。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いてジョンさんお願いします。

オム・ジョン: 私は2~3年前に帰国したので、あまり韓国の事情について詳しくはありません。お話されたお二人ほどは知らないと思いますが、韓国で公共デザイン振興に関する法律が作られたことが最も大きな発展のきっかけだと思います。

公共デザインの発展について歴史的に言うと、1988 年の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時に、国のレベルやデザインのレベルを上げようという動きがありました。多くの観光客が来る時期に、様々な場所が改造され、国民の意識レベルも高められました。これが公共デザインの発展の一つのきっかけだったと思います。

その後、ソウルは2002年からの数年間にわたって、公共デザインの条例を作成し、実行しました。これにより、首都としてソウル市の都市デザインのレベルが向上しました。また、2007年には景観法が制定され、各自治体が景観計画を作成し、更新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により、各自治体で色彩などの景観計画が拡散していきました。

2016 年には公共デザイン振興に関する法律が制定され、公共デザインという正式な言葉が広まりました。この十年間で発展してきたことが、歴史的な背景としてあります。

先生方が説明されたように、韓国での公共デザインの発展には法律の整備が 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ただ、私は一つ気になる点があります。それは、公 共デザインという言葉が曖昧であることです。例えば、景観計画は本来、大学の研 究室やエンジニア、建築の専門家が行うべき分野だと思いますが、デザイン会社 がその仕事を受け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この状況について考えると、公共デザイ ンという言葉自体に問題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韓国では、日本のように「景観デザイン」や「都市デザイン」という言葉使いよりも、

「公共デザイン」という言葉が使われることが多いです。そのため、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会社やサービスデザイン会社など、都市の専門ではないデザイン分野の会社やコンサルタントが景観計画に関与す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非常に興味深いお話を三名の韓国の方からいただきました。それでは、日本側の皆さんから、今の三名の韓国の方のお話に関して質問などありましたら、どうぞお願いいたします。

小林正美:こんにちは、小林正美です。日本の場合、戦後は国が都市計画や都市デザインの主導権を握っていましたが、2000 年当初からは地方に権限が移譲され、予算も地域が決めていいという風に変わりました。韓国の場合はどうでしょうか。トップダウンの国の主導もあるし、それぞれの都市の自律性や特徴が強いと思います。日本の場合、大阪や名古屋などの都市がそれぞれの特徴を出そうと競争していますが、韓国の都市の特徴の出し方について日本と比べてどうでしょうか。

イ・ソクヒョン: 私が日本にいた時代、小泉首相が地方の復興のために景観整備を支援していましたが、それが持続的にできなかったという話を NHK で見ました。結局、失敗し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理由を考えると、自治体の環境がすべて違い、市長が頻繁に変わるために持続的な計画が難し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韓国の場合はどうなるかと考えましたが、韓国でも同様に市長が変わることがあります。韓国では自治体よりも、国全体の意思や動きが日本よりも強いと感じます。特にイ・ミョンパクの時代にはグランドスケールな都市デザインの試みが行わ

れ、日本に比べると国全体が積極的に動いていた印象があります。次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政権の時には都市再生を強く推進し、多くの政策が都市再生に集中していました。

小林正美: 国のリーダーシップが強いということですね。

イ・ソクヒョン: そうですね。

小林正美: 日本の場合は小泉政権後、バブルが崩壊して 90 年代から経済がほ とんど動か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イ・ソクヒョン: クァク・ドンファ先生はどう思いますか。

クァク・ドンファ: イ先生が話した通りだと思います。今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時代でも、新しく強力な政策を推進しようとしています。国土交通府が 1 ヶ月前に特別法を作り、20 年以上経った大規模な住宅地の再開発を全面的に行うというものです。

イ・ソクヒョン: これ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すが、韓国ではまだ国のトップ ダウンの力が強く、特にソウルでは何かをやろうと思えば実現できるという政権の 強さがあります。 小林正美:トップダウンの力が強いですね。

イ・ソクヒョン: はい。

倉田直道: 今のお話を伺って、確かにトップダウンの力が強いことは感じます。一方で、色々と制度を含めて調べてみると、例えばソウルにおいても都市間競争がまず出て、その中でデザインの重要性が強調されている点がすごいです。そのために戦略的に投資を行っている点が韓国と日本の違いだと思います。

もう一つ気になった点として、20 年以上前に国土交通省と厚労省が行った歩行と健康に関する大規模な調査の際に韓国についても調べたところ、韓国ではすでに歩行権を明確に謳い、それに基づいて公共交通を含め、歩行者を主体とした政策を進めている点が挙げられます。これが条例化されるなど、政策レベルでしっかり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点が日本との大きな違いだと感じました。

日本では専門家の間では議論が行われているものの、行政トップがそれを共有していないことが問題で、都市デザインや公共デザインが政策の一部として埋没しています。世界レベルで「歩くまちづくり」の動向が見えてくると、そこでウォーカブルシティのような概念が急に出されるようなことあるものの、その根底として歩行者を大事にする政策理念が欠けている点が日本と韓国の違いです。

韓国では都市間競争に勝つためにデザインが必要だと考え、公共空間や都市 デザインだけでなく、他のデザイン分野も産業として売りにしていこうという姿勢が 見られます。どちらが良い悪いではなく、こうした違いがあると感じました。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ジョンさん、今のお話を聞いてどう感じましたか。

オム・ジョン: 先程の小林正美先生の話を聞いて思ったのですが、韓国の地域性について話すと、コンサルタント会社が各地域の振興計画、公共デザイン計画やガイドラインを作成し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ため、上位計画がどの自治体も同じ内容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ままあります。

今は全国的に公共デザインや都市デザインのレベルを、これまでは個別バラバラであったものを、全体として一定の水準まで引き上げてきた段階にあると思います。これは全国的に同一のレベルです。これからは、各地域が自分たちの特色を出していく段階に進む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例えば、色彩やストリートファニチャーの統一を図ることでレベルを上げることを 目指しているようです。これから各地域が独自の特徴を出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イ・ソクヒョン: 私が日本に住んでいた時の話ですが、日本で LG の研究所に働いていた知り合いが韓国の LG 研究所でも働いていました。彼女に話を聞いたところ、日本の LG 研究所では時間をかけて計画的に仕事が進められ、失敗は少ないが時間がかかると言っていました。一方、韓国の LG 研究所では実験的に仕事が進められ、成功も失敗も多いです。結果的には両国とも似たような成果を出しているが、韓国では成功例がパッと出るとのことです。

この違いは都市デザインにも現れていると思います。韓国では政権はいろいろ 打ち出しますが、行政では横浜モデルがスタンダードで、それを基に都市環境デ ザインや景観デザインをしっかりと計画し、それの実現に向けて努力しています。 その結果、良い事例が徐々に出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また、こういう交流会もすごく貢献したと思います。いろんな実験を経験できてよかったです。もちろん失敗も多かったですが、やっぱり日本の都市デザインのやり方はすごいです。基礎がしっかりしていると感じます。韓国では、最初はなぜ日本のようにできないのかと思いましたが、改めて考えると韓国なりの異なるアプローチで進めています。両国の違いが見えてきたと思います。

倉田直道: 先ほどジョンさんが公共デザインの計画などを行っているのは民間の デザイン事務所だと言いましたよね。これまで何度か韓国に行って景観の話をした り、都市の話をする場に参画しています。日本では、そういう場合には建築や都市 を専門にする人が多いですが、韓国はそうではない印象があります。広い意味で のデザイナーの方々が都市デザインに関わっている場面が多く、都市の専門家が 必ずしも多く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バックグラウンドを聞くと、都市計画をやっ ていたり、都市に関わっていたりする人だけではないようです。公共デザインの中 でも専門家の育成が重要だと思いますが、韓国ではその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ど 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か。

クァク・ドンファ: 韓国の大学の先生たちの中には、少なくとも各大学にひとりはアーバンデザインを専門にした方もいます。韓国では、公共デザインの中で専門分野が明確になっていて、それぞれが仕事をしていると見ています。デザイン部門の専門家、建築分野の専門家など異なる分野の専門家がいます。

イ・ソクヒョン: ちょっと追加すると、私は主に国土交通府でアドバイスをしていますが、私はちょっと特別です。ほとんどの方は土木、不動産、建築、都市計画分野の方で、私は都市再生のことで参加しています。韓国の LH という組織、日本でいえば UR のような組織ですが、そこにいる方も同様に土木や都市計画関係の方が多いです。しかし 20 年以上やっていると、違う人が今は少しずつ出てきています。

基本的には今までは縦割りで景観はやはり国土交通府が担当しています。公共デザインは文化府が担当です。以前は国土交通府でデザインと言うと嫌がられました。5~6年前でも、デザインは文化府だからと。国土交通府では景観の意識が結構強かったのですが、そういう意識が前に比べると壁が崩れていると思います。私が参加している都市計画学会も、以前は urban planning と称していましたが、今は urban design です。自治体ではもうそういう縦割り意識はあまりないです。景観、公共デザイン、建築、都市デザインをやっている方が混じっており、そういう壁が低くなっています。

行政安全府という組織が韓国では一番大きいですが、その中でいろいろな都市 再生事業などを結構担当しています。その中で関わっている方たちは建築などさ まざまな分野に関連した方が多いです。そういう分野ごとの付き合いはかなり良く 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他の皆様方からご質問がありましたら、どう ぞお願いいたします。

小林正美:日本の場合は、やはり土木の人たちがずっと国を作ってきたので、イ

ンフラとか道路とかについてすごく固い、強い力を持っています。それで、最近国 土交通省がウォーカブルとか言ってもなかなか進まない。また警察が強く、それで 歩行者天国とかトランジットモールなどを提案しても、地方自治体の道路管理者な どが反対してなかなか実現しない。本当は都市計画や都市デザインがもっと全体 を見たいのですが、日本ではなかなか動かないという事情があります。

イ・ソクヒョン: 倉田直道先生から聞いた話ですが、世田谷区と議政府が定期的に討論会を開いています。世田谷区では警察の関係で都市計画が進まないと聞いて驚きました。韓国では市長がやろうと思えば警察も協力する雰囲気があるので、なぜ警察が邪魔をするのか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倉田直道: ウォーカブルシティに関してはその違いが大きいです。韓国の交通関係の担当者が日本に来て事例を見たり、国土交通省を訪問した際、歩行者の安全について質問したところ、日本ではそれは警察が担当しており、国土交通省ではわからないという回答が多かったそうです。これに韓国の担当者たちは驚いていました。

鈴木俊治: 日本では行政が都市デザインを訴えても、市民の意識が追いつかないことが多いです。韓国では政治家や行政が主導して 20 年かけて都市デザイン志向が高まってきたのは、政治だけでなく経済も影響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日本では経済が発展しても都市デザインを進める方向には行かない気がします。韓国での都市デザインの高まりの背景やきっかけ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

オム・ジョン: 韓国では国土計画法、景観法、建築基本法、公共デザイン振興法など、法律が明確に分かれています。例えば、国土計画法では都市デザインや基盤施設、公園緑地、景観を扱い、景観法では景観デザイン、建築基本法では公共建築全般を管理しています。公共デザイン振興法では、従来の分野とは違う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市民に分かりやすいファニチャーなど、ヒューマンスケールなものを扱ってきました。

公共デザイン振興法では、市民が身近に感じる問題を解決するデザイン、いわゆる社会問題解決デザインが重要視されています。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などを強調し、国土計画法や建築法ではあまり言及されていないことも取り組み事業化しています。例えば、交差点のパラソル、足元の信号サイン、バスシェルターのエアコン設置など、公共デザインの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市民の不便を解消し、市民がその価値を実感しています。

鈴木俊治: 非常にわかりやすい説明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公共デザイン振興 法を管理するセクションは、都市計画分野なのか、道路分野なのか、それとも横断 的なガバナンスなのか興味深いです。日本のような縦割りでは、包括的な社会問 題解決に至らないように思えますが、韓国ではどのように運用されているのでしょ うか。

イ・ソクヒョン: 自治体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景観計画の実現には時間がかかります。公共デザインはソフト的でもあり、区域や公園、道路、まちなどを素早く改善

するのに適しています。以前は縦割りで施設や看板、色彩などに限定されていましたが、今は空間全体や文化領域まで管理できるようになり、範囲が広がっています。自治体では公共デザイン振興法を使って事業を行うことが流行っています。私は、最初は公共デザイン振興法に反対でしたが、いまでは良いこともあると見直しています。

倉田直道: 韓国の公共デザイン法を調べていると、その評価をまとめた報告書がありました。それをよく読むと、特にバリアフリーに関してはかなりの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韓国は公共デザインに早くから取り組んでおり、わかりやすいサイン計画なども 実施しています。しかし、公共デザインの対象として空間を十分に扱えていないこ とが課題として指摘されています。この理解で正しいですか。

イ・ソクヒョン: はい、そうです。ソウル市やクァク・ドンファ先生がおられる仁川で は広い範囲で取り組んでおり、個性的な空間作りの事例も多いですが、他の地域 では施設などの範囲でしか改善が進んでいないのが現状です。

国吉直行: 市民が支持した理由としては、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の清渓川プロジェクトなどのトップダウン的な再開発が世界的に注目、評価されたことが影響しています。韓国が大国としてふさわしい空間的デザインを取り入れることが重要視され、その結果ソウルが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評価を受けました。その流れを受けたオ・セフン市長は、トータルなアーバンデザインプランを作成し、漢江プロジェクトな

ど、部分的および全体的な軸線を考えた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ました。市長がアーバンデザインを勉強しているという点も注目すべきです。

オ・セフン市長も勉強しており、デザイン事業本部を設立し、150人体制で運営しました。この本部は5つの部署に分かれ、ソウル市の広報物やレターデザインなどまで包括し、企業のイメージ戦略と同様に都市のイメージを構築するために様々なプロジェクトを行いました。オ・セフン市長は都市空間だけでなく、シンボルやマスコットなど、総合的な街の演出、イメージアップを図ることを目指しました。このような取り組みは、幸いにもその後も続けられ、後任のパク・ウォンスン市長も基本的にその流れを受け継ぎ、都市デザインを重視し、歩行空間を大切にする試みを実践しました。ニューヨークのハイラインを現場に出かけて学ぶなど、市長自らが学ぶ姿勢を持っていました。オ・セフン市長が再び就任し、長期間にわたって市民とのやり取りを経ながら継続して取り組んでいることが、ソウルのトータルアーバンデザインの密度を高めています。

日本の横浜も同様に、初めは貧弱な街でしたが、メディアの注目を集めることで 人気のある街になり、商業的な繁栄にもつながりました。これは市民の支持を得て、 代々の市長に引き継がれる形で続けられてきました。

最近、ソウル市デザイン局長に就任した方は、以前のオ・セフン市長時代にも働いていたが、次のパク・ウォンスン市長時代に辞めざるを得ず、その後は自動車会社のデザイン部門で働き、大学教授を経て現在の役職に就いています。オ・セフン市長は街のデザインには広い視点を持つ様々なデザイン専門家が必要だと考えており、これは韓国の面白い特徴かもしれません。

彼の部下の人たちに聞くと、「公共デザインは我々のセクションが担当している

けど、景観デザインはやりません」と言います。同じ市長の下でも、部局によって景観法を扱うところと公共デザインを扱うところに壁があります。その状況では例えば、横浜の日産自動車本社ビルのように民間施設の中を公共施設である歩行空間が貫くような設計は、景観指導も公共デザインも関わるため、どちらも扱えないです。これは建物の行政指導に関わる部分であって、景観法と公共デザイン法が別々に運用されている限り、こうした統合的なアプローチは生まれません。

ソウルもトータルでやっていかないとダメなんじゃないかと感じます。日本の多くの都市も、法律ができてから取り組み始めると、縦割りで分断されてしまいます。

街をどうトータルでデザインするかというトップがいない限り、総合的なアーバンデザインは生まれないと思います。韓国も日本も同じで、横浜も法律ができると縦割りの制度により、都市デザインが全てを担当するのではなく、景観法は行政指導部局がやるべきだと分割したがる傾向があります。国自体が縦割りの制度を作るために、街もその通りになってしまいます。

ソウルのオ・セフン市長のように、トータルで自分のイメージを進めたいと思って いる人がうまく使えばいいのですが、担当部局はそうはいかない場合もあります。

イ・ソクヒョン: 韓国では政治的な変動が激しいため、市長などは都市デザインに 力を入れることで国民の支持を得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オ・セフン市長 も都市デザインに取り組んでいましたが、それは国民の心を掴むために役立つと 認識しているからです。

選挙に勝つためには都市デザインが効果的だという意識があり、オ・セフン市長も「漢江ルネサンス」などの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ました。現在も様々な開発事業を

行っており、自分のイメージで進めていける部分もあると感じています。他の自治体の市長も同じ考えで、都市デザインを頑張ることが選挙に勝つために有益だと認識しています。これは良い面もあると思います。

議政府も歩きたくなるような街を目指しており、その推進のために大きく横断的な行政部局ができました。他に例のない局です。スウォンの都市デザインが非常に際立っていた時期がありましたが、現市長はかつて副市長としてそれを支えた経験があります。次の選挙の機会のためにも地域で良い結果をもたらすとの意識があるから、そうした取り組みをし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市長が頑張らないと次の選挙で落選するという意識があるので、都市デザインに力を入れるのは非常に良い面だと思います。国民を怖がっています。

国吉直行: それは良いですね。

イ・ソクヒョン: 市民の支持を得るために都市デザインを推進しないと、次の選挙で落選するという意識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個人的に思います。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まだ発言のない方々のご意見も伺いたいと思います。吉田愼悟先生、いかがでしょうか?

吉田愼悟: 今日の話を聞いてとても興味深かったです。私は約 20 年前からソウルに行っていて、色彩に関しても助言を求められました。日本の色彩学会は景観についてあまり理解していませんし、デザイン学会も都市デザインに関わる論文が

少ないのが現状です。

公共デザインやソウルでの整備の経緯は非常に興味深く、日本でも広まればいい と思います。私は美術大学で教えていました。美大でも都市デザイン学科を作った 時期もありましたが、だいたい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問題は、形だけであり、歩き やすさとか安全など本質的な部分が欠けていたことです。そのためあまり進みま せんでした。

空間を綺麗にするだけでは進展しません。安全性や歩きやすさを考慮したデザインが必要です。日本の多くの大学の都市デザインや景観デザインの学科は環境デザインに変わっていきましたが、日本の経済状況が悪化し、公園の整備などに資金を投入できなかったことも影響しています。

ソウルの事例を見ると、ビジョンを持って空間を作りたいという人がいるので、それに向かって多くのものが集まってくるのは羨ましいと思います。20 年前には日本の方が進んでいると感じましたが、最近では逆転していると感じ焦りました。しかし韓国にも問題があると分かりました。良いところをお互いに取り入れて高めあい、交流を続けたいと思います。日本に足りない部分を韓国から学び、韓国も日本のやり方を取り入れることで、さらに良い成果を生む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詳細はいつかまた聞かせてください。これから先、ソウルの色彩がガイドラインなどで、どうなってうまく生きているのかなど、もう一度聞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近田玲子先生、いかがでしょうか。

近田玲子: 10 年前に日本の照明デザイナーが国際照明デザイナーズ協会というところに加わって、日本支部みたいなのができました。エンライティングアジアと言い、アジアの国々で一緒にやる。そういうお祭りみたいな照明のデザイナーが集まる。そういう企画をして、韓国から何人も呼んで一緒にそういう会議をやったりしていたのです。ところが、どうも最近全然様子が違っていて、コロナ禍もあり、以前から一緒にやっていた人っていうのは今や何の音沙汰もないような状態です。

その一方で、今、ソウルでは、ルチという国際照明デザイン協会があり、都市照明デザインみたいな団体にソウルが入っています。ソウル市長さんがアジアのアジア圏の代表みたいな役をやっているような感じで、都市間の夜間景観の交流なんかにもずいぶん市長さん自身が入っている。そんなような傾向のようです。

韓国の照明デザインの業界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すら、わかりかねるため、今回の冊子に写真は提供したけれども、文章を書けないと思いました。つまり、10年前はどうやらジョンさんが指摘されたように、照明はメーカーの人が主体で、その社内にデザイナーがいた。一方、日本は照明デザイナーがメーカーとあまりビタビタにくっつくことをやめて、独立したデザイナーとなっていったわけですよね。韓国では今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すか。大学の先生が自治体と一緒にデザインをして、そこにメーカーが加わっているようで、独立した照明デザイナーがデザイン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見えます。

イ・ソクヒョン: 照明はうちのフォーラムにも照明デザイン会社が3つぐらい、大手企業も入っているのですけど、韓国ではかなり大手企業が参加してデザインの仕事をしています。韓国では小規模でやるのはなかなか難しいらしいですね。大学の

先生が照明デザインを教えるところもなかなかないので、企業で働いているのが 普通です。メーカーもそんなに多くないし、照明デザインの会社は5つぐらいの大 手企業が分けてデザインをやっているので、個人的に見ると、多様性が足りないと 思います。

色彩学会で照明デザイナーが事例を見せてくれましたが、みんな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歴史的な景観になぜあんな派手な照明を使っているのかという印象がありました。照明デザインはまだ体系的にもちゃんと研究されていません。

韓国では照明デザインを今も派手にすることが好きなところが多いです。それはある意味、遅れていると思います。近田玲子先生のように照明デザインをしっかりとやった方が計画に参加し、いろいろな試み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今も都市デザインコンペ審査に参加してみても、大手企業がほとんどやっているので、景観に対する配慮が非常に足りないと思います。ジョンさんは照明デザインについ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オム・ジョン: 近田玲子先生が知っている方と同じ方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や海外で勉強された方で、韓国で今活躍している照明デザイナーに何人かお会いしたことがあります。ここ最近、夜間景観計画については、自治体全体ではなく、一部の景観計画などに少し入っているくらいで、公共の分野で夜間計画がはっきりしている報告書や計画書はあまり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例えば、ソウルや仁川、釜山など、夜間景観が重要なところだけが少しやっている感じです。

それを担当しているのは、最近は照明の専門的なデザインをやっている会社だ と聞きました。例えば、ソウルでは今のオ・セフン市長が毎年「ソウルショック」とい うものを発表して、それを活用して DDP やソウルタワーなどに照明をどう入れるかを検討しています。しかし、まだまだ民間に照明デザイナーが集中していて、アパートやマンションの建築照明には優れたデザインがあるのですが、公共の場では専門的な照明デザインのプロジェクトや仕事はあまり見たことがないと感じました。

イ・ソクヒョン: 例として写真を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す。(ネット画像の紹介。吊り橋などに派手な照明が使われている例など) 自然景観が優れた地域でこういう照明計画が行われていて、ちょっとショックでした。照明は韓国では中国に近い感じがします。今年のソウルショック選定時にも審査員として参加しましたが、あれでいいのかと思うこともありました。難しいところですね。

鈴木俊治: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予定では8時まででしたが、もう少しだけ延長させていただいて、まだご発言のない方からコメントを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倉澤さん、お願いします。

倉澤聡: 皆さん、こんばんは。遅れてしまい、お話をだいぶ聞き逃した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また教えてください。特に、市長が都市デザインを勉強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望んでもめったにありません。日本で国会議員が都市デザインを語って当選するのは難しいですし、自治体レベルでも縦割りの問題があります。

日本では公共デザイン法ではなく、バリアフリー社会を目指す法律ができ、自治体が条例を作って点字ブロックを設置するなどの取り組みをしています。ただ、それにより規格化されたものを設置せざるを得ず、デザインの余地がなくなり、本当

に使いやすい歩道を作るという発想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韓国では、行政の中にもデザインや都市デザインの専門家が多く、彼らが民間の専門家と協力して進めていることが感じられます。

ところで、日本では土木分野の人々、特に 50 歳以上の方々は「デザイン」、「人のため」といった言葉自体を毛嫌いする傾向があります。若い世代は変わってきたと思いますが、韓国ではどうですか?

オム・ジョン: 韓国の公共デザインプロジェクトでは、単純なデザインというよりもまず社会的な課題解決、例えば安全、犯罪予防やバリアフリーなどが重視されています。「犯罪予防環境デザイン」と呼ばれています。これにより、上の世代でも法律に基づい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があり、抵抗は少ないと感じます。私は最近実務をしているので、そのように感じるのかもしれませんね。

イ・ソクヒョン: 私が最初に国土交通府のアドバイザーをやった時には、会議に参加するメンバーの多くが伝統的な方法を重視していました。「なんでデザイナーがこんな会議に参加しているのですか?」という反応もありました。私の名前や顔が一致して知られていなかったので、皆さん驚いていました。しかし、現在では雰囲気が大きく変わりました。デザインの境界線が曖昧になり、多様な専門家が協力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国土交通府においても、土木、不動産や建築の専門家が依然として大きな影響 力を持っていますが、変化してきて以前よりも多くの人が協力しているのは確かで す。例えば、クァク・ドンファ先生がいる仁川でも多くの専門家が参加しています。さ まざまな分野の専門家が都市デザインや都市再生に取り組んでいるのは、多様性の観点から非常に良いことだと思います。

鈴木俊治: それでは、矢内さんからお願いします。

矢内匠: 先ほどから土木の話が出ていましたが、私は土木技師なので、少し言い訳をさせてもらいます。土木は日本の場合、安全性を最重視しています。そして、機能を満たすことが重要視されてきました。限られた予算の中で、安全性や機能を重視しているため、デザインが少し後回しに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しかし、最近はその見直しが進んでおり、多少追いつい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私は数回、交流会で韓国を訪問させてもらったのですが、皆さんがおっしゃるように、韓国は短期間でダイナミックに街を変えていっているところがすごいと感じました。いつ行ってもそのダイナミックさに驚かされます。また、市民の皆さんがデザインに対してしっかりと理解を持っている点も、日本とは少し違うと感じました。

ソウルの広場も見せてもらいましたが、多くの人がその広場を利用している点が 印象的でした。市民の皆さんがその場所の使い方をわかっている点も、日本とは 違うと思いました。

韓国の皆さんに質問ですが、韓国では整備を行う際に住民の意見を必ず聞くと 伺いました。日本でも住民の意見を聞いていますが、その意見に引っ張られて事 業が進まないことがあります。韓国では、事業を決定する際に住民の意見をどのく らい聞いているのか、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イ・ソクヒョン: 都市再生事業としては、最初から住民の意見や問題点を積極的に聞きながら計画を進めています。以前は計画が立てられた後に、賛成や反対の意見を少し追加する程度でしたが、今では計画の初めから住民の意見を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ます。地域ごとに違いはありますが、だいぶ定着していると思います。

私が関わっている議政府の場合は県の中でも遅れていて、役所の意識が低くて 苦労しています。地域ごとに差が大きく、苦労している部分もあります。担当係長も 土木出身で、安全性や計画の迅速さを最優先と考えているので、住民と話し合うと 計画が遅れるし、クレームも来るから避けたいと言っています。

地域ごとに違いはありますが、全ての事業において、住宅団地の再開発以外には、都市デザインの分野では住民と意見を共有しながら計画を立てることが、持続可能な都市づくりに役立つと考えています。その意識は皆さんも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ソウルも仁川も私が見た限りでは頑張っていると思います。

クァク・ドンファ: 都市デザインに対する市民の意識は、日本の方が高いと思います。住民参加や意見を聞くことも、日本の方が良いと思います。韓国でも最近は、都市計画のシステムの中で市民の意見を聞くことや、マスタープラン作成時に市民を参加させることを行っています。自治体が作る都市計画の下位にあたる生活圏計画を作る際に市民を参加させる動きが見られます。韓国でもそのような動きが良くなってきています。

オム・ジョン: 住民参加型まちづくりのプロジェクトは、事業の規模や内容によって 異なりますが、私が関わっているのはそこまで大きなプロジェクトではありません。 例えば、道路整備事業や小さな公園の実施設計などです。そのような設計を行う際、住民参加の意見をどうまとめるかはコンサルタントの提案次第だと思います。 船頭多くして船山に上る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住民の意見をすべて取り入れる と計画がまとまらなくなることもあります。それを防ぐにはファシリテーターの能力も 重要ですし、コンサルタントや計画する人が適切に住民の意見を取り入れる計画 を立てることが必要です。

実際に私が仕事をする際には、市民や住民、商店街の意見を聞く場面と、専門家や先生たちの意見を聞く場面を分けて計画しています。そのような計画ができるコンサルタント会社があれば良いのですが、多くの場合は行政側の担当者が住民の意見を聞くよう求めてきます。そのため、まだ計画的ではない部分もありますが、コンサルタントや計画する側の工夫次第で問題は解決できると思います。

鈴木俊治: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当初の予定時間を超えておりますので、今日はこのあたりで一旦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日の議論については要点をまとめて後日お伝えします。韓国から参加されたイ・ソクヒョン先生、クァク・ドンファ先生、オム・ジョンさんの顔写真も添付できればと思います。今後も、両国の都市デザインの発展のために共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イ・ソクヒョン: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した。

討議要旨 韓国語 토론 요지 한국어

Shunji Suzuki: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TDA 회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의정부, 서울 각지에서 도시디자인의 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도시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소감을 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감, 한일 도시디자인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등에 대해 참가하신 분들에게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앞서 보내드린 기록집입니다. 일본 측회원들의 소감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국 분들의 의견을 한번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자리를 마련하면서 TDA 대표 이사 나오유키 쿠니요시 선생님께서한일교류 10 주년을 맞이한 의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Naoyuki Kuniyosh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기록집과 간담회는 Shunji Suzuki 씨가 발안하여 여러분에게 권유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교류 10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지금의 생생한 느낌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입니다. 오랫동안 한국과의 교류를 해온 저로서도 한국의 도시 디자인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일본이 30 년 정도 하는 것을 아마 10 년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노력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흡수하면서 한국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의 참여 방식도 매우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주 각지에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경험을 통해 볼 때 일본 쪽이 도시 공간의 디자인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아직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느꼈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도 관공서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관공서 내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로서의 입장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단순한 하청업체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하청업체로 취급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일본에서 전문가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부분은 한국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인천과 의정부,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실례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현 단계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것이 양국의 도시 디자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Shunji Suzuki: 오늘은 우리가 설정한 주제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국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 한국, 특히 서울에서의 공공 공간 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국, 특히 서울에서 도시 디자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십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시디자인의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실현된 도시디자인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도시 디자인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본 혹은 도쿄의 디자인에 대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한일 교류를 통해 다뤄야 할 디자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도시 디자인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과 현황, 앞으로의 전망, 과제 등에 대해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Naomichi Kurata: 공공공간디자인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한국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반드시 공공공간디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과 공공공간디자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디자인법을 보면 도시의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간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석현: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곽동화 선생님과 엄지연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것이 1999 년인데, 그 시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조경 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2007 년이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조경이나 환경디자인이 상당히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선진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 GDP 가 2002 년 축구 월드컵 때 아마 20,000 달러가 넘었을 때이고, 2006 년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었어요.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오세훈 시장처럼 경관이나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강한 분이 시장이 되면서 뒤쳐져 있던 도시 디자인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시디자인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역시 2002 년부터의 경제적성장,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같은 시장이 열심히 끌고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울의 민선 단체장들도 오세훈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고 하면서 도시디자인의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후 한강 르네상스, 색채 기준 만들기, 도시 디자인 규칙 만들기, 조례 제정 등 기본적인 것들이 시작되었고, 2010 년경부터 여러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좋은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둔 개성 있는 것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경제와 리더, 시민의식의 성장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경관디자인이 시작이었습니다. 경관 디자인은 일본에서 수립된 경관법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참여로 발전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공공간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법 등 관리 주체에 따라 그 법이나 명칭이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도시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전처럼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식은 국민적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개성있고 쾌적하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국의도시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도 저도20년 가까이 지켜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행정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있지만, 일본의 도시디자인에서 가장 부러운 점은 특히 기업, 민간 차원의도시디자인 움직임입니다. 마루노우치처럼 기업이나 지역 관리자들이전체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일이고, 일본에서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한국도 최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높은 노력은 한국에서는 아직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2 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 속에서 경관이나 도시 디자인에 주목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매우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곽동화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동화: 네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일본에서는 지구계획인데, 그런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경관이 만들어지고 도시디자인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이후 여러 도시에서 녹색축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녹색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과 같은 마을 만들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시 내 대규모 공터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인 관점에서 정비되었다는 점입니다.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이어서 엄지연 씨 부탁합니다.

엄지연: 저는 2~3 년 전에 귀국해서 한국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두 분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발전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1988 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수준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기에 다양한 장소가 리모델링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어요. 이것이 공공디자인이 발전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2002 년부터 수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로서 서울시의 도시 디자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7 년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어 각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색채 등 경관계획이 확산되었습니다.

2016 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널리 퍼졌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발전해 온 것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국 공공디자인의 발전에는 법의 정비가 큰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관계획은 본래 대학 연구실이나 엔지니어, 건축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회사가 그 일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경관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경관 디사인'이나 '도시 디사인'이라는 말보나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회사나서비스 디자인 회사 등 도시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디자인 분야의 회사나컨설턴트들이 경관계획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세 분의 한국 분들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 측에서 지금 세 분의 한국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asami Kobayashi: 안녕하세요, Masami Kobayashi 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후에는 국가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2000 년 초부터 지방에 권한이 이양되고 예산도 지방이 결정해도 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탑다운 방식의 국가주도도 있고, 각 도시의 자율성과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나고야 등 도시들이 각자의 특징을 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의 도시 특징을 내는 방식에 대해 일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석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고이즈미 총리가 지방의 부흥을 위해 경관 정비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NHK 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지자체마다 환경이 모두 다르고, 시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지속적인 계획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자체보다는 국가 전체의 의지와 움직임이 일본보다 강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랜드 스케일의 도시 디자인 시도가 이루어졌고, 일본에 비해 국가 전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도시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정책이 도시재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Masami Kobayashi: 국가의 리더십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석현: 그렇습니다.

Masami Kobayashi: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정권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90 년대부터 경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석현: 곽동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동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 20 년 이상 된 대규모 택지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석현: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국가의 하향식 힘이 강하고, 특히 서울은 행정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실현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Masami Kobayashi: 톱다운의 힘이 강하네요.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Naomichi Kurata: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톱다운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여러 가지 제도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먼저 나오고, 그 속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0 년 전 국토교통부와 후생노동성에서 보행과 건강에 관한 대규모조사를 할 때 한국도 조사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보행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포함한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는 등 정책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일본과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의가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 수뇌부가 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이 정책의 일부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흐름이 보이면, 거기서 갑자기 워커블시티와 같은 개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보행자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적 철학이 부족하다는 점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시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공간이나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분야도 산업으로 팔아먹으려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고나쁨이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지연씨, 지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들었나요?

엄지연: 아까 고바야시 마사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한국의 지역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각 지역의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컨설팅 회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위 계획이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의 수준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제각각이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수준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역이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는 단계로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색채나 거리 시설물의 통일을통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제가 일본에 살 때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LG 연구소에서 일하던 지인이 한국 LG 연구소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녀에게 물어보니일본 LG 연구소는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는적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의 LG 연구소는실험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많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성공사례가 더 빨리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도시 디자인에서도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행정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행정에서는 요코하마 모델이 표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디자인과경관디자인을 제대로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교류회도 그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경험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았지만,역시 일본의 도시 디자인방식은 대단합니다. 기초가 탄탄하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에는왜 일본처럼 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다시 생각해보니 한국만의 다른

접근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차이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Naomichi Kurata: 아까 지연씨가 공공디자인의 기획 등을 하는 것은 민간 디자인 사무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몇 차례 한국에 가서 경관을 이야기하거나 도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 건축이나 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넓은 의미의 디자이너들이 도시 디자인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 전문가가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배경을 들어보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도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곽동화: 한국의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각 대학마다 적어도 한 명씩은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디자인 안에서 전문 분야가 명확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이석현: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토목,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분야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H 라는 조직, 일본으로 치면 UR 과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토목이나 도시계획 관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 년 이상 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직적 구조로 경관은 역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라며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의식이 예전과 비교하면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도시계획학회도 예전에는 urban planning 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urban design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수직적 구분의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조경, 공공디자인, 건축, 도시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섞여 있고, 그런 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 등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야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Masami Kobayashi: 일본의 경우, 역시 토목 쪽 사람들이 계속 국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인프라나 도로 등에 대해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 교통성에서 워커블 같은 것을 말해도 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 강하고, 그래서 보행자 천국이나 트랜짓몰 등을 제안해도 지자체 도로관리자 등이 반대해서 좀처럼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이 좀 더 전체를 보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석현: 쿠라타 나오미치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타가야구와 의정부시가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세타가야구에서는 경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장이 하려고 하면 경찰도 협조하는 분위기인데, 왜 경찰이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Naomichi Kurata: 워커블시티에 관해서는 그 차이가 큽니다. 한국의 교통 관계자가 일본에 와서 사례를 보거나 국토교통성을 방문했을 때 보행자 안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국토교통성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담당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Shunji Suzuki: 일본에서는 행정이 도시디자인을 외쳐도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이나 행정이 주도해 20 년 동안 도시 디자인 지향이 높아진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본에서는 경제가 발전해도 도시디자인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디자인이 높아진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엄지연: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진흥법 등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을 다루고, 경관법에서는 경관디자인, 건축기본법에서는 공공건축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는 기존 분야와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이이해하기 쉬운 시설물 등 휴먼스케일적인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는 시민이 친숙하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이른바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등을 강조하며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것들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파라솔, 발밑 신호등 표지판, 버스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Shunji Suzuki: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을 관리하는 섹션이 도시계획 분야인지, 도로 분야인지, 아니면 횡단적 거버넌스인지 궁금합니다. 일본과 같은 수직적 분업으로는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석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공디자인은 소프트한 측면이 있어 구역, 공원, 도로, 마을 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전에는 수직적으로 시설물, 간판, 색채 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공간 전체와 문화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법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좋은 점도 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Naomichi Kurata: 한국의 공공디자인법을 조사하던 중, 그 평가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특히 배리어 프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알기 쉬운 사인 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서 공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나요?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곽동화 선생님이 계신 인천에서는 폭넓게 접근하고 있고, 개성 있는 공간 만들기 사례도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물 등의 범위에서만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Naoyuki Kuniyoshi: 시민들이 지지한 이유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프로젝트 등 하향식 재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평가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강대국에 걸맞은 공간적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결과 서울이 크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토탈 어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 프로젝트 등 부분적, 전체적 축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장이 도시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부하였고, 디자인사업본부를 설립해 150명 규모로 운영했습니다. 이 본부는 5 개 부서로 나뉘어 서울시의 홍보물, 레터 디자인까지 아우르며 기업의 이미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상징물, 마스코트 등 종합적인 도시 연출,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행히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후임 박원순 시장도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받아 도시 디자인을 중시하고 보행공간을 중요시하는 시도를 실천했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등 시장 스스로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해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이 서울의 토탈 어반 디자인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도시였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고, 상업적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역대 시장들이 이어받으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디자인국장에 취임한 분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도

근무했지만, 다음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만둬야 했고, 이후 자동차 회사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다 대학교수를 거쳐 현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디자인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한국의 흥미로운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공공디자인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경관디자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장 아래에서도 부서별로 경관법을 다루는 곳과 공공디자인을 다루는 곳에 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코하마의 닛산자동차 본사 건물처럼 민간시설 안에 공공시설인 보행공간이 관통하는 디자인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담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부분이고, 경관법과 공공디자인법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서울도 토털디자인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많은 도시들도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수직적으로 분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리더가 없는 한, 종합적인 도시 디자인은 탄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코하마도 법이 만들어지면 수직적인 제도로 인해 도시디자인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법을 행정지도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분업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수직적인 제도를 만들다 보니 도시도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총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담당 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현: 한국은 정치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 등이 도시디자인에 힘을 쏟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도시디자인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오세훈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시장들도 같은 생각으로 도시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도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크게 통합적인 행정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의 형태입니다. 수원시의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 시장님은 부시장으로서 이를 뒷받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에 힘을 쏟는 것은 매우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aoyuki Kuniyoshi: 그거 좋네요.

이석현: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시디자인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Shunji Suzuki: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Yoshida Shingo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ingo Yoshida: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약 20 년 전부터 서울에 가서 색채에 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색채학회는 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디자인학회도 도시디자인에 관한 논문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디자인과 서울의 정비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고, 일본에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미대에서도 도시디자인학과를 만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문제는 형식만 있고, 보행 편의성이나 안전 등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많은 대학의 도시디자인이나 조경디자인학과가 환경디자인으로 바뀌었지만, 일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원 정비 등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비전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향해 많은 것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럽고, 20 년 전만 해도 일본이 더 앞서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최근엔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을 서로 받아들여 서로 발전시키고, 교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도 일본의 방식을 도입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의 색채가 어떻게 가이드라인 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등,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hunji Suzuki: Reiko Chikada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일본의 년 조명 디자이너들이 Reiko Chikada: 10 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라는 곳에 가입해서 일본 지부 같은 것이 생겼어요. '엔라이팅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축제 같은 조명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 기획을 하고, 한국에서 몇 명씩 불러서 함께 그런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예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시에는 루치라는 국제조명디자인협회가 있는데, 도시조명디자인 같은 단체에 서울시가 들어갔어요. 서울시장님이 아시아의 아시아권 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도시 간 야간경관 교류 같은 것에도 시장님이 직접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명 디자인 업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책자에 사진은 제공했지만 글은 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10 년 전만 해도 지연 씨가 지적한 것처럼 조명을 만드는 사람이 주축이 되고, 그 안에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조명 디자이너가 제조사와 너무 밀착하지 않고 독립적인 디자이너가 된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대학 선생님이 지자체와 함께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제조업체가 가세하는 것 같고, 독립적인 조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현: 저희 포럼에도 조명 디자인 회사가 3 곳 정도, 큰 회사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꽤 큰 회사들이 참여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조명디자인을 가르치는 곳도 별로 없어서 기업에서 일하는 게 보통입니다. 제조사도그렇게 많지 않고, 조명 디자인 회사도 5 개 정도의 대기업이 나눠서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색채학회에서 조명 디자이너가 사례를 보여줬는데, 다들 조금놀랐고, 역사적인 경관에 왜 저렇게 화려한 조명을 쓰는지 의아해하는분위기였습니다. 조명 디자인은 아직 체계적으로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조명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좋아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데, 치카다 레이코선생님처럼 조명디자인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기획에 참여해서 다양한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시 디자인 공모전 심사에참여해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배려가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씨는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지연: Reiko Chikada 선생님이 알고 계신 분과 같은 분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명 디자이너를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체가 아닌 일부 경관계획 등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이지, 공공분야에서 야간계획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나 계획서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야간경관이 중요한 곳만 조금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조명 전문 디자인을 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매년 '서울색'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를 활용해 DDP 나 서울타워 등에 조명을 어떻게 넣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민간에 조명 디자이너가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나 아파트의 건축 조명은 훌륭한 디자인이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전문적인 조명 디자인 프로젝트나 작업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석현: 예를 들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인터넷 이미지 소개. (현수교 등에 화려한 조명이 사용된 예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 이런 조명 계획이 이뤄지고 있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명은 한국에서는 중국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올해 서울색 선정 때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Shunii Suzuki: 감사합니다. 예정은 8시까지였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아직 발언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라자와씨, 부탁합니다. Satoru Kurasawa: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시장이 도시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원한다고 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도시디자인을 이야기해서 당선되기는 어렵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수직적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디자인법이라기보다는 무장애 사회를 지향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규격화된 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디자인의 여지가 없어져 정말 사용하기 편한 보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행정에도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토목 분야 사람들, 특히 50 세 이상의 사람들은 '디자인', '사람을 위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엄지연: 한국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한 디자인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 예를 들어 안전, 범죄예방, 무장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저항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 실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석현: 제가 처음 국토교통부 자문을 했을 때,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왜 이런 회의에 참여하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토목, 부동산, 건축 전문가들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곽동화 교수님이 계신 인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hunji Suzuki: 그럼 Yanai 씨에게 부탁합니다.

Takumi Yanai: 아까부터 토목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토목 기술자이기 때문에 조금 변명하고자 합니다. 토목은 일본의 경우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안전과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 디자인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몇 번 방문하고 교류회에 참여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단기간에 역동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언제 가도 그 역동성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의 광장도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장소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정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그 의견에 끌려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석현: 도시재생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획이 수립된 후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계획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의정부시도 도 내에서도 뒤늦게 시작해서 참여에 대한 관공서의 인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 담당도 토목 출신으로 안전과 계획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논의하면 계획이 늦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업에서 주택단지 재개발을 제외한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도, 인천도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일본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일본 쪽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도시계획 시스템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시민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만드는 도시계획의 하위에 해당하는 생활권 계획을 만들 때 시민을 참여시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엄지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 사업이나 작은 공원의 실시설계 등입니다. 그런 설계를 할 때 주민참여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컨설턴트의 제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뱃머리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계획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도 중요하고, 컨설턴트나계획하는 사람이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는 시민, 주민, 상가의 의견을 듣는 장면과 전문가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장면을 구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정 측 담당자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컨설턴트나 계획하는 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hunji Suzuki: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에 대해서는 요점을 정리하여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참석하신 이석현 교수님, 곽동화 교수님, 엄지연씨의 얼굴 사진도 첨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 TDA-PUDA 韓国訪問日程

月・日	訪問都市	内容		
6/1 (木)	ソウル金浦空港着	・金浦空港から仁川までバスで移動		
	バスで仁川へ	・仁川 中心市街地を徒歩で視察 旧日本租界、中華街など		
		・仁川 松島地区 仁川都市歴史館にて日韓都市デザイン専門家交流会議		
		・松島地区 徒歩で視察		
	バスで議政府に移動	・松島地区にて 夕食懇親会		
		・バスで議政府市に移動、議政府市泊		
6/2 (金)		・バス及び徒歩で議政府市中心市街地、旧米軍基地跡地等 視察		
		・議政府市 信韓大学校にて日韓都市デザイン専門家交流会議		
		・議政府市にて 夕食懇親会		
	バスでソウルへ	・バスでソウルに移動、盤浦大橋の月光虹噴水見学		
		・ソウル 永登浦地区泊		
6/3 (土)) ソウル市内視察 ・ソウル 中心市街地を徒歩で視察 鐘路~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清渓川~市庁~光化門広			
		・午後~夕方(~翌日)それぞれ帰路へ		



INCHEON

2023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교류회

2023 Korea · Japan Urban Design Expert Exchange Meeting

6. 1(목) 오후 1시-7시 인천시

한국의 (사)더나온도시디자인포럼(PUDA)과 일본의 도시디자인지원기구(TDA)의 교류 협력체인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한국의 인천시에서 2023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인천시청

주관 중앙대학교 예술문화 연구원

후원 제일건설(주), (주)유니트원, (주)피앤, (주)누리플랜, (주)감성도시디자인, (주)건축사사무소 토담21, (주)어울림엔지니어링, (주)어라이엔지, 더디엔에이(주), (주)율



+ URBAN DESIGN FORUM

UIJEONGBU

2023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교류회

2023 Korea · Japan Urban Design Expert Exchange Meeting

6. 2(금) 오전 9시-오후 7시 의정부시

한국의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PUDA)과 일본의 도시디자인지원기구(TDA)의 교류 협력체인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한국의 의정부시에서 2023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의정부시청

주관 중앙대학교 예술문화 연구원

후원 제일건설(주),(주)유니트원(주)피앤,(주)누리플랜,(주)감성도시디자인,(주)건축사사무소 토담21,(주)어울림엔지니어링, (주)아라이에지, 더디에에이(주), (주)용

캠프 레드클라우드 현장답사	
중식	
ㅇ ㅋ 의정부역 현장답사 의정부 도시디자인 국제포럼 접수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B1 원형극장)	
쿠니요시 나오유키 (일본 도시디자인지원기구 회장)	
축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기조강연 김세용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 내일의 도시계획	
제1강연 코바야시 마사미 (메이지대학교) : 역전 보행공간의 디자인 항상방안	
제2강연 쿠라타 나오미치 (공학원대학교): 지역공간자원을 활용한 도시디자인	
패널토론	
작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한국패널 이기옥 (중앙대학교), 김유선 (삼육대학교), 이현성 (홍익대학교)	
일본패널 쿠니요시 나오유카(TDA), 쿠라타 나오미치(공학원대학교),	
치카다 레이코(치카다레이코디자인), 이노우에 요지(도시디자이너)	
요시다 신고(무사시노대학교), 스즈키 미노루(TDA), 야나이 타쿠미(TD	
질의용답 / 사진촬영	
폐회 한입도시디자인교류회 친선회	

2023 TDA-PUDA 韓国訪問 日本側参加メンバー

参加者氏名	Name	所属	Affiliation
近田玲子	CHIKADA Reiko	株式会社 近田玲子デザイン事務所 代表	Reiko Chikada Lighting design Inc.
稲葉裕	INABA Yutaka	フォーライツ	FORLIGHTS
井上洋司	INOUE Yoji	株式会社 背景計画研究所 代表	Landscape Architecture atelier Haikeikeikaku
小林正美	KOBAYASHI Masami	明治大学教授	Meiji University
国吉直行	KUNIYOSHI Naoyuki	横浜市立大学客員教授	Visiting Professor of Yokohama City University
倉澤聡	KURASAWA Satoru	倉澤 UDP 研究所	Kurasawa urban design and planning lab
倉田直道	KURATA Naomichi	工学院大学名誉教授	Professor Emeritus of Kogakuin University
杉山朗子	SUGIYAMA Akiko	日本カラーデザイン研究所研究フェロー	Nippon Color & Design Research Institute
鈴木稔	SUZUKI Minoru	あおば景観デザインネットワーク	Aoba Landscape Design Network (freelance)
鈴木俊治	SUZUKI Shunji	芝浦工業大学 教授	Shibaura Institute of Technology
高谷時彦	TAKATANI Tokihiko	(株)設計計画高谷時彦事務所 代表	TOKIHIKO TAKATANI STUDIO
矢内匠	YANAI Takumi	さいたま市役所	Saitama City Government
依田彩	YODA Aya	有限会社クリマ	CLIMAT Ltd.
吉田愼悟	YOSHIDA Shingo	有限会社クリマ	CLIMAT Ltd.

◆編集後記

私の韓国訪問は、TDAのメンバーとしては今回2023年が初めてですが、個人としてあるいは大学関係の訪問を含めると合計5回になります。初回は1990年頃で、ソウルは大都市ながらもローカルな雰囲気がかなり残っていた印象があります。宿泊したホテル(正確には覚えていない)からしばらく行ったあたりは夜はかなり暗く、そのなかにキリスト教会の十字架の赤や緑のネオンがポツンポツンと光っており、韓国はキリスト教徒が多いということ、十字架をネオンサインとするのか、と思いました。

2回目は約20年後の2011年、うわさに聞いていた清渓川の改修を体験して大胆な水辺デザインに感銘し、また仁寺洞のshared spaceとも言える歩車共存道路を歩き、北村の歴史保全地区ではリノベーション型まちづくりが勃興しているのを見て、各地で先進的な都市デザインが始まっていることを実感しました。

そして 2023 年では、TDA メンバーが様々に記述しているように、公共デザインが各地の都市政策の中心として、また世界戦略としてますます発展的に展開されている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その背景には日韓両国それぞれの事情がありますが、このままでは日本はますます韓国にそして世界に置いて行かれてしまうという忸怩たる思いを持ったのは、私だけではなかったようです。

この冊子には、たくさんの TDA メンバーが想像以上に多くの記事や写真を寄せてくれました。それぞれの方々が、韓国から多くの刺激を受けたこと

◆편집 후기

TDA 회원으로서 한국 방문은 이번 2023 년이 처음이지만, 개인 또는 대학 관련 방문을 포함하면 총 5 번의 방문이 된다. 첫 번째는 1990 년경으로,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로컬의 분위기가 상당히 남아 있던 인상이다. 숙박한 호텔(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서 한참을 걸어가면 밤은 상당히 어두웠고, 그 속에 기독교 교회 십자가의 빨간색과 초록색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한국은 기독교인이 많아서십자가를 네온사인으로 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약 20년 후인 2011 년, 소문으로만 듣던 청계천의 개보수를 체험하며 대담한 수변디자인에 감탄했고, 인사동의 shared space 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도로를 걷고, 북촌의 역사보존지구에서 리노베이션형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을 보며 곳곳에서 선진적인 도시디자인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디자인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2023 년에는 TDA 회원들이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디자인이 각국의 도시정책의 중심이자 글로벌 전략으로 점점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점점 더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뒤쳐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책자를 위해 많은 TDA 회원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글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각자가 한국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の証と思います。また、韓国のイ先生、クァク先生、ジオンさんはじめ PUDA 関係の皆様には訪韓中に各地で大変なおもてなしをいただき、まとめの意見 交換会では多くの貴重なご意見、示唆をいただきました。特にイ先生には意見交換会記録の韓国語の翻訳の監修もしていただきました。ここで改めて深くお礼申し上げます。

この冊子が日韓の多くの皆様に読まれ、両国の都市デザイン交流がますます深まり学びあ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2024年6月

TDA 景観デザイン支援機構理事・芝浦工業大学教授 鈴木俊治(Shunji SUZUKI)

◆編集事務局

鈴木俊治(主担当)、依田彩、矢内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이 선생님, 곽 선생님, 지온 선생님을 비롯한 PUDA 관계자 여러분은 방한 기간 동안 각지에서 많은 환대를 받았고, 마지막 의견 교환회에서는 많은 귀중한 의견과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선생님께서는 의견교환회 기록의 한국어 번역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가 한일 양국의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 양국의 도시디자인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 년 6월
TDA 경관디자인지원기구 이사·시바우라공업대학 교수
스즈키 슌지

◆편집사무국

Shunji Suzuki (Chief), Aya Yoda, Takumi Yanai